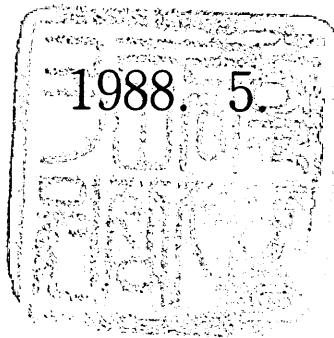


各黨各界의 統一論議關聯 資料集



22366 204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目 次

I. 第 13 代 大選期間中 各黨 및 候補들의 統一關聯 發言內容	3
II. 第 13 代 總選前後 制度圈의 統一論議關聯 內容	57
III. 一部 宗教界의 統一論議 事例	71
IV. 一部 在野 및 學園街의 統一論議 事例	141
V. 學界人士의 統一論議 傾向	177
VI. 北韓의 統一論議關聯 主張	195
※ 國土統一院關聯 主要發言 內容	211

I. 第13代 大選期間中 各黨 및
候補들의 統一關聯 發言內容

1. 民主正義黨 盧泰愚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 發言

美·日 巡訪時 主要發言內容

가. 韓國의 이데올로기와 民族主義

「이 時代 韓國에 있어서 民主主義를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란 극단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극우이든 극좌이든 極端主義는 民主的 政治發展過程에 대한 最大의 敵이다. 어느 한편의 極烈 勢力에 불모가 되어 있는 政治人이나 政黨은 결코 극우, 극좌를 물리치고 民主主義 實現을 해낼 수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과감한 民主改革에 의해 極烈 勢力을 주류의 흐름으로부터 고립시키고 同時에 다른쪽에 대해서도 적절한 制御能力을 發揮할 수 있어야 한다. 最近 國內 一部 젊은層의 反美·日 감정에 대해 友邦에서 혹시 念慮하고 있을지 모르나 이는 反美·日 次元이 아니라 오랜 外勢의 侵略에 따른 民族자부심을 回復키 위한 民族主義的 次元의 감정이다.」

< 1987.9.15, 現地, 美國네셔널프레스클럽演說 및 9.18, 日本 나카소네首相會見 >

나. 南北韓 關係 : TV 相互 交換演說 提議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해서는 對話를 積極 推進해야 한다. 올림픽을 成功裡에 마치게 되면 南北韓間의 緊張이 상당히 緩和될 것으로 본다.

우리 大統領은 南北對話를 통한 平和定着을 위해 北韓의 主席인 金日成과 만나자고 이미 南北韓 最高 當局者會談을 提議한 바 있다.

本人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金日成主席을 서울에 招請, 韓國 TV에 나가 마음대로 이야기 해보라고 하고 우리側도 그와 같은 方法으로 北韓同胞들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제의했으면 한다.」

〈 1987.9.15, 現地, 美國 내셔널프레스클럽 1問1答 〉

다. 南北韓 交叉承認의 發展的 推進

「本人은 窮極的으로 中共과 蘇聯이 韓國을 承認하고 美國과 日本은 北韓을 承認하는 交叉承認을 達成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88 서울올림픽이 끝나면 南北韓은 대등한 立場에서 벗어나 엄청난 隔差가 생길 것이며, 따라서 對北政策도 進一

歩할 時代가 왔다고 본다.

이러한 脈絡에서 美·日·中·蘇 4강의 南北韓 교차승인
방안도 유연성있게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올림픽이 끝나면, 큰 형(大兄)의 立場에서 의연하고도
유연하게 平和統一政策을 推進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方向에서 韓半島의 安保와 平和
定着을 構想하고 있다.]

< 1987.9.14, 존스홉킨스대 演說 및 9.18 日本나카소네首相
會見 >

라. 作戰指揮權 問題

「主權國家가 자신의 軍隊에 대해 作戰指揮權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다.

장차 우리는 이 문제가 그같은 方向으로 변화되도록 努
力할 것이며, 窮極的으로 作戰指揮 體系는 그렇게 바뀌어
질 것이다.

그러나 作戰指揮權 변경문제는 자칫하면 南·北韓 軍事
不均衡을 초래, 戰爭을 유발할 危險性이 있는 미묘한 問

題이므로 選舉用 爭點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실현될 수 없으나 窮極的으로는
그런 方向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1987.9.14, 현지, 워싱턴포스트紙 編輯幹部들과의 오찬회
1問1答 >

마. 韓國의 學生運動 및 勞使紛糾

「젊은이들이 政治現實에 影響을 미치도록 하기 전에 政
府가 그들의 이상을 積極 收容하도록 努力하겠다.

급격한 産業發展으로 成長과 安定에 政策이 치우치다 보
니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젠 企業들도 근로자의 정당
한 몫을 지불할 때가 되었다.]

< 1987.9.15, 現地, 美國 네셔널프레스클럽 演說 >

바. 南北韓 軍縮 및 駐韓美軍 撤收問題

「南北韓 軍縮 이야기는 北韓에서도 하고 있다. 北韓의
주장은 軍縮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고 駐韓美軍撤收에 그
目的이 있다.

南北韓 軍事力을 比較하면 韓國은 北韓의 62%에 지나
지 않아 軍事均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軍事均衡이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긴장이 緩和되고 不可侵條約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글라이스틴 전 駐韓美大使가 主張하는 軍축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팀스피리트訓練의 경우, 北韓도 똑같은 訓練을 하고 있다. 韓國側은 팀스피리트訓練이 공격적인지 방어적인지를 北韓側이 직접 와서 보라고 제의한 바 있다. 北韓이 이에 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바란다.]

< 1987.9.19, 日本 記者클럽 1問1答 >

사. 南北韓間 올림픽 分散開催 問題

「 IOC사상 유례없이 5개종목의 競技를 北韓에 주겠다며 同參을 요구했으나 失敗했다. 따라서 앞으로 共同主催에 關한 이야기는 더이상 提起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北韓의 參與問題에 關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1987.9.15, 現地, 美國 네셔널프레스클럽 및 9.19, 日本 記者클럽 1問1答 >

盧泰愚總裁 特別 인터뷰

가. 젊은층의 의식을 民族主義의 발로라고 表現하였는데 그렇다면 평소 盧候補의 民族主義觀은 무엇인가요?

「民族主義와 관련한 우리의 歷史觀은 하루빨리 再定立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수없는 외침에 따른 굴복, 위축, 반성등 이러한 감정을 너무 앞세워 엮어놓은 것이 지금까지의 民族史觀이 아닌가 합니다.

5千年동안 單一民族이 당당히 生存해왔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정리해 볼것 같으면 우리民族은 남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우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確認하게 됩니다.

일제 36年, 6.25 등 모든 어려움을 뚫고 努力해 나라를 建設하고 經濟를 발전시켜 우리도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는 상태에까지 왔습니다.

배고픈 恨, 외침에 대한 恨, 無知의 恨등 우리歷史의 세가지 恨을 이제 풀 때가 왔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外勢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비굴함도 없어요. 남한테 전혀 끌릴 것이 없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식의 再出發時點에 와 있으며 특히 政治指導者들은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取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대주어야 합니다.]

나. 一部大學生의 급진좌경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또 反美傾向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急進左傾勢力의 問題點은 겉으로는 民主化를 내세우면서도 選舉에 의한 政權承繼方式이 아니라 暴力革命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産業社會의 構造的 모순에 대한 치유를 위해 法秩序 테두리內에서 改革을 위한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自由民主主義體制와 自由市場經濟 原理의 밑바탕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急進左傾勢力을 南北韓 分斷의 安保現實을 考慮해 볼 때 도저히 收容할 수 없다고 봅니다.

反美 감정은 우리의 成長, 發展에 따라 民族的 自存과 自矜心이 높아진 結果의 발로이자 젊은 世代의 이상과 變化를 추구하는 性向의 일단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요즈음 美國의 市場開放壓力으로 反

美감정이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다. 盧候補께서는 最近 民族主義 問題와 함께 전향적인 對北 姿勢를 表明하셨는데 평소 구상했거나 이번 選舉에서 提示할 統一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의 立場이 남다른 만큼 특별히 慎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미 民族統一에 대해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提示해 놓고 있습니다만 88 올림픽을 成功的으로 치루고 나면 南北間의 체제경쟁은 사실상 끝나게 되고 北韓側은 우리의 德탕트政策에 應해오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엄할때 엄하게 가르치되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寬用도 베푸는 “말형政策”(Big Brother Policy)을 北韓에 써볼만한 時期라고 생각합니다.」

〈京鄉新聞, 1987.10.6, 3面〉

第 137 回 定期國會(87.10.6) 代表演說

가. 急進左傾 이데올로기

「그러나 우리 社會의 일각에, 時代的 要求를 거슬리는

極端主義가 아직도 남아있는 現實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暴力革命을 통해서라도 親北的 社會主義政權을 세우겠다는 急進左傾勢力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民衆」 云云의 그럴듯한 事術적 用語를 쓰면서 反共의 가치도 全面 부정하고 우리의 安保體制를 罵倒하며 오로지 暴力的 體制전복을 기도하고 있을뿐입니다.]

「民主主義가 소중하면 할수록 民主秩序自體를 危脅하는 이들에게 民主主義의 空間을 許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다수 國民의 참뜻입니다.]

「특히 急進的 左傾暴力革命勢力에 대해서는 與野를 떠나 함께 꾸짖고 함께 說得하고 때로는 함께 遮斷시키면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해야지 그들을 부추기거나 煽動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 統一問題

「우리가 나라의 진정한 民主化를 推進하면서 잠시라도 잊을 수 없는 課題는 民族의 平和的 統一입니다.]

「平和統一을 위한 우리의 꾸준한 外交的 努力에 힘입어

民族의 平和統一을 앞당길 수 있는 國內外的 與件이 차차 익어가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國力이 점점 커지면서 民族的 힘이 높아져 分斷을 우리 손으로 해소해 보자는 열기가 擴散되는 한편, 北韓과의 發展隔差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北韓의 「王朝的 世습체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平和的 政權交替로써 民主化가 促進되어 나갈때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더우기 東西接近의 상징이 될 서울올림픽의 화해분위기는 北韓이 南北對話에 應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本人은 民族의 統一問題는 민족자결주의의 原則에 立脚해 南北 當事者 사이의 對話를 통해 解決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와 關聯하여 本人은 우리 政府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이 현재로서는 가장 現實的이라고 전제하면서, 3段階 接近方法을 提示해 왔습니다.]

「人道的 次元에서의 人的 交流과 書信往來, 그리고 觀光·文化·藝術交流로 始作하여 通商과 經濟協力을 增大시키면서 마침내 民主的으로 政治的 統合을 이룩하자는 것입

니다.]

「그러나 南北韓의 平和共存이 實質적으로 이루어질때까지 우리의 安保態勢를 擴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美軍의 駐屯을 계속 確保하면서 韓·美間의 安保體制를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韓·日 協力關係를 深化시키는 한편 友邦과의 紐帶를 두텁게 하고 非同盟圈에 대해서는 물론 共產圈에 대해서도 과감히 接近해 나가는 活力있는 전방위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盧泰愚 大權走者에게 묻는다

가. 70年代이후 우리社會構造의 중요한 변동 가운데 하나가 進步革新勢力的의 두드러진 表出이며 최근에는 急進左傾 용 공세력까지 발호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러한 傾向이 왜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執權하게 되면 그러한 勢力들에 대해 어떻게 對處하시겠습니까?

「우리사회 各分野가 急速度로 變化 발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現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가

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黨에서도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左傾”이라는 表現은 안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分明하게 “左翼”과 구별을 지어 國家發展을 위해 收容해야 할 進歩 革新勢力까지 배척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民主化를 내세우면서 選舉에 의한 政權交替까지 否定하는 極左暴力革命勢力은 法에 의해 剔抉해야겠지만 複雜한 이데올로기의 多層化現象속에서 收容과 剔抉의 基準을 明確히 하여 國民적 화합을 극대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나. 極左暴力革命勢力의 問題가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또 그것을 社會發展段階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과성(一過性)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뿌리를 내리는 段階라고 보십니까?

[두가지 側面에 주목하고 있어요. 社會發展段階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과성 현상이라고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리 자생 좌익이라도 그들을 고무 선동하기에 血眼이 돼있는 北韓의 存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실제로 요즈음 그러한 勢力의 擴大가 北쪽의 影響을 적

지않게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아뭏든 우리는 극좌세력에 對抗한 持續的인 境界와 함께 進歩革新勢力들을 民主化過程에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努力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6.29 宣言” 이후 상당한 變化를 느끼고 있어요.」

「東亞日報」, 1987.10.23, 3面 >

1987.11.27, 安保 및 統一에 대한 公約 發表時 3段階

統一方案 (不可侵協定 → 閣僚會議開催 → 統一憲法 制定)

提示

가. 平和的 民族統一의 推進

「서울올림픽의 成功的 開催와 對北優位の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南北韓間의 相互交流를 적극 추진하여 不可侵協定을 포함한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우선 체결한다. 統一을 向한 중간단계로 南北韓의 유엔가임을 추진하고 美·日·中·蘇에 의한 南北韓 交叉承認 問題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南北韓間에 經濟·社會·文化·體育·科學·技術·教育·藝術등 各 分野에서 교류와 협력을 增

大시킨다. 南北韓 各료회의를 정례화시킨다. 南北韓 協力共同體를 構成, 運營한다. 南北韓 信賴回復과 相互協力으로 構築된 民族同質性的 바탕위에서 南北韓 住民들의 公正하고 자유롭고 民主的인 의사에 의해 制定된 統一憲法에 따라 統一民主共和國을 樹立하도록 한다.]

〈서울신문, 87.11.28 字, 1,5 面〉

나. 對共產圈外交의 積極化

「中共과는 貿易代表部 形態의 關係樹立을 적극 모색하겠다.」〈東亞日報, 87.11.27〉

「中·蘇 및 東歐 共產圈과 交流擴大 특히 中華人民共和國과는 任期內에 正式 外交關係를 樹立하겠다. 그러면 東北亞의 永久한 平和도 定着될 것이며 南北統一도 解決의 길이 열릴 것이다.」

〈仁川遊說, 東亞日報, 87.11.28 字, 1 面〉

公 約 整 理

가. 統 一

「統一問題는 認識과 발상의 大轉換을 통해 接近해 나가겠

다. 과거 冷戰的 발상으로 接近한 傾向 — 즉 民族問題의 對立的·鬭爭的思考 — 를 앞으로는 止揚, 北韓에 대해서는 큰형처럼 대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겠다.
相互 비방하고 괴롭히는 敵對論理에서 벗어나 서로 돕고 함께 잘사는 互惠論理로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나. 外交·安保

「南北韓의 유엔 同時加入을 다시 한번 強力히 推進하겠다. 韓國的인 作戰指揮體制를 確立하고 美軍의 作戰指揮權을 우리가 이양받도록 努力한다.」

「豫備軍 編入後 8年間만 義務訓練을 받도록 하는 服務年限制를 導入하고, 軍入隊가 늦은 사람에게는 現在의 年齡 年限인 35歲까지만의 義務服務를 適用한다. 大入再修生도 1年間 入營延期惠澤을 주도록 한다.」

〈朝鮮日報, 87.11.26 字, 3面〉

2. 民主統一黨 金泳三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 發言

選舉公約 및 政綱政策

가. 選舉公約

「民族統一院長官이 非經濟分野(外交, 安保, 內務, 法務, 國防, 文公, 文教 등)의 國政을 管掌하는 副總理를 兼하도록 한다.

外務部 傘下の 外交安保 研究院과 統一院 傘下の 統一研修院을 統合하여 “民主統一研修院”을 設立한다.」

「南北不可侵 協定締結을 積極 推進하고 頂上會談 등 南北對話를 深度있게 再開, 平和共存의 바탕위에서 韓半島 非核地帶를 推進한다.」

「軍의 主體的 統率을 위한 軍作戰指揮權 還元을 積極 交涉 推進한다.」

「韓·美行政 協定上の 不公正條項을 是正한다.」

〈東亞日報, 1987. 9. 4, 2面〉

나. 政綱政策

「우리 統一民主黨은 이 時代의 至上命題인 民族統一 成

就와 祖國의 民主化鬪爭에 앞장서는 國民政黨임을 宣言한다.

우리 黨은 統一이 民族再生의 出發임을 確信하고 自主적이고 平和的 方法으로 이를 實現하여 希望찬 民族史를 創造하는데 앞장선다.

- (1) 民族統一이 政治의 理念과 體制를 超越하는 民族史의 第1 課題임을 認識하고 이를 國政의 指標로 삼는다.
- (2) 自主的 統一與件을 造成하기 위해 韓半島 周邊 關係 國들과의 交流를 積極 促進한다.
- (3) 南北間의 政治・經濟・社會・文化・體育 등 모든 分野에 漸進的 相互交流를 通해 緊張을 緩和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여 民主統一을 앞당긴다. (4) 韓半島에 常存하는 戰爭危脅과 核武器의 가공할 破壞力에 유념하여 戰爭抑止에 積極 努力한다. (5) 統一論議를 國民的 次元으로 擴大한다. 統一에 關한 輿論을 收斂하여 國民的 合意를 도출하고 統一運動을 民主的 方式으로 展開한다.」

〈統一民主黨 政綱政策, 1987. 5. 1, P. 3, 11-12〉

政策立案 5原則 및 執權 8大目標 提示

가. 政策立案 5原則

「統一政策을 開放하는 統一指向 原則(3項)・國民갈등을 和解와 一致로 轉還시키는 民族和解의 原則(4項)」,

나. 執權 8大目標

「統一運動의 保障, 그리고 統一政策의 劃期的 推進, 對北 韓 軍事關係에만 집중되었던 安保概念을 한차원 높여 安保環境을 評價하고, 政治外交力量과 民主主義를 지키고자 하는 國民意志에 基礎한 綜合的 國防力을 提高해야 한다. (6項).

民族自存을 지키며 國際化時代를 先導하는 外交(7項).
駐韓美軍 作戰指揮權의 改善方案 檢討.....」

< 1987. 9.26, 黨政策關係者會議, 朝鮮日報, 1987. 9.27,

한국일보, 1987. 9.27, 1面>

特別인터뷰

가. 最近 一部大學生을 비롯한 젊은층의 急進左傾思潮와 특히 一部の 反美傾向에 어떤 見解를 갖고 있습니까?

「젊은 世代들의 進步的인 傾向을 分別力있게 受容하지 못하고 彈壓의 구실로 삼는게 더 問題지요. 우리가 自由民主主義만 充實하게 지켜나간다면 과격의 요소는 그만큼 줄어들게 明白한 이치고 非民主的인 여러 集團이나 行爲를 容納하지 않으리라 確信합니다.

그리고 反美問題에 대해서 反美傾向과 左傾·容共 問題는 嚴格히 區別되야 할 別個事案이에요. 나는 美國이 繼續 軍事政權을 支持한다면 韓國에서의 反美運動은 급격히 增加할 수 밖에 없고 머지않아 國民運動으로까지 擴大될 可能性이 있다고 봅니다.」

나. 平素 構想하고 있거나 이번 選舉에서 提示할 統一觀은 무엇입니까?

「分斷時代를 마감하고 統一을 達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民族의 生存과 繁榮을 위해 가장 절실하고 가장 重要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번 統一問題는 民主·自主·平和의 3原則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同時에 統一論議의 開放, 民族同質性回復, 冷戰이테올로기의 克服, 南北交流를 擴大하고 南北韓 軍縮과 經濟協

力, 相互不可侵協定 締結을 위한 南北最高頂上會談 實現을
主唱할 計劃입니다.」

〈京鄉新聞, 1987.10. 8, 3面〉

金泳三總裁 民族統一 構想

가. 自主平和統一 6大原則

〔첫째가 自主의 原則입니다.

지금까지 南北韓 雙方은 自身들의 一方的인 統一政策만을
提示하고 事實上 實現될 수 없는 主張만을 해음으로서
外部로부터 緊張緩和와 南北接觸을 위한 壓力을 招來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外部의 壓力에 의한 統一政策은 實現
可能性이 稀薄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南은 北을, 北은
南을 비방하는 弘報戰略의 次元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
습니다. 더 말할나위 없이 統一問題는 外勢의 間涉없이
民族 自主의 原則아래 推進되어야 하며, 우리가 能動的으
로 國際的 環境을 自主적으로 變化시키고 造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가 和解의 原則입니다.

韓半島의 分斷은 冷戰의 所產物으로써 自由民主主義와 共產

主義란 異質的인 理念과 制度의 衝突이 그 비극의 原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分斷이 만들어 놓은 南北의 兩政權은 이미 事實上의 獨立政府로서의 體制와 實力을 갖추어 莫強한 軍事力을 갖고 對決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民族의 大團合과 統一을 成就하기 위해서는 南北關係에 質的인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길을 摸索해야 합니다. 統一을 制度上의 變更으로만 보고 聯邦制 또는 單一政府樹立 등을 問題의 焦點으로 삼아왔던 過去의 생각에서 벗어나 休戰線을 가운데 놓고 對峙하고 있는 兩體制間의 友好關係를 增進하는 實質的인 問題에 關心과 努力을 集中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가 段階的 成就의 原則입니다.

南北이 統一하겠다고 40年동안 서로 맞서 오면서, 統一을 하겠다는 當事者들이 서로 反目하고 戰爭狀態를 繼續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繼續해 온 南北의 戰爭關係를 平和關係로 轉換시키고 난 뒤 平和的인 協助의 範圍와 深度를 넓혀 거기서 생기는 協助關係가 政治的인 協力의 基盤을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國內 民主改革 斷行 및 南北韓 民主改革 促求,

漸進的 交流 및 雙方의 實相公開, 非政治分野 協力 및 相互 自由往來 등으로 緊張緩和와 和解의 基盤을 마련한 뒤 本格的으로 政治外交分野 協力 및 統一을 위한 準備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째가 平和의 原則입니다.

統一課業을 平和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南北雙方이 平和的 方法을 擇하겠다는 意思의 合議도 물론 重要 하지만 또 雙方이 平和的 方法을 擇하지 않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政治와 安保의 與件造成이 더욱 必要합니다. 武力으로 統一하지 않겠다는 意思 그리고 雙方이 革命이나 煽動으로 內部的인 政治變化를 일으켜 統一을 試圖하지 않겠다는 意思가 確認될 수 있어야 하며 相對方에 對한 상호비방이나 相互 內政干涉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가 轉換의 原則입니다.

南北의 對立이 오랫동안 繼續되었을 뿐 아니라, 언제 다시 戰爭이 再燃될지 모른다는 準戰時體制가 維持되어 왔기 때문에 南北 兩側의 軍事力은 急速度로 成長하였고, 이 軍事力이 國土防衛라는 軍事的인 任務를

넘어 國內의 政治社會 諸部分에까지 커다란 影響力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雙方은 內部體制를 平和 態勢로 轉換시키는 作業을 意識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作業은 民主主義 回復으로 民主政府가 樹立됨에 따라 본 軌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나 民主政權 擔當者는 意識적으로 內部的 與件을 南北關係의 質的인 變化와 보조를 맞추어 自由化하는 措置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가 民族 大參與의 原則입니다.

南北 兩 體制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協助의 길을 넓히는 作業은 政府 當事者들의 責任이지만 南北間에 흩어져 있는 겨레사이에 同族愛와 同質性을 키워 나가는 作業은 國民 모두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政治적으로 이루어지는 和解는 바로 이와같은 個人的 交流와 紐帶를 增大시키는 與件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南北韓의 關係가 進展됨에 따라 離散家族이 다시 뭉칠 수 있는 機會를 만들어 줄 수 있고 旅行과 通信의 自由를 通해 統一을 위한 南北間의 實質的인 基盤이 마련될 것입니다.]

나. 韓民族 共同體 統一方案

「第1段階는 國內의 民主改革을 斷行하고 北韓의 民主改革을 促求하는 段階입니다. 民選・民間政府가 樹立된 後 統一을 위한 對話의 基本的 前提인 南北韓의 民主化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內政改革을 通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分野에서의 民主化를 推進하는 同時에 外交改革을 斷行하고 北韓政權에 대하여서도 民主化를 強力히 促求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世界輿論의 支持를 確保하는 同時에 統一論議에 대한 南北韓 住民의 일체적인 共感帶를 形成할 수 있을 것입니다.」

「第2段階는 모든 分野에서 漸進的 交流를 促求하고 雙方의 實相을 公開하는 段階입니다. 書信交換, 體育交流, 固有文化 및 民俗交流, 성묘단交換, 親知訪問, 取材와 報道 및 觀光의 許容, 間接交易 增大, 直接交易 摸索 등 交流와 實相公開를 通하여 民族의 同質性과 信賴回復을 기할 것입니다.」

「第3段階는 非政治的 分野의 協力을 強化하고 自由往來를 試圖하는 段階입니다.

民族의 뿌리 및 歷史찾기 運動의 共同展開, 對外共同
公演 및 展示會의 開催, 關稅撤廢를 통한 間接交易
推進, 交通通信의 自由利用 및 往來節次의 簡素化 등
을 통하여 經濟와 文化藝術分野 등에서의 協力を 보
다 緊密히 함으로써 相互 自由往來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第4段階는 政治·外交分野의 協力を 強化하고 具體
的 民族統一을 準備하는 段階입니다.

이미 形成된 民族의 同質성과 相互信賴를 바탕으로한
相互理解의 基盤위에서 對非同盟 및 유엔外交의 共同
보조를 摸索하고 南北韓의 諮問機構를 構成하여 統一
을 위한 具體적인 準備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
다.]

「第5段階는 一民族一體制의 平和的 民族統一을 宣布
하는 段階입니다.

앞段階들이 實質적이고도 積極적으로 推進 實踐되어 온 民
族이 相互協助體制의 價値와 意義를 充分히 認識한 위에
共同體로서의 完熟期를 거친 後, 準備된 統一에 關한 具
體的 方案을 南北韓 住民들의 最終確認을 거쳐 內外에

一民族 一體制의 韓民族 共同體를 宣布할 수 있을 것입
니다.」

〈韓民族共同體制統一方案(1987.10.12), 2-4면〉

87.10.26, 仁川 호텔송도비치, 감리교 선교국 都市産業宣
敎委 主催, “勞働者宣敎를 위한 復職者 세미나”

「나는 眞情으로 대담하게 統一問題를 다룰 수 있는 사
람…… 大統領이 되면 5年任期中 統一의 基礎를 다져놓
고 물러나겠다.」

〈「朝鮮日報」, 87.10.27, 1面〉

1987.11.6, 관훈클럽토론회 1問1答

가. 金總裁의 5段階 統一論은 現政府 및 金大中氏의 統一論
과 어떻게 다른가?

「26年前 어머니가 固定間諜에 依해 不幸하게 殺害된 뒤
分斷의 悲劇을 절감하여 統一問題에 깊은 關心을 가져왔다.
나의 5段階 統一論은 이 政府의 統一論과는 다른 1民
族 一體制의 統一共同體를 發表하자는 것이다.」

나. 民主黨 1百大 公約中 非核地帶化가 있는데 進歩論까지
吸收하자는 것인가, 그 背景은 무엇인가?

「政策으로 確定되기前 試案이 報道됐다. 執權하게 되면
여러 問題를 充分히 檢討하겠다. 美軍撤收 主張도 있으
나 어느정도까지는 韓半島 平和를 保障하는 戰爭抑止力이
되고 있다.

물론 永遠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朝鮮日報」, 87.11. 7字〉

1987.11. 9, 世宗文化會館別館, 大統領候補 추대식

○ 大統領候補 受諾 演說文(要旨)

「民主黨 政府는 分配의 正義를 具現하여 分配를 통한
成長을 이루어 나가고 統一과 和害의 主體인 民族成員
에게 統一論議의 自由를 保障할 것이다. 이번 選舉鬭爭
은 6月市民 抗爭의 延長으로서 軍事獨裁를 清算, 終熄시
키는 過程일 수 밖에 없으며, 소외된 國民을 위한 鬭爭
이고 民族統一을 指向하는 길이다.」

〈朝鮮日報, 87.11.10字, 2面〉

1987.11.18, 파주·금촌·문산 地域遊說 時 公約提示

○ 南北韓 交流 漸進的 促進 問題

「내 생애에 비록 統一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緊張緩和와 民族和解의 기틀만은 기필코 實現하겠다. 앞으로 될 民主黨 政府는 南北間에 書信交換, 성묘단交換, 體育, 文化交流, 親知訪問 등 모든 分野에서의 漸進的 交流를 促進하는 問題를 積極 檢討해 나가겠다…….

나는 새 祖國의 建設과 새로운 民族共同體를 創造한다는 姿勢로 民主化와 統一을 위한 民族成員內部的 和解와 正義를 具現해 나가겠다.」

〈京鄉新聞, 87.11.18 字, 1 面, 東亞日報, 87.11.18 字, 1 面〉

○ 安保問題

「그동안 이 政府는 安保問題를 갖고 國民을 彈壓하고 獨裁延長에 利用해 왔습니다. 27 年동안 봄이오면 가을이 危險하다고 하다가 가을이 오면 봄이 危險하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蘇聯과 中共이 支援하지 않는 한 金日成은 감히 南侵하지 못할 것입니다. 國民 絕對多數도 反共精神에 透徹합니다.」

〈朝鮮日報, 87.11.19 字, 2 面〉

1987.11.18, 基督教 100週年 記念館, 改信教 牧會者 朝
餐기도회 인사말

○ 統一論議

「北韓의 實相을 國民에게 公開하는 것이 反共에 도움이 될텐데 現政府는 統一論議를 獨占하고 있다. 北韓의 勞動新聞을 몇일만 國民들에게 보이면 國民들이 절로 共產主義를 알게되 安保教育이 될 것이다.」

〈京鄉新聞, 87.11.18 字, 2面〉

公約整理

가. 統 一

「任期中에 南北間에 交流를 할 수 있게 하여 統一의 基盤을 닦겠다. 統一論議에 廣範圍한 國民의 參與를 保障할 것이며, 전향적이고 具體적인 政策을 펼쳐 나가겠다.

統一은 ①自主의 原則, ②和解의 原則, ③段階的 成就의 原則, ④平和의 原則, ⑤轉換의 原則, ⑥民族大參與의 原則 下에 이뤄져야 한다.

統一方案으로서는 國內의 民主的 改革을 斷行하고 北韓의

民主改革을 促求하는 第1段階, 모든 分野에서의 漸進的
交流를 促進하고 雙方의 實相을 公開하는 第2段階, 非政
治的 分野의 協力을 強化하고 自由往來를 試圖하는 第3
段階, 政治·外交分野의 協力을 強化하고 具體적인 民族統
一을 準備하는 第4段階, 1民族 1體制의 平和的 民族統
一을 宣布하는 第5段階를 거치는 “韓民族 共同體 統一
方案”을 提示한다.]

나. 外交·安保

「安保問題를 政權維持 手段으로 利用하지 않고 國民들에
게 北韓實情을 가능한 限 알릴 수 있는데까지 알려 國
民들이 떳떳하고 堂堂하게 國家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하
겠다.]

「軍의 政治介入은 終熄되어야 하며, 軍의 政治的 人事
運營 및 組織管理를 民主化시켜야 한다. 하사관이상 職業
軍人에 대한 終身福祉對策을 講究하겠다. 軍을 야전군 中
心으로 改編하고, 政治圈內에 있는 警護室, 保安司, 安企部
將校의 機能을 모두 專門化, 縮小 調整해야 한다.]

〈朝鮮日報, 87.11.26字, 3面〉

3. 平和民主黨 金大中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 發言

民推協, 8.15 42周年 記念慶祝辭

가. 共和國聯邦制 前提條件

「民主政府가 樹立되어 國民의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支持를 받을 때 北韓共產主義者는 南韓共產化의 野心을 포기할 것이다. (民主政府樹立, 北의 赤化野慾 포기)…밖으로는 韓半島의 平和體制 構築을 위한 “4大國平和保障”이다」

나. 共和國聯邦制 主要骨子

「南北韓 兩地域에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완전한 獨立政府를 認定하되 그 兩 獨立政府위에 權限이 매우 制約된 상징적인 中央聯邦機構를 設立한다. 따라서 1聯邦 2獨立政府를 통한 장기적이고 段階的인 統一論이다.」

다. 聯邦機構

「양쪽의 獨立政府에서 代表를 파견해 구성하는 연방정부와 南北의 民間대표로 구성된 연방의회로 구분. “금강산 구경가고 원산해수욕장에 가는 식”이지만 그것이 평화무

드定着과 民族同質性 회복에 제 1 단계 작용이 가능. 聯邦政府는 단순한 상징이기 때문에 經濟·문화·학술·체육·언론·인도적 交流등 현재 여타의 共產圈과 모색하고 있는 정도의 交流만을 할 수 있는 權限 賦與. 聯邦議會에도 단지 南北의 대표가 모여서 民族和解와 同質性回復의 길을 摸索한다는 原則下에 聯邦政府의 機能을 分擔한다.]

라. 1 聯邦 2 獨立 政府

「 1 聯邦 2 獨立政府 體制 밑에서 相互理解의 調整을 바탕으로 그 權限을 中央政府로 移管하여 완전한 統一政府를 이룩. 이같은 權限移讓을 “다음 世代의 몫”으로 設定, 단지 象徴的·制限的 聯邦機構만 만들어 놓으면 30~40年 혹은 그 以後에는 國防이나 外交權까지 갖는 聯邦政府가 形成되어 統一을 이룰 수 있음. 北의 주장은 사실상의 완전한 統一로서 現段階에서 實現不可能한 주장일 뿐이다.]

〈 朝鮮日報, 1987. 8. 18, 2면. “民推協의 8. 15 光復 42 돌 記念 慶祝辭” 〉

時局對處 7個項 要求事項 및 課題 提示

가. 民主政府樹立後 課題

「抑壓政治를 終熄시키기 위한 反共과 安保의 惡用을 완전히 終熄시킬 것(2항). 民主政府가 서면 北韓이 올림픽에 參加해 그 이후 南北간의 급속한 發展이 豫想됨. 이에 對 備해 다음 政權은 平和的共存, 平和的交流, 平和的統一의 3 단계 統一方案을 적극 推進할 것이다(4항)」

〈 87.9.26, 仁川地域訪問大衆演說, 한국일보, 87.9.27, 1面.

朝鮮日報, 87.9.27, 1面〉

3段階 統一方案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젊은 世代 사이에 최근 漸增하고 있는 統一接近意識에 대하여 政府가 舊時代的 視角에서 좌경용공으로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民族歷史的 側面에서 肯定할 點은 肯定하고, 현실적 側面에서 留保할 點은 留保하도록 誘導하는 統一政策의 大轉換을 促求하고자 합니다.」

「이 問題와 관련해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黨의 金大中常任顧問이 하나의 試案으로서 提起한 3단계 統一方案은 그

內容이 1 단계에서 향후 5년간 어떤 경우에도 戰爭危險이 없도록 緊張緩和에 힘써 平和를 定着시키고 다음 단계에서 모든 分野의 相互交流를 摸索하여 民族의 同質性을 再確認 함으로서 平和統一의 길을 닦아주고, 마지막 3 단계에서 다음 世代가 平和統一의 문을 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政府는 金大中常任顧問의 統一方案에 대하여 비방할 것이 아니라 統一問題를 主管하는 統一院에서 당사자를 초청하여 심도있게 論議해 볼 用意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統一民主黨 代表演說文, 第 137 回定期國會 (87. 10. 6), 28-31 面〉

特別인터뷰

가. 社會問題로 등장하고 있는 急進左傾사조와 反美性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격주의자가 있는게 사실이지만 우려할만큼 큰 수는 아니예요. 民主化만 되면 과격주의나 극단주의는 희석화될 것으로 樂觀합니다.]

나. 이번 選舉戰에서 제시할 金顧問의 統一方案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統一論과 金日成統一論이 類似하다는건 거짓말이에요. 北의 것은 오히려 現政府의 統一論과 가까워요. 둘다 당장 單一政府 만들자는 거예요. 불가능한 소리지요. 나는 우선 共存과 交流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南韓에 民主政府가 서면 共產黨과 일대일로 실력대결해 항구평화체제를 構築합니다. 이 과정에서 美·日등과 협의하고 4大國 협력을 받아야죠. 平和共存體制下에서 南北韓은 각종 교류로 民族同質性을 回復하자는 것이죠. 次期政府의 5년동안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世代에서 統一하자는 것이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로서 共和國聯邦制란 말을 사용했는데 北의 聯邦制와 用語가 類似하다고들 해서 이제 안쓰기로 했어요. 나는 統一에 目的이 있는 것이지 굳이 用語때문에 오해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경향신문, 1987. 10. 9, 3面〉

大權走者에게 묻는다

가. 최근 統一院長官은 金顧問의 統一論이 北韓을 우쭐하게 할 우

려가 있다고言及했습니다만, 執權할 경우 어떤 統一政策을 펴 나갈 작정입니까?

「현재 나와있는 統一方案으로는 大韓民國, 北韓, 그리고 나의 方案이 있는데 사실 이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게 내것입니다.

新聞報道를 보니 統一院長官도 內容에 대해선 비판을 못하고, “공화국연방제”란 명칭에 대해서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 더군요. 그래서 나는 오해 받을 수 있는 명칭은 더이상 안쓰겠다고 이미 發表한 바 있습니다.

平和共存—平和交流—平和統一의 3단계 統一論은 지난 70년이래 나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동아일보」, 1987. 10. 21 字, 3면〉

1987. 10. 25, 고대, 「民主爭取 青年學生共同委 創立 및 舉國 中立內閣爭取 實踐大會」演說

「김정렬 內閣으로서는 公明選舉가 힘든만큼 이 政權이 불행을 면하는 길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임을 엄숙히 警告한다… 言論自由 實現, 解職勞動者·教師·公務員등의 즉각적인 復職, 統一論議 保障하라」

〈「동아일보」, 87. 10. 26 字, 1面〉

1987.10.28, 여의도 女性百人會館, 記者會見, 「出馬·創黨
宣言」 및 5大公約 提示

「모든 國民에게 正義와 生存權이 보장되고 自主의 바탕위에서
統一에의 초석을 닦는 和解의 時代를 열기 위해 大統領에 出
馬하러 한다.」

「統一推進(5項)은 平和共存, 平和交流, 平和統一의 3단계 統
一論을 바탕으로 民族의 同質性 回復과 統一實現에 진력하겠다.」

〈「경향신문」, 87.10.28日字, 1面〉

平和民主黨 發起人大會(87.10.30, 天道敎水雲會館)時
金大中 創黨準備委員長 人事말

「在野 民主勢力과 연대, 군부중립아래 民主主義의 成敗를 거는
政黨이 필요해 新黨을 創黨하겠다. 黨의 進路를 民族民主正統性
確立, 온건개혁주의 定立, 中産層과 勤勞階層 利益代辯, 國民和解,
正義經濟, 軍部中立, 自主外交, 統一推進의 5大公約 실현에 두겠
다.」

〈「동아일보」, 87.10.30, 1면〉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國民의 生存權과 統一의 問題를 解決
하고 和解의 成就者와 守護의 역할을 다하겠다.」

〈「경향신문」, 87.10.30, 3면〉

平和民主黨 發起 趣旨文：統一分野

가. 統一推進

「우리는 戰爭의 再發을 막고 民族同質性을 回復하며 南北간의 共存과 窮極的 民族統一을 기하는 과정으로 平和共存·平和交流·平和統一의 3 단계 統一政策을 주장한다. 南北간에는 理念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관광·우편·친족간의 相互訪問과 人道的 교류를 적극 推進하여야 한다.」

「우리는 大韓民國의 基本的 國家利益을 毀損하거나 共產主義를 이롭게 하는 어떠한 統一方案에도 反對하며 주변 4대국의 南北韓 同時交叉承認을 실현해 보다 安定된 韓半島에서의 平和維持基盤을 造成케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박해와 방해에도 굴치않고 반드시 榮光된 새 正義의 韓國을 세워나가는 先導적 結集體가 될 것임을 다짐한다.」

〈「동아일보」, 87.10.30, 2면〉

民主聯合青年會 傘下 「民族統一愛國運動青年團」(大學生 組織) 創立發起大會時 金大中氏의 學生들과 討論內容(87.10.27)

「解放後 우리가 民族正統性을 回復 못한 것은 親日派를 제거

못한데 있었으며 解放은 말만 解放이지 日帝의 연장이었다.]

「실용주의적인 西歐式教育에서 脫皮해 民族史觀的 시각에서 역사를 再解釋할 것. 이와함께 國民主義的 立場에서 정몽주, 진시황, 이성계 등에 대해서도 다른 歷史教育을 펴나가겠다.」

「核問題와 올림픽 共同開催問題는 民主政權 樹立後 國民輿論에 따라 해결해야 할 問題」

「民主政府後에는 大國의 利益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民族生存權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自主外交를 펴나가겠다. 親美도 反美도 할 필요없이 철저히 우리國益을 基準으로 外交政策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美軍撤收問題도 南北間 平和定着後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朝鮮日報」, 87.10.28〉

金大中氏 寬勳클럽 招請 討論會 1問1答(87.10.30)

「民衆史觀 이야기는 國民大衆으로부터 배우자는 것이지 階級史觀이 아니다. 무슨 사관이라고 할 지식도 없다.」

「聯邦制는 北이 아니라 내가 먼저 '73年 日本에서 말한 것이다. 오해가 있다면 그런 이름을 안쓰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韓半島 非核地帶化는 내가 말한 바 없고, 民主黨 政策案에 나온 것이다.

政權을 잡으면 安保事情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을 檢討, 決定할 것이다.

軍縮은 南北間 平和定立前에는 있을 수 없다.]

「며칠전의 이야기는 취재보도가 좀 부정확했다. 토인비도 진시황을 높이 評價했는데 그같은 歷史學說도 있다고 소개한 것이며, 정몽주에 대해 역사적 評價를 바꾸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 27日 大學生과의 討論에서 植民史觀 克服과 教育改革方案을 묻는 質問에 진시황이 法治主義등 近代的制度를 導入했다는 說明과 함께 民衆史觀, 國民主權의 視角에서 再解釋한 올바른 歷史教育을 해야 한다고 했다.)」

〈「朝鮮日報」, 87.10.31〉

87.11.12, 世宗文化會館 別館, 平民黨創黨大會兼 大統領候補
추대大會 演說

○ 統一分野 정강정책

(綱領: 統一推進)

「우리는 平和共存, 平和交流, 平和統一의 3단계 統一政策을
적극 推進함으로써 同族간의 비극적 戰爭의 再發을 막고 民

族의 同質性을 回復하여 祖國의 平和統一을 앞당기는데 主導的 역할을 한다.」 < 1987. 11. 12, 「平和民主黨」 정강정책 >

(基本政策：平和統一의 指向)

「 1. 南北韓 責任者 閣僚級 平和統一協議機構 設置

平和共存, 平和交流, 平和統一의 3 단계 政策推進을 위하여 南北責任者會議의 年例化, 定例 南北閣僚級協議機構의 常設化를 推進한다.

2. 主體力量의 結集

內政의 民主化와 經濟力을 土臺로 하고 總體的 國力伸張으로 民族統一을 향한 主導權을 확립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誤導된 “民族統一中央協議會”,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는 解體하고 실질적인 「平和統一政策協議會」를 새로이 發足한다.

3. 南北交流의 推進

書信往來·가족친지 訪問등 人道的 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學術·文化·體育·觀光 등 非政治的 분야의 교류를 거쳐, 물자교환·통상거래등 經濟分野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한다.

4. 統一基盤 構築

실질적 平和體制 確立을 위하여 장기화된 休戰狀態를 終熄시키고, 주변 4 大國과 UN의 協力下에 南北共存, 南北 交流 등을 活性化하여 國際協力과 統一基盤을 構築한다.」 < 1987. 11. 12, 「平和民主黨」 政綱정책 >

○ 大統領候補 受諾 演說 (要旨)

「나는 전 政治生活을 통해 南北간의 平和統一에 대한 一念을 堅持해 왔다. 내가 주장해 온 平和共存—平和交流—平和統一의 3 단계 課業中 平和民主黨 政權아래서는 第 1, 2 段階가 이루어질 것이며 구체적인 統一의 推進은 아마 그 다음 政權에 의해 본격 推進돼 나갈 것으로 期待된다.」 < 東亞日報, 87. 11. 12 字 >

1987. 11. 18, 松炭·平澤·天安 地域遊說 및 公約提示

○ 南北韓 單一로 유엔加入 및 韓國軍 作戰統制權 問題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 加入하면 韓半島가 恒久的으로 分斷될 것이라는 北韓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함께 加入했다 統一이 되면 單一會員國이 되는 方案도 있다. 南北韓이 人口를 합치면 世界 10 位 내지 13 번째 大國인데 韓民族이

유엔밖에 있다면 비정 상이다. 北韓이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에 끝내 不應할 경우 南北韓이 單一會員國으로 유엔加入을 고려할 수 있다.

이같은 方式은 南北韓의 統一을 促進할 것으로 기대된다. 南北韓이 하나의 會員國으로 유엔에 加入할 경우 南北韓이 유엔에 共同首席代表를 두거나 半년씩 대표를 교대로 할 수 있으며 投票때는 南北韓 合議에 의해 해야 하며 합의가 안되면 기권하는 방안등을 생각, 會員國이 되도록 해야 한다.]

「戰時가 아닌 平時에 自國軍隊의 作戰指揮權이 他國軍隊에 依속되는 것은 非自主的 政策이다.

平民黨이 執權하면 반드시 作戰指揮權을 韓國軍에 回收하겠다.]

<경향신문, 87. 11. 18 字, 1 면 ; 동아일보, 87. 11. 18 字, 1 면>

1987. 12. 1, 安山市 遊說

○ 板門店을 統一市로 改稱

「平民黨이 執權하면 同族相殘의 비극을 표상하는 板門店을 統一市로 改稱하고 주변을 民族統一公園으로 開發키 위해 南

北技術陣이 共同으로 협의해 分斷의 비극을 위대한 民族統
합으로 승화시키겠다.」 <朝鮮日報, 87.12.2字, 1面>

1987.12.2, 江陵 등 東海岸 地域遊說

○ 南北 共同漁撈 區域 設置

「南北平和共存의 기초위에서 동해안과 서해안에 南北共同漁
撈 區域을 設置, 자유로운 漁業活動을 보장하겠다.」

<朝鮮日報, 87.12.3字, 1面>

公約整理

가. 統 一

「平和共存, 平和交流, 平和統一의 3段階 統一政策을 推進해
동족간의 비극적 戰爭을 막고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해 平
和統一을 앞당기는데 主導的 역할을 하겠다. 1段階로 南北
간의 平和共存體制를 이룩하고 2段階로 政治·經濟·社會·
文化등 모든 分野에서 交流를 전면적으로 擴大實施해 同質
性을 회복하겠다.

특히 현재의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꿔 恒久的 平和體

制를 이루겠다.

3段階 政策推進을 위해 南北責任者級會議의 年例化, 定例 南北閣僚級 協議機構 常設化를 推進하겠다.」

나. 外交·安保

「友邦과의 友好關係를 보다 堅固히 하는 한편 非同盟國과의 교류를 擴大하여 國益과 民族生存權을 최우선으로 保障하는 對外自主外交를 적극 推進하겠다.

外交의 基本틀은 美-日 등과 親善, 協力을 維持하는데 변함 이 없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強大國에 끌려다니거나 政權維 持를 위해 國家利益을 소홀히 하는 非自主的, 굴욕적 外交 姿勢를 지양하고 自主的 立場에서 자기발로 걸어가는 獨立, 獨步의 外交모습을 보이겠다.

이를 위해 執權하면 軍作戰指揮權을 회수하겠다. 南北韓 交 叉承認과 유엔同時加入을 推進하겠다. 交叉承認을 하면 永久 分斷의 危險이 있다는 北韓 主張은 부당하고 모순된다. 交叉承認에 앞서 中共과의 貿易代表部 設置를 推進해 나가 겠다. 國軍憲章을 制定해 軍의 政治的 中立을 嚴正히 하고 軍特殊機關의 政治工作 監視機能을 廢止하겠다.」

다. 教 育

「南北共同國語研究所를 設置·運營해 民族同質性 회복에 주력
하겠다. <朝鮮日報, 87. 11. 26 字, 3 面>

4. 新民主共和黨 金鍾泌大統領候補의 統一關聯 發言

新大統領이 해야 할 5個項

「民族 念願인 統一은 國力の 절대적 優位를 바탕으로 自主
的 方式에 의해 漸進的으로 追求되어야 한다(5項).」

<1987. 9. 29, 忠南扶餘演說, 서울신문, 87. 9. 30, 2面; 朝鮮日報,
87. 9. 30, 1面>

新黨準備 特別인터뷰

가. 最近 一部大學生을 비롯한 젊은층의 急進左傾思潮를 어떻게
評價하며 특히 一部の 反美傾向을 어떻게 보십니까?

「急進左傾思潮自體가 問題라기 보다는 그것이 젊은 層이나
社會的으로 呼訴力을 지니게 될 때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그같은 左傾思潮가 魅力을 喪失할 수 밖에 없도록 社會의
構造的 矛盾이나 非理를 다듬어 나가 健康한 社會를 만들
責任이 우리 政治人들과 既成世代에 더 많다고 봅니다.

또 무엇을 反美라 하는지 모르지만 美國의 政策에 대한

批判을 곧 反美로 一括罵倒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政府를 批判한다고 모두 反政府라고 말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제 民主主義하자는 마당이니 이같은 多様な 소리를 어떻게든 受容하고 說得, 納得시켜 調和해 나가는 것이 民主化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젊은층을 비롯, 一般에서 統一問題에 關心이 漸增하고 있는데 평소 構想하고 있거나 이번 選舉戰에서 提示할 統一觀은 어떤 것입니까?

「東獨의 共產黨書記長이 西獨의 故鄉을 訪問하고 臺灣의 記者들이 中國大陸을 取材하며 누비고 다니는 世上이 됐읍니다.

이런 趨勢에 便乘해 허황된 統一方案을 無責任하게 提示하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統一政策인 6.23 宣言의 基調에 따라 國民的 合意를 얻고 和解의 精神을 바탕으로 同族間의 信賴를 回復하면서 對話와 交流를 끈기있게 推進하는 것이 나의 統一觀이라면 統一觀입니다.

統一問題를 한낱 政治的 利用物로 삼기에는 너무나 嚴肅한 課題입니다.]

(京鄉新聞, 1987. 10. 10, 4面)

新民主共和黨 創黨宣言文 및 主要綱領과 基本政策

(統一分野)

○ 創黨宣言文

「民主化와 人間化를 바탕으로 福祉社會를 建設하며 偉대한 統一祖國을 期約해 나갈 것이다.」

○ 綱 領

「우리는 同族間의 信賴를 回復하고 和解의 精神을 바탕으로 祖國統一을 平和·民主·自主의 原則下에 主導한다.」

○ 基本政策

「平和統一의 主導：民族의 統一問題는 모든 政派의 利害를 超越해 國民的 合意下에 信賴할 수 있는 確固한 原則을 세워 一貫性있게 追求한다.」

〈「東亞日報」, 87. 10. 30, 3面〉

新民主共和黨 創黨大會兼 大統領候補指名(87.10.30, 흥사단

강당)시 指名受諾 演說

○ 5大公約

「참된 民主化의 定着, 公正한 分配의 實現, 信賴와 和合의 社會建設, 힘있는 나라의 建設, 祖國統一의 早期成就」

○ 急進左傾勢力

「最近의 左傾極烈 鬪爭은 정말 左傾思想에 汚染됐다가
보다는 現政權에 대한 反政府 活動過程에서 左翼的 鬪爭
方法을 濫用한 경우도 적지 않다. 잘못은 學生에게 있
다가 보다 바로 그 鬪爭對象인 現政權에 있다.」

〈「京鄉新聞」, 87. 10. 30, 1, 3面〉

“共和黨 金鍾泌總裁에게 묻는다”(東亞日報 데스크 그룹인
터뷰)

○ 最近에 左右理念論爭 비슷한 狀況이 展開되고 있고 學生
들의 左傾化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
게 보십니까?

— 「나는 新民主共和黨 創黨發起人 大會에서 “大韓民國이
受容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다”고 했습니
다만 共產主義와 急進主義만은 끝까지 反對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一部 學生들의 그런 傾向을 크게 걱정
하는 편은 아닙니다. 日本이나 西獨青年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십수년전에 일과성으로 다 겪은 일 아닙니
까?

남의 나라에선 다 끝난 일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金科玉條가 되리라고 볼 수도 없는 일이고 時間의 長短은 있겠으나 解決될 것이라 봅니다.

소위 意識化된 大學生을 直接 만나보기도 했는데 무척 對話에 굼주리고 있는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來日의 主役들인데 그들을 어디로 내쫓을 수가 있나요. 나는 學生들에게 “蘇聯도 이데올로기면에서 分解過程을 겪고 있으며 中共도 마찬가지로 아냐” “나이 젊어서 왼쪽(左傾)에 서보지 못하면 右傾(정열)이 없고 나이들어 오른쪽(右傾)에 서지 않는 사람은 브레인(知性)이 없다는 말도 있지않느냐”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큰 問題가 아니고 다만 拋棄하는 것이 問題일 것입니다.」

〈「東亞日報」, 87. 10. 30, 3面〉

公約 整理

가. 統 一

「祖國의 統一은 國民的 合意의 確固한 原則下에 一貫性있

게 推進해야 한다. 政治人들이 불쑥불쑥 즉흥적으로 問題를 던져서는 안된다. 分斷이 國際的인 力學關係에 의 해 빚어진 것이라면 統一 역시 國際秩序의 力學關係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안으로는 相互信賴와 同質性을 回復하면서 深度있는 對話를 펴나가는 한편, 國際社會에서의 發言權과 地位를 向上시키는 것이 統一로 가는 길이다.」

나. 外交·安保

「現役 및 防衛兵의 服務期間을 6個月씩 短縮하고, 農漁村 定着青年들은 特例補充役に 編入시키겠다.

豫備軍과 民防衛의 服務年齡을 各各 30歲와 40歲로 낮추고 豫備軍 訓練時間을 줄이겠다.」

〈朝鮮日報, 87.11.26字, 3面〉

Ⅱ. 第13代 總選前後 制度圈의 統一論議關聯 內容

1. 平和民主黨, “總選에 임하면서 國民여러분께 드립니다”

○ 「네째는 北韓과의 平和定着과 中·蘇等に 대한 北方民間 外交에 앞장서는 平和民主黨이 되겠습니다.

지금 美·蘇를 비롯한 東西關係는 急速한 解氷무드가 進展되고 있으며 올림픽을 契機로 우리의 北方外交積極化는 더 큰 比重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不幸하게도 北韓은 여전히 教條主義的 世界觀과 非妥協的 南北觀에 사로잡혀 고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憵점에서 우리는 더 큰 彈力性和 融通性을 가지고 北方政策과 北韓政策을 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政治人들도 이와 같은 努力에 民間次元의 役割을 擔當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平民黨은 反共을 理由로 國民을 彈壓하던 權力橫暴를 단호히 排擊하며, 보다 能動的이고 建設的으로 中·蘇 外交와 南北關係의 發展에 어느 政黨보다 더 깊은 關心과 努力을 쏟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朝鮮日報, '88. 4. 6〉

2. 金大中(平民黨 前總裁), 東亞日報 인터뷰

- 北韓을 包含한 對共產圈 關係에 대한 構想을 具體化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우선 中·蘇等 共產圈 關係에 대해 말하지요.

日本 野黨들은 日·中 또는 日·蘇關係 樹立以前에 政府에 앞서 어떤 重要的 役割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國內 政治에서의 다툼과는 別途로 國益次元에서 野黨이 할 領域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걸 하더라도 政府와 充分的 事前協議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國論만 分裂되고 일도 안된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 北韓關係는 어떻습니까?

「政權擔當者들은 北韓問題를 獨裁強化나 政權延長에 惡用하지 말아야 합니다.

反共이나 安保는 自己만이 하는거라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愛國心을 野黨도 充分히 갖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對北韓政策을 舉國적으로 세우고 遂行하겠다는 姿勢를 갖
춰야 해요.

내 自身이나 우리黨은 政府와 充分히 協議할 用意이 있
습니다.

그러니 政府도 案이 있으면 내놓고 언제든 野黨과 協議
해 주기 바랍니다.]

- 서울올림픽이 다가오는데 北韓의 參加는 霧散될 것 같습
니다. 올림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올림픽의 成功을 위해 最善의 協力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人類의 和合과 親善을 圖謀하는 올림픽이 同族間
의 갈등을 오히려 深化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듯 해서
안타깝습니다.

올림픽은 「大韓民國」이 아니라 「서울」이 主權하는 民
間行事니까 北韓의 參加를 위해 좀더 餘裕와 아량을 보
여야 합니다.]

- 北韓을 參加시킬 묘방이라도 있습니까?

「具體的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言論에 公

開하는 것은 國益이나 일의 成功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月中에 政府側과 非公式的으로 이야기를 始作해 보겠습니다.」
〈東亞日報, '88. 4. 29〉

3. 金泳三(民主黨 前總裁), 東亞日報 인터뷰

- 올림픽以後 韓國의 對北方關係들에 많은 變化가 올 것으로 豫測되는데 ……

「우리도 이제 國際적으로 시야를 넓혀 自身感을 갖고 北韓을 包含한 北方關係 改善을 위해 最善의 努力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政府側은 野黨總裁에게 對共產圈情報를 주지 않았는데 時急히 改善돼야 합니다.

日本의 野黨이 中·蘇 및 北韓關係에서 하고있는 役割을 우리 野黨도 充分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4黨體制下에서 政府 與黨 單獨으로 끌고갈 수 없는만큼 相當部分은 野黨이 責任을 져야 하겠지요.

이것이 어떤 意味에서 「아시아」와 世界平和에 寄與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東亞日報, '88. 4. 30〉

※ 金大中·金泳三씨, 日本「아사히」新聞 會見

- 『金大中 前平民黨 總裁와 金泳三 前民主黨 總裁는 5. 4 「아사히」新聞과의 別途 會見에서 盧泰愚大統領 政權이 推進하고 있는 北方外交政策과 關聯, “野黨도 獨自의인 外交를 通해 中·蘇 및 東歐圈等 共產圈 國家와의 關係改善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88. 5. 5〉

4. 「한겨레民主黨」統一案

- 『우리는 戰後 45年동안이나 持續되어 온 祖國分斷의 現實을 克服하기 위해 지난 '72年의 “南北共同聲明”에서 分明히 闡명한 바 있는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의 原則에 立脚하여 3段階의 “한겨레共同體 (Korean Common Wealth) 統一案”을 밝힌다.

가. 統一運動의 저변을 擴大하고 國民的 힘을 結集하기 위해 民間次元의 統一論議와 統一運動을 保障한다.

나. 平和共存과 民族同質性 回復의 段階 (第1段階)

- (1) 南北韓間의 經濟的, 文化的, 人的 交流를 擴大하고 各

分野別 共同協力機構를 廣範하게 構成한다.

- (2) 武力對決에 의한 緊張狀況을 解消하고 南北韓 均衡있는 軍事力을 協議하는 平和會談을 開催한다.
- (3) 南北 不可侵 協定을 締結한다.
- (4) 美·日·中·蘇等 強大國間에 韓半島 安全保障條約을 締結하고 中立國 監視人團의 監視아래 南北 雙方間 均衡있는 軍事力 減縮을 斷行한다.
- (5) 南北 雙方의 軍事訓練 및 軍備縮小에 대한 상설적인 交叉監視機構를 設置한다.
- (6) 南北 相互間의 常設 交叉 駐在機關을 設置한다.
- (7) 休戰協定을 廢棄하고 平和協定을 締結한다.

다. 한겨레共同體 實現의 段階(第2段階)

- (1) 政府次元의 南北韓 代表로 構成되는 한겨레共同體 (Korean Common Wealth)를 構成한다.
- (2) 核武器의 製造禁止, 實驗禁止, 返入禁止의 非核3原則을 實現한다.
- (3) 한겨레共同體(Korean Common Wealth)의 單一國號로 유엔에 加入한다.

- (4) 한겨레共同體는 對內的으로는 南北 各 地域政府의 獨
自性을 保障하고 對外的인 行動統一을 꾀하며 韓民族
全體의 共同發展과 繁榮을 위해 協力한다.

라. 平和統一의 段階(第3段階)

- (1) 政府次元에서 南北 諸政黨, 社會團體까지 한겨레共同體
의 參與를 擴大한다.
- (2) 南北韓 各 當事者가 外國과 맺은 軍事的 同盟關係를
清算하고 韓半島內的 外國基地와 軍事基地를 撤去한다.
- (3) 한겨레共同體 名義로 韓半島의 中立化를 對內外에 宣
言한다.
- (4) 한겨레共同體의 統一憲法을 만들어 國民投票로 確定한
다.
- (5) 南北總選舉를 通해 單一政府와 單一國會를 構成한다.]

〈「한겨레民主黨」 政綱政策, '88. 3. 29〉

5. 「民衆의 黨」統一·外交政策

「4.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達成한다.

- (1) 統一論議와 民間次元의 統一推進의 自由를 徹底히 保

障한다.

(2) 韓半島의 實質的 平和定着을 이룩하여 統一의 基礎를 다진다.

- 1. 核武器를 즉각 撤收시키고 南北韓 相互 不可侵條約을 締結하여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轉換한다.
- 2. 南北韓의 同時 軍備縮小를 實行한다.

(3)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言語等 모든 方面에 걸쳐 南北韓間의 平和的 交流를 積極 展開하여 民族 異質化 現象을 打開한다.

(4) 統一을 위한 南北韓 協商機構를 設置한다.

5. 自主的 平和外交를 통하여 眞正한 世界平和의 實現에 寄與한다.

(1) 美·日等 外勢의 外交에 대한 介入을 打破하고,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에 寄與하는 外交를 편다.

(2) 平和와 民主主義, 그리고 民族의 自主獨立을 위해 鬪爭하는 全世界의 모든 民主勢力과 굳게 連帶한다.

(3) 思想, 理念, 體制의 차이에 關係없이 우리에게 敵對的

立場을 취하지 않는 모든 나라와 積極的으로 外交關係를 樹立한다。」 <「民衆의黨」政綱, '88. 3. 6>

6. 「正義平和黨」 統一綱領

「우리는 韓半島의 分斷과 겨레의 離散으로 비롯된 理念 및 軍事的 對峙와 갈등이라는 悲劇이 우리 民族만의 問題가 아니라 人類의 平和와 共榮을 바라는 世界人의 課題라는 判斷下에 主體的이고 平和的인 接近으로 이를 克服하여 民族統一을 이룩한다.」

<「正義平和黨」綱領 第2項, '88. 2. 21 >

7. 「民族統一社會黨(假稱)」建設委員會 基本綱領

「民族統一

- (12) 南北間의 關係를 正常化하고 分斷論理와 冷戰論理를 放棄하여 民衆의 統一論議의 自由를 全面 爭取하고 統一運動을 大衆化하여 民衆이 主體가 되어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達成한다.
- (13) 民族의 自主性에 기초한 民衆 主體의 自主外交 路線을 관철시키고 第3世界等 世界平和 擁護勢力과 강고히

連帶하여 反戰・反核・反公害 原則아래 世界平和를 實
現함으로써 人類共同體를 建設한다.

分斷祖國 44年 2月 25日

民族統一社會黨(假稱)建設委員會 드림」

8. 「民衆의 黨」 慶南地區黨 創黨 宣言文

- 「우리 “民衆의 黨”은 外勢의 支配와 干涉을 反對하고
獨裁를 拒否하며, 곳곳이 自身の 삶을 지켜온 자랑스런
全體 民衆과 함께 外勢와 獨裁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다짐 합니다.

全體 民衆이 “民衆의 黨”의 깃발아래 하나로 團結할
때, 民衆이 主人되는 世上, 祖國이 하나되는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4千萬 民衆이여!

民正黨 獨裁의 終熄과 民衆이 主人되는 政府, 祖國統一의
成就를 위해 줄기차게 展進합시다.」 (’88. 2. 25)

9. 「民衆의 黨」 서울 관악 乙區 改編大會 共同鬪爭 宣言文

「 1.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民族大團結 意識의 鼓吹와 統一論議 保障을 위해 鬪爭하고 이번 올림픽이 南北和解와 自主統一을 위한 올림픽이 되도록 積極 努力한다.

2. 우리의 團合된 힘으로 하나의 隊伍로서 反軍部獨裁, 民主化 鬪爭을 가열 차게 展開한다.」 < '88. 4.14 >

10. 金大中 平民黨 總裁, 南北韓問題 公開促求

- 「政府는 統一問題等 南北韓問題에 대해 國民앞에 公開하라」
- 「統一問題에 대해서는 超黨的으로 임해야 한다는데는 贊同하지만 과거처럼 政府가 一方的으로 決定하고 野黨과 國民은 무조건 따라 오라는 式의 “超黨”을 政府가 要求할 時代는 지났다.」

< 朝鮮日報, 88.5.15 >

Ⅲ. 一部 宗教界의 統一論議 事例

1. 基督教界 (KNCC 중심)

가. 分斷論理

- “美 軍政當局 하지의 臨政 閣僚들에 대한 의도적 냉대와 日本總督府 산하 官僚들과 治安行政體系의 지속적 活用, 이승만 單정수립 지지안과 反共 최첨단 國家의 南韓設立으로써 軍事的 교두보확보와 太平洋 戰略戰術上的 맥락에서 韓美防衛條約締結과 미군주둔, 韓半島 내에서 핵무기시설, 남한 軍事獨裁政權의 直·間接支援등을 냉철한 눈으로 직시해야 한다.”

〈김경재, 基長 第3次 統一問題協議會, '87.7〉

- “모든 惡의 根本이 祖國과 民族의 분단에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의 民族的 主體性을 무시하고 전개된 強大國에 의한 分단과 分단의 고착화, 그리고 政權維持를 위해 惡用되어 온 分단 이데올로기는 民族의 主體的 民主發展을 저해하였고, 社會正義와 人權을 根本적으로 제약하였으며, 獨裁政治를 정당화시키고 政治·社會·經濟·文化의 삶의 국면을 군사화하여 민중의 고난을 가중시켰다.”

〈KNCC 第34次 總會宣言文, '85.2〉

- “우리 國土의 南北分斷은 民族의 인위적 分裂, 6.25 동족상잔, 이산가족, 누적되는 外債와 막대한 軍事費, 自由를 비롯한 우리의 基本權의 침해등 民族的 비극의 根據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強大國들의 國際政治 역학관계를 認識하면서도 우리의 「살길」이 南北의 統一이기에 이 관계를 「하나님의 선교」의 과제로 삼아 이에 동참한다.”

〈基長 信仰告白 宣言書, '83.9〉

나. 統一論議의 自由化

- “우리는 지금까지의 統一論이 언제나 政權的 차원에서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惡用되어온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다.

..... 이승만시대는 무력복진통일론으로 國民들을 政治動員하는데 대한 구실로 삼았으며, 유신정 치시대는 무리한 政權維持의 長期化에 대한 妥當性操作을 위하여 역시 統一論이 惡用되었다. 이러한 때마다 統一論은 상처를 받아왔고, 그 爭點이 흐려지고,

問題의 핵심은 統一論을 國家安保論의 틀 속에서 악순환을 거듭시킴으로써 政府에 대한 國民의 불신은 더해 가기만 하였다.”

〈강문규, 韓國YMCA의 課題, '87.3〉

- “統一의 問題가 全民族的인 問題인데도 그 論議가 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執權者를 중심한 階層에 국한되어 있었고, 더우기 執權層의 政權維持의 수단이 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統一論議는 全國民的 차원에서 論議되고 全國民의 合意에 의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民衆의 統一意志는 삶의 차원이요, 民族歷史의 차원이다.”

〈주재용, 韓國教會의 統一論, 基督教思想, '81.6〉

- “統一問題는 …… 安保를 빙자한 南北韓 역대 政權集團의 獨裁를 可能케하여 모든 國民이 가진 천부의 政治的·思想的·行動的 自由의 제약과 人權抑壓의 명분이 되어 왔다.”

〈김경재, 韓國教會의 統一論議 分析, 基長會報, '84.9〉

- “自主, 民主, 平和統一을 위한 韓半島 統一의 問題는

어느 한집단의 政治的 조작이나 또는 어떤 집단의 위장전술에 유혹되어 社會混亂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汎國民的인 중지와 霧圍氣를 造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의 宣傳爲主의 平和統一 獨占論議나 또는 各界各層의 公적인 研究와 綜合을 탄압하는 따위의 불신평조 조성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김형태, 韓半島의 平和統一과 教會의 役割, 基督教思想 '85.6 >

다. 反美·反反共·駐韓美軍·核武器 철수주장

- “..... 反共이데올로기는 민족말살의 위기 앞에서도 핵전쟁의 공포와 危險을 認識 못하게 하고 있고, 핵문제에 대한 論議조차도 금기가 되고 있는 경직된 狀況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原子力 發電所의 급증과 방사능 폐기물로 인한 環境汚染 問題 까지도 말을 못하고 지내는 것이 현실이다.”

(KNCC 第34次 總會宣言文, '85.2.28 >

- “南北韓의 군사대치, 핵무기 및 戰略武器 配置와 增

強競爭, 상호비방과 증오심 고취, 分斷狀況의 고정과 安定秩序를 명분으로 한 外國軍隊의 주둔은 최단시일안에 극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세계패권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자국민 利益을 위한 신국가주의의 新植民政策의 일환이며 그 戰略的 국제정치역학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基長, '87 信仰·宣敎·社會·敎育政策 指針書〉

- “韓國基督教은 共產主義에 대한 피해의식과 그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말미암아 冷戰論理와 그들의 信仰을 연관시켜 반공이데올로기를 人間社會의 政治·經濟學的 차원으로부터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격상시켰다.

냉정논리와 분단체제의 정당화, 냉전논리의 절대화와 反共이데올로기의 宗教的 信念化, 냉전논리의 감정적 비약 결과로서 美國的 가치 및 自由民主主義 시장경제 체제 곧 資本主義 社會體制의 基督教價値와의 일치화라는 무비판적 정치종교에로의 예속이 遂行되었다.”

〈김경재, 分斷現實의 認識과 敎會의 役割, '87.7〉

- “美國등 強大國이 韓半島에 핵무기를 놓는 것은 우

리민족이 자살하는 것이며 영토적 초토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핵전쟁을 촉발하는 連繫的인 作用을 하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한다.”

〈韓國基督教青年協議會 聲明, '86.4〉

- “韓國의 反共이데올로기는 자유롭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지 않고 美國의 강요에 의해 수용된 것이므로 合法性에 問題가 있기 때문에 북음의 입장에서 再檢討해야 한다.

反共이데올로기는 美國이라는 제국주의가 자기방어를 위해 하나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에 불과하며, 反共이 가진자, 독재자, 부르조아지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지 못한자, 눌린자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당연히 반공이데올로기에 反對하는 立場에 서야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KNCC 第2次 統一問題協議會, 全體討議, '87.2.〉

라. 社會主義 理念의 受容과 對北韓 接觸 主張

- “북음은 특정 政治·經濟理念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데올로기는 사람의 共同體的 삶을 위해 있지 인간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있지 않다.

교회는 資本主義的 政治·經濟·社會秩序 속에서도 그
리고 社會主義的인 社會秩序 속에서도 存立할 수 있
고 또 存立해야 한다.”

〈김경재, 基長, 第3次 統一問題協議會, '87.7〉

- “이제는 民間次元의 대화를 가져야 할 시점에 왔고,
南北 基督者의 대화는 시급한 과제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基督者들의 交流가 이미 우리 외곽에서는 큰
물결과도 같이 술렁이고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하
나의 동질적인 信仰共同體가 갖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기도 하다.

이같은 基督者의 대화를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외
곽에 밀어놓기만 할 것인가?”

〈강문규, 韓國YMCA의 課題, '87.3〉

- “진정한 교회는 언제나 세계적이므로 모든 국경을 초
월할 뿐아니라, 어떠한 政治體制에도 適應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宣布하는 교회는 지상의 어떠
한 政治體制도 과도적인 미완성의 것으로 보는 반면
에 그 어떠한 體制下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遂行하기
위한 존재양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 박형규, 韓半島의 미래와 교회의 선교자세, 基督教思想, '81.9〉

마. 民衆이 主體가 되는 民衆統一論 展開

— “平和의 길인 분단의 극복 즉 統一問題는 執權勢力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平和의 염원은 약한자, 가난한 자, 눌린 자, 곧 民衆이 가장 깊이 탄식하고 갈망하는 民衆의 현실이기 때문에 民衆主體의 統一과 平和統一이 곧 分斷克服과 統一運動의 주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統一問題에 대한 論議가 政府에 獨占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나아가 교회의 통일모색을 위한 어떠한 작업도 방해받거나 抑壓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強大國의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패권쟁탈 구조와 논리속에서 이민족의 統一問題가 좌우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 KNCC 第34次 總會宣言文, '85.2 〉

— “韓國教會는 분단인식과 분단극복의지의 함양을 위해서 8.15 해방의 성격, 6.25 동족상쟁의 성격, 4.19 로부터 6.29 에 이르는 民衆運動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민

중사관의 定立을 요청받고 있으며 第3世界 國家群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民族·民衆民主主義 運動의 세계사적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여 오늘 역사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대경륜에 그 주류세력으로서 동참해야 한다.”

〈김경재, 基長, 第3次 統一問題協議會, '87.7〉

바.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韓國基督敎會 宣言(全文)

〈1988年 2月 29日〉

『우리는 먼저 韓半島에 그리스도의 福音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復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당신의 子女로 삼으사 救援해주신 하나님의 恩惠와 사랑에 讚揚과 感謝를 드린다. 또한 하나님의 聖靈이 韓半島의 歷史와 모든 믿음의 兄弟 姉妹들 속에 함께 하셔서 온 敎會가 民族의 解放과 救援을 위하여 하나되어 일할 수 있도록 宣敎의 決斷을 하게 해주신 것을 感謝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萬物을 創造하신 한 분 創造主(창 1 : 1)이심을 믿으며, 모든 人間이 당신의 子女로 招待받

았음 (롬 8:14-17 , 갈 3:26,4:7)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 平和의 從 ” (엡 2:13-19)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分斷과 葛藤과 抑壓의 歷史속에서 平和와 和解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宣布하셨다.(눅 4:18, 요 14:27)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和解하게 하시고 人間들 사이의 分裂과 葛藤을 克服하고 解放시켜서 하나되게 하시려고 苦難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復活하셨다.(행 10:36-40). 예수 그리스도는 平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祝福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子女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마 : 5:9). 우리는 聖靈이 우리로 하여금 歷史의 終末論的 未來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宣敎使役에 參與하게 하신다 (요 14:18-21, 16:13-14, 17:11)는 것을 믿는다.

이제 우리 韓國教會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平和를 위하여 일하는 使徒로 부름을 받았음 (골 3:15)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南北으로 갈라져 서로 對立하고 있는 오늘의 이 現實을 克服하여 統一과 平和를 이루는 일이 韓國教會에 내리는 하나님의 命命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宣教的 使命 (마 5:23-24) 임을 믿는다.

이러한 우리의 基本的인 信仰告白에 입각하여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는 韓國敎會와 世界 에큐메니칼 敎會 共同體 앞에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立場을 밝히고, 南北韓의 政府責任者들과 우리 民族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呼訴하는 바이다.

○ 正義와 平和를 위한 韓國敎會의 宣教的 傳統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福音이 傳派된 지 1百餘年이 지나는 동안 公敎會가 저지른 民族史에 대한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韓國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宣布함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참 所望이었던 解放과 獨立을 實現하려고 애써 왔다. 우리 信仰의 선배들은 聖靈에 힘입어서 성경말씀이 命하는 대로 (눅 4:18-19) 가난한 이들에게 福音을 宣布하였고 억눌린 백성에게 自由와 希望을 심어주었으며, 日帝에게 노예가 된 韓國民族과 함께 苦痛을 나누며 民族의 解放과 獨立을 위하여 宣敎하여 왔다.

韓國의 그리스도인들은 平和의 意味를 노예처럼 굽히고

服從하면서 얻는 안일이나 안정에서 찾지 않았다. 平和는 正義의 열매 (사 32:17) 이어야 했으며 民族의 獨立이 없거나 人間的 自由를 누릴 수 없는 平和는 거짓 平和 (렘 6:13-14) 일 뿐이었다. 日本 帝國主義가 우리 나라를 植民地로 다스리던 때의 韓國教會의 平和運動은 곧 民族의 獨立運動이자 노예된 民族의 아픔에 同參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宣布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歷史속에서 實踐해 나가는 民族解放 運動이었다.

1919年 3·1 獨立運動에 韓國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參與하였으며, 日本 帝國主義 民族抹殺 政策에 저항하였고 國家主義를 宗教化한 日帝의 신사참배 強要에 항거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다.

1945年 南北 分斷 以後 南韓의 그리스도인들은 分斷의 現實 속에서 苦痛당하는 피난민들과 戰爭 孤兒들과 희생자들을 돌보아 왔다. 또한 北韓을 떠난 離散家族들과 教友들을 教會의 품안에 받아들였고 사랑으로 치유하여 왔다.

分斷이 고착화되면서 나타난 軍事獨制 政權을 구실로 人權을 蹂躪하고 經濟成長 論理로써 勞働者와 農民을 抑壓

했으며 韓國教會는 이에 대하여 正義와 平和를 위한 信仰으로 저항하여 왔다. 1970年代와 80年代 韓國教會의 人權 및 民主化運動은 바로 이러한 正義와 平和를 위한 宣敎運動의 傳統을 이어받은 것이다.

○ 民族分斷의 現實

韓半島의 南北 分斷은 現代 世界의 政治構造와 理念體制가 낳은 죄의 열매이다. 世界 超強大國들의 軍事的 對決과 相互紛爭 속에서 韓國民族은 속죄양의 苦難을 당하여 왔다.

1945年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나자 韓國民族은 日本帝國主義의 殖民地 노예상태로부터 解放되었으나 南北 分斷이라는 또 다른 굴레가 民族을 속박하기 始作하였다. 日本帝國主義 侵略軍隊의 무장을 解除시킨다는 名目下에 設定된 南北 分斷線은 蘇聯과 美國의 冷戰體制에 의하여 고착화되었고, 南北韓에는 各各 서로 다른 政府가 樹立되어 韓半島에서는 지난 40餘年間 軍事的, 政治的, 理念的 葛藤과 紛爭이 深化되어 왔다.

1950年 6月 25日에 일어난 韓國戰爭은 同族相殘의 悲劇

을 낳았으며, 國際的 葛藤은 極大化되었다. 第2次 世界大
戰 동안에 유럽 全地域에 投下된 폭탄보다 더많은 양의
폭탄이 投下되어 韓半島는 초토화되었다. 이 戰爭에서 南
韓軍 22 萬名, 北韓軍 60 餘萬名, 中共軍 1 百萬名, 美軍
14 萬名, 유엔軍 1 萬 6 千餘名의 死傷者가 났으며 戰爭 중
에 病으로 死亡한 숫자를 包含하면 2 百 50 萬名이나 되
는 軍人들이 犠牲되었다. 南韓 50 萬과 北韓 3 百萬의 民
間人 死亡者를 합치면 6 百萬의 피가 이땅에 쏟아진 것
이다.(브리태니카 百科事典 1970年度版 統計임). 그리고 3
百萬名의 피난민과 1 千萬名의 離散家族이 생겼다.

6·25 를 前後하여 北韓 共產政權과 對立했던 北韓의 그
리스도인들은 수난과 죽음을 겪어야 했으며, 수십만의 北
韓 그리스도인들이 故鄉과 教會를 버리고 南韓으로 내려
와 避難生活을 감내해야 했다. 韓國戰爭 동안 적지 않은
南韓의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되었고 참혹하게 처형되기도
했다. 한편 共產主義 동조자들은 理念戰爭의 제물이 되었
고 “附逆者”라는 名目으로 社會에서 매장을 당하지 않
으면 안되었다.

戰爭으로 초토화된 韓半島는 繼續해서 東西冷戰體制의 國

際政治的 葛藤과 反目에 휘말렸으며, 이에 따라 南北韓間의 軍費競爭과 相互不信, 相互誹謗과 적대감정도 漸次로 增加되어 왔다. 韓半島의 平和는 破壞되었고 民族의 和解도 不可能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1953年 休戰 以後 一時的일 것으로 여겨졌던 “休戰線”이 永久不變의 “分斷線”처럼 되면서 南北 分斷의 壁은 높아져 갔고 南北韓의 두 體制는 斷絶과 對決속에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關係를 持續시켜 왔다. 南北韓의 軍費競爭은 가속화되었고, 北韓兵力 84萬과 南韓兵力 60萬을 합하여 1百50萬 軍隊가 武裝對峙하는 狀態에 이르게 되었으며 韓半島에 配置되었거나 겨냥되고 있는 核武器는 이 땅을 없애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가공할 破壞力을 保有하기에 이르렀다.

民族의 分斷이 長期化되면서 兩 體制에서 모두 安保와 이데올로기의 이름 아래 人權이 蹂躪되어 왔으며, 言論과 出版, 集會와 結社의 自由는 抑壓되어 왔다. 그리고 書信 往來도 訪問도 通信도 두절된 양쪽은 한 땅덩어리 위에서 가장 멀고 이질적인 나라가 되었다. 南北韓의 教育과 宣傳은 相互誹謗 일색이며, 상대방은 相互 體制競爭을 통

하여 惡化시키고 없애야 할 철천지 원수로 認識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 國民들은 同族의 生活과 文化에 대하여 서로 무지할 뿐 아니라 서로 알아서는 안되는 關係로까지 길들여져 왔다. 兩 體制는 같은 피를 나눈 同族을 가장 무서운 원수로 認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南北對話의 길은 1972年 이른 바 7·4 共同聲明이 계기가 되어 트이기 始作하여 對話와 協力과 交流에 希望을 갖게 하였다. 1985년에는 南北赤十字 會談이 재개되고 離散家族 故鄉訪問이 이루어졌으나 그 數는 極히 限定되었으며 對話와 協商은 끝없이 공전되고 있는 實情이다.

南韓 그리스도인들은 1980年代 初半까지만 해도 北韓에 그리스도인들과 教會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確認할 수 없었고, 分斷이 固着化되는 過程에서 北韓 共產政權에 대하여 깊고 오랜 不信과 僻에 사무치는 적개심을 그대로 지닌 反共 이데올로기에 盲目的으로 집착해 왔다.

○ 分斷과 憎惡에 대한 罪責告白

韓國의 그리스도인들은 平和와 統一에 관한 宣言을 宣布하면서 分斷體制 안에서 相對方에 대하여 깊고 오랜 憎

惡와 적개심을 품어 왔던 일이 우리의 罪임을 하나님과 民族 앞에서 告白한다.

1) 韓國民族의 分斷은 世界 超強大國들의 東西 冷戰體制의 對立이 빚은 構造的 罪惡의 結果이며, 南北韓 社會 內部的 構造惡의 原因이 되어 왔다. 分斷으로 인하여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啓命(마 22:37-40)을 어기는 罪를 犯해 왔다.

우리는 갈라진 祖國 때문에 피를 나눈 同族을 미워하고 속이고 殺人하였고, 그 罪惡을 政治와 理念의 이름으로 오히려 正當化하는 이중의 罪를 犯하여 왔다. 分斷은 戰爭을 낳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戰爭防止의 名目으로 최강최신의 武器로 再武裝하고 兵力과 軍費를 強化하는 것을 贊同하는 罪(시 33:16-20, 44:6-7)를 범했다.

이러한 過程에서 韓半島는 軍事的으로 뿐만 아니라 政治 經濟 各 分野에서 外勢에 依存하게 되었고, 東西冷戰體制에 編入되고 예속되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民族 예속화 過程에서 民族的 自尊心을 포기하고 自主獨立 精神을 喪失하는 反民族的 罪惡(롬 9

: 3)을 犯하여 온 罪責을 告白한다.

2) 우리는 韓國教會가 民族分斷의 歷史的 過程 속에서 침묵하였으며 면면히 이어져 온 自主的 民族統一의 흐름을 外面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分斷을 正當化하기까지 한 罪를 犯했음을 告白한다. 南北韓의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體制가 強要하는 理念을 절대적인 것으로 偶像化하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主權에 대한 反逆罪(출 20:3-5)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教會가 政權의 뜻에 따른 罪(행 4:19)이다.

특히 南韓의 그리스도인들은 反共 이데올로기를 宗教的인 信念처럼 偶像化하여 北韓 共產政權을 적대시한 나머지 北韓 同胞들과 우리와 理念을 달리하는 同胞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罪(요 13:14-15, 4:20-21)를 범했음을 告白한다. 이것은 啓命을 어긴 罪이며 分斷에 의하여 苦痛받았고 또 아직도 苦痛받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無關心한 罪이며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한 罪(요 13:17)이다.

○ 民族統一을 爲한 韓國教會의 基本原則

正義롭고 平和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平和와 和解의 福音(엡 2:14-17)을 實踐해야 하며, 同族의 고통스러운 삶에 同參해야 한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民族의 和解와 統一을 이룩하는 데 있으므로 우리는 統一에 대한 關心과 努力이 바로 信仰의 問題임을 認識한다. 統一은 곧 民族의 삶과 世界平和를 威脅하는 分斷을 克服함으로써 葛藤과 對決에서 和解와 共存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의 平和로운 民族 共同體를 이룩하는 것이다.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는 1984年 이래 數次에 걸친 協議 모임을 통하여 民族統一을 向한 韓國教會의 基本的인 原則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는 1972年 南北間에 最初로 合議된 7·4 共同聲明에 나타난 1) 自主, 2) 平和, 3) 思想·理念·制度를 초월한 民族的 大團結의 3大 精神이 民族의 和解와 統一을 위한 基本原則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가지 原則이 統一을 위한 모든 對話 및 協商, 實踐 속에서 全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統一은 民族이나 國家의 共同善과 利益을 實現하는 것
일 뿐 아니라 人間의 自由와 尊嚴性を 최대한 保障하
는 것이어야 한다. 國家나 民族도 人間의 福祉를 保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理念과 體制도 人間을 위해
存在하는 것이기 때문에 人道主義적인 配慮와 措置의
施行은 最優先적으로 考慮되어야 하며 다른 어떠한 理
由로도 人道主義的 措置의 施行이 保留되어서는 안된다.

2) 統一을 위한 方案을 만드는 모든 論議 過程에는 民族
構成員 全體의 民主적인 參與가 保障되어야 한다. 特別
히 分斷體制下에서 가장 苦痛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民族 構成員 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意思決定 過
程에서 늘 疏外되어 온 民衆의 參與는 優先적으로 保
障되어야 한다.

○ 南北韓 政府에 대한 韓國教會의 建議

이상의 原則들에 입각하여 本 協議會는 다음과 같은 事
項들이 實質적으로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南北
韓 政府當局이 성의를 가지고 對話에 임해줄 것을 促求
한다.

1) 分斷으로 인한 상처의 治癒를 위하여

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40 餘年間 分斷體制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犧牲되어 온 離散家族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살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느 곳이든지 당사자들이 살기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옮겨 살수 있도록 保障하여야 한다.

나) 統一이 되기 전이라도 南北으로 갈라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년중 일정한 期間 동안(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 자유롭게 親戚과 故鄉을 訪問할 수 있도록 許容해야 한다.

다) 民族 分斷의 固定化 過程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일시적 과오나, 家族이나 親戚이 特殊한 전력을 갖고 있다는 理由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社會的으로 不當한 差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存在하는 現實은 즉각 타파되어야 한다.

2) 分斷 克復을 위한 國民의 參與를 實質적으로 增進시키기 위하여

가) 政府當局이 南北한 양쪽에 관한 情報를 獨占하거나 統一 論議를 獨占하여서는 안되며, 南北韓 國民이 統

一論議와 統一政策 樹立 過程에 主體的으로 자유롭게 參與할 수 있도록 言論의 自由를 保障하고, 統一問題의 研究 및 論議를 위한 民間機構의 活動을 制度的으로 現實的으로 保障하여야 한다.

나) 南北한 兩側은 體制나 理念의 反對者들이 自己의 良心과 信仰에 따라서 자유롭게 批判할 수 있도록 최대의 許容하여야 하며, 世界人權宣言과 유엔 人權協定을 遵守해야 한다.

3) 思想・理念・制度를 초월한 民族的 大團結을 위하여

民族 自主성을 實現할 수 있으려면 南北韓 國民이 각각의 思想, 理念, 制度의 差異를 초월하여 南北韓 國民 스스로가 같은 運命체로서 하나의 民族이라는 事實을 相互 分明하게 確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相互確認을 위해서는 南北韓이 서로 굳게 信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를 信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南北統一을 위한 모든 努力의 가장 基本的인 出發點이 되어야 한다. 相互信賴를 造成하기 위해서는 不信과 적대감을 낳는 모든 要素들이 除去되어야 함과 동시에 相互交流를 擴大하여 相互理解의 기반을 넓히고 民

族同質성을 시급히 回復시켜야 한다. 信賴造成을 위한 모든 措置들은 分斷克服에 있어 가장 本質的인 것이기 때문에 비록 南北韓 政府 當局者間의 會談이 進展되지 못하고 있거나 協商妥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民間 次元에서는 推進될 수 있어야 한다.

가) 南北韓은 相互 적대감과 공격적 성향을 없애고 相對方에 대한 誹謗과 욕설, 배타주의를 除去해야 한다. 또한 相對方의 異質的인 理念과 體制에 대한 極端的이고 感情的인 비난을 相互 건설적인 批判으로 轉換시켜야 한다.

나) 相互理解의 增進을 위해서는 서로의 실상을 偏見없이 客觀적으로 把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交流, 訪問, 通信이 開放되어야 한다.

다) 民族同質性 回復을 위하여 南北의 言語, 歷史, 地理, 生物, 自然資源 등에 관한 學術分野에서 交流와 協同研究를 推進하고 文化, 藝術, 宗教, 스포츠 分野에서도 서로 交流하여야 한다.

라) 南北韓間의 經濟 交流는 民族의 利益에 부합될 뿐 아니라 相互理解 增進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可

能한 한 최대로 開放되어야 한다.

4) 南北韓 緊張緩和와 平和增進을 위하여

가) 韓半島의 戰爭防止와 緊張緩和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戰爭 狀態를 종식시키는 平和協定이 締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南北韓 當局과 美國, 中共 等 參戰國들

이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轉換시키고 不可侵條約을

여기에 呑包시키는 協商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나) 平和協定이 締結되고, 南北韓 相互間에 信賴回復이 確

認되며 韓半島 全域에 걸친 平和와 安定이 國際的으

로 保障되었을때, 駐韓美軍은 撤收해야 하며 駐韓 유

엔軍 司令部도 解體되어야 한다.

다) 過多한 軍事力 競爭은 南北韓의 平和統一의 가장 큰

障礙 要因이며 經濟發展에 있어서도 逆機能을 하고 있

다. 따라서 南北韓은 相互間的 協商에 따라 軍事力을

減縮해야 하며 軍費를 줄여서 平和産業으로 轉換시켜

야 한다.

라) 核武器는 어떠한 경우에도 使用되어서는 안되며, 南北

韓 兩側은 韓半島에서 核武器의 使用可能性 自體를 原

則적으로 막아야 한다. 따라서 韓半島에 配置되었거나

韓半島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核武器는 撤去되어야 한다.

5) 民族 自主性의 實現을 위하여

가) 南北韓間의 協商이나 會談, 國際的인 協約에 있어서는 周邊 強大國이나 外勢의 干涉에 依存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民族의 自主性과 主體性을 지켜 나가야 한다.

나) 南北韓 兩側은 民族의 삶과 利益을 優先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配置되는 內容으로 締結된 모든 外交的 協商이나 條約을 修正하거나 廢기하여야 하며, 國際聯合이나 同盟國들과의 關係樹立이나 協約에 있어서도 南北韓 相互間의 合議와 共同의 利益을 優先적으로 考慮하여 反映시켜야 한다.

○ 平和와 統一을 위한 韓國教會의 課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平和의 주”(골 1:20)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人間救援과 解放을 위한 宣敎使役이 우리와 理念과 體制가 다른 社會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 다른 社會體制 속에서 살고있는 그리스도인

들이 갖는 信仰告白의 형태와 教會의 모습이 비록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에 매여 있으므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고전 12:12-26)을 믿는다.

世界 에큐메니칼 共同體는 最近 몇년간, 놀랍게도 우리와 떨어져 있던 北韓 社會內의 信仰의 兄弟 姉妹들과 接觸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 옴으로써 우리의 이 같은 確信을 더욱 굳게 하여 주었다.

우리는 다시금 이 韓半島 歷史 안에서 活動하시는 하나님의 解放使役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狀況 속에서도 곳곳하게 信仰을 지켜 나가고 있는 北韓에 있는 믿음의 兄弟 姉妹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祝福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와 같은 고백에 입각하여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는 平和와 和解의 선교적 使命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民族 分斷의 고통에 同參하고 統一으로써 이를 克服해야 한다는 要請에 應答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平和와 統一을 위한 禧年宣布 運動을 다음과 같이 展開하고자 한다.

1)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는 1995年을 ‘平和와 統一의 禧年’
으로 宣布한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무인 사람들에게 解放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自由를 주며

주님의 恩惠의 해를 宣布하게 하셨다.” (눅 4:18-19)

‘禧年’은 安息年이 일곱번 되풀이되는 49년이 끝나고
50년째 되는 해이다(레 25:8-10). 禧年은 ‘解放의 해’
이다. 禧年 宣布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歷史的 主
權을 徹底히 信賴하고 그 契約을 지키는 行爲이다. 禧年
은 抑壓的이고 絕對的인 內外 政治權力에 의하여 이루어
진 모든 社會的 經濟的 葛藤을 克服하여 노예된 者를
解放하고, 빛진 者의 빛을 탕감하며, 팔린 땅을 本來의
耕作者에게 되돌려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者에게
돌려주어 하나님의 正義를 바탕으로 하는 살롬을 이루어

統一된 平和의 契約共同體를 回復하는 해 (레 25:11-55)이다. 韓國 教會가 解放 50年째인 1995年을 禧年으로 宣布하는 것은 50年 歷史를, 아니 全歷史를 支配하시는 하나님의 歷史的 現存을 믿으면서 平和로운 契約共同體의 회복을 宣布하고 또 오늘 韓半島의 歷史 속에서 그것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決意를 다지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禧年을 向한 大行진은 禧年 待望 속에서, 民族史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主權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선교에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해 나가는 過程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韓國教會는 ‘禧年을 向한 大行進’ 속에서 平和와 統一을 위한 教會更新 運動을 活潑히 展開한다.

가) 平和와 統一의 宣教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韓國教會는 個教會主義와 教權主義를 克服하고 教會一致를 위한 宣教的 協力을 더욱 強化해야 한다.

나) 禧年을 宣布하는 韓國教會는 ‘參與’를 制約해 온 教會의 內的 構造를 更新해야 한다. 따라서 女性과 青年을 包含하는 평신도의 선교사역에의 參與는 과감하게 開放되고 促進되어야 한다.

- 다) 韓國教會는 우리 社會의 經濟的, 社會的 正義를 實現하기 위하여 豫言者的 役割을 繼續해 나가야 한다.
- 3) 平和와 統一의 禧年을 宣布하기 위하여 韓國教會는 平和와 和解의 결단을 하는 信仰共同體로서 平和教育과 統一教育을 폭넓게 施行해 나갈 것이다.
- 가) 韓國教會는 平和에 관한 聖書研究와 神學研究 등 平和教育을 널리 普及하고 各種 神學研究機關과 基督教教育機關은 이를 위하여 情報交換과 研究를 促進시킨다.
- 나) 韓國教會는 民族統一에 대한 教會의 關心을 높이기 위하여 分斷構造 및 分斷歷史에 대한 理解와 分斷問題에 관한 神學的 認識을 하는 統一教育을 促進시킨다.
- 다) 韓國教會는 基督教 信仰에 대한 神學的 성찰과 결단을 통하여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 대한 學問的 理解를 넓히고 理念的인 對話에 必要한 이데올로기의 研究와 教育을 促進시킨다.
- 4) 韓國教會는 平和와 統一을 宣布하는 禧年祝祭와 禮典을 통하여 信仰을 새롭게 하고 참다운 和解와 一致를 實

踐해 나간다.

- 가) 韓國教會는 平和와 統一의 禧年을 紀念하는 ‘平和와 統一 기도주일’을 設定하고 禮拜儀式을 開發한다. 이 禮拜儀式에는 統一을 위한 기도, 分斷의 罪責告白, 소명과 결단, 分斷의 犧牲者들과 分斷民族을 위한 중보의 기도, 民族和合을 위한 信仰告白, 말씀宣布(禧年宣布), 찬송과 시, 平和와 和解를 위한 聖禮典 등이 包含된다.
- 나) 南北韓 教會의 相互往來가 實現될 때까지 世界教會와 協力하여 平和와 統一의 禧年을 南北韓 教會가 共同으로 宣布하도록 하고, ‘平和와 統一 기도주일’을 共同으로 지키는 일과 ‘平和와 統一을 위한 기도문’을 共同으로 作成하여 使用하도록 하는 일을 推進한다.
- 다) 韓國教會는 世界教會와의 協力을 통하여 離散家族의 生死確認, 서신往來의 可能性 등을 摸索하고 南北으로 헤어진 친척과 교우, 친구 찾기 運動을 展開한다.
- 5) 韓國教會는 平和와 統一을 위한 連帶運動을 持續적으로 展開해 나간다.
 - 가) ‘平和와 統一을 위한 禧年’의 宣布는 信仰告白의 行

爲로서 持續적으로 擴大되는 ‘平和와 統一을 위한 連帶運動’으로 展開될 것이다. 이것은 개교회 次元에서 教團的인 次元에서, 에큐메니칼 運動의 次元에서 포괄적으로 進行되어야 한다. 특별히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는 平和와 統一을 위한 信仰告白의 行動과 實踐을 加盟教團뿐만 아니라 非加盟教團과 天主教를 포괄하는 次元에서 共同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努力할 것이다.

나) 平和와 統一을 위한 宣教的 소명은 韓半島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課題이므로 韓國教會는 北韓 基督教 共同體의 信仰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南北 韓 教會의 相互交流를 위하여 努力할 것이다.

다)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은 東北아시아 平和뿐만 아니라 世界平和에 있어서도 하나의 관건이므로 韓國教會는 韓半島 周邊의 美國, 蘇聯, 日本, 中國 등 4個國內의 基督教 共同體를 비롯한 世界教會들과도 緊密하게 協議하여 連帶運動을 展開해 나갈 것이다.

라) 韓國教會는 他宗教 및 他運動들과의 對話를 擴張, 深化시키고 平和와 統一을 위한 連帶意識을 促進시켜

共同研究와 連帶活動을 展開해 나갈 것이다.

1988年2月29日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

사. 世界 基督教 韓半島 平和協議會 關聯 資料

(1) 發題講演 및 討論要旨

가) 發題講演

① 韓半島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神學的 展望

: 徐洸善 (梨大教授)

- 우리 民族은 6.25의 同族相殘을 비롯, 最近의 5.18 光州抗爭등 많은 恨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統一에 대한 論議보다는 恨에 대한 解決方案을 먼저 提示해야 될 것임.
- 日·美·蘇에 의하여 우리는 分斷의 十字架를 지게 되었으며 6.25 戰爭으로 인해 美國과 南韓은 民主主義를 위해 죽고 中共과 北韓은 共產主義를 위해 죽었음.
- 우리의 現實로 볼 때 勞動運動의 彈壓, 說教監視 등은 國家安保와 反共의 分斷論理때문에 있는 것

이며, 또한 社會正義·基本人權의 侵害도 分斷에서 연유되고 있음.

- 근래 우리 學生들이 새로운 希望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南北韓 民族共同體로서 하나님의 聖餐 앞에 禮式을 올리고 싶은 것이며, 寒食과 秋夕을 같이 맞고 그날을 解放節로 하고 싶은것임.

② 對韓關係에 있어서의 美國의 責任과 教會의 行蹟 :
페트리시아 페터슨(美國 監理教本部 아시아 總務)

- 美國은 韓國의 分斷을 始作하였고 그 分斷을 連續시켰기 때문에 美國은 이에 대한 責任을 져야 함.
- 美 政府는 南北韓間의 和解를 위해서 反共理念이나 北韓에 대한 적개심을 緩和하고 蘇聯·中共등을 통해 南·北이 서로 和解토록 誘導하여야 함.
- 美國의 政策은 大體的으로 美國에 有利하게 되어 있어 韓·美關係를 批判的 視角으로 보는 것은 當然하며, 韓國戰爭以後 美國이 南韓의 再建을 도운것도, 結果的으로 軍事安保와 經濟安定을 強調하는 獨裁政權을 誕生시키는 基盤이 되었음.

- 南韓에 駐屯한 4萬名의 美軍은 韓國의 女性들과 아이들을 해치고 있으며, 美國과 蘇聯의 核武器는 韓半島 6千萬 人口의 生存에 威脅이 되고 있음.
- 우리 美國教會는 民間人으로서 南과 北에 있는 韓國人을 直接 만나 오랫동안 쌓여진 적개심과 誤解를 克服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機構創設에 努力해야 할 것이며, 韓國內에 平和를 建設하고 民主主義를 建設하는데 最善을 다해야 할 것임.

③ 信賴構築을 위한 東西間의 對話

: 볼프강·후버 (西獨 하이델버그 平和研究所長)

- 現在 國家安保라는 理由로 많은 自由와 正義로운 行動이 制約받고 있는바, 平和를 위하여 努力하는 것이 教會의 使命임.
- 東獨과 西獨의 教會에서는 共同宣言을 發表한 바 있는데 서로 平和에 대한 責任이 信仰的 問題이고 教會가 바로 和解의 奉仕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 平和를 이루는 優先的 要素는 敵對關係의 現實的

認識이 必要하며, 個人的이나 國家的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에 대한 持續的인 사랑만이 分斷을 解決할 수 있음.

- 韓國과 獨逸은 서로 分斷되고 類似點이 많으며 나름대로 平和가 維持되는 것처럼 보이나, 獨逸 分斷은 戰爭을 일으킨 罪로 分斷되었고 韓國은 強大國들의 政治的 犧牲 및 힘에 의해 分斷된 것임.
- 獨逸의 變化는 유럽의 變化를 떠나서 이룰 수 없으나 韓國의 變化(統一意味)는 이웃 나라인 어떤 나라와도 相關없이 이룰 수 있는데, 단지 理念이 다르다는 理由뿐이기 때문에 韓國의 變化는 더욱 쉬울것임.

④ 南北韓 離散家族의 再結合과 人道主義 問題

: 朴漢植(美 조지아大教授)

- 南北分斷은 基本的 價値觀의 差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을 단순한 協商을 통해서 解決코자 努力하고 있는 이런 狀況에서의 對話는 더욱 關係를 惡化시킬뿐임.

- 分斷을 固定化시키는 또 하나의 理由는 全部가 아니면 全無라는 固定意識과 相對方을 敵으로 몰아서 屈伏시키려는 것임.
- 1972年 中情部長 李厚洛을 北에 보낸것은 對話를 하기 위했다기 보다는 政權을 維持하기 위한 手段이었고, 反共法이나 國家保安法도 北과 對決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政權을 維持하기 위한 것임.
- 南北韓의 價値觀의 差異는 相互 認定하는 바탕위에서 테이블에 나가야 解消될 수 있을 것임.
- 離散家族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現實을 正確히 알리고 國際적으로 解決해야 할 일임을 알림과 同時에 離散家族의 만남과 再結合 可能性을 充分히 調整, 政權次元에서 惡用하지 못하도록 監視하여야 함.
- 美國과 蘇聯이 離散家族을 만들었음에도 이제와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으며, 美國은 人權을 重要視하면서도 離散家族의 人權에 대해서는 一言半句 말이 없음.

(나) 討論內容 要旨

- 光州虐殺에 대한 聽聞會를 美議會에서 열것을 正式提議하는 바이며, 여기에는 美 N.C.C와 美國教인들이 積極的으로 나서야 될 것임.
(박성화, 워싱턴 D.C)
- 美國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많은 過誤를 저질러 왔음. 開拓宣教師들은 韓國의 獨立運動을 막았는데, 이에대한 解明이 要求되며 우리의 많은 學生들은 美國이 우리의 友邦이 아니고 日本과 같은 장사꾼으로 생각하고 있음. (정원진, E.Y.C 平和統一推進委員長)
- 올림픽은 獨裁政權이 그들을 誇示하기 위해 誘致한 것이지만 기왕에 開催되므로, 올림픽에 參加하는 분들이 光州事態, 民主化 鬪爭實態를 알고 가도록 付託하고자 함. (김경천, 光州 Y.W.C.A總務)
- 메시지 末尾에 現在 拘束 收監中인 모든 政治犯과 勞動·學生運動등으로 容共·左傾에 몰려 收監中인 受刑者의 卽刻釋放을 要求하는 文句 插入을 要求함.
(이우정, 前 서울女大教授)

○ 現在 韓半島에서 實施되는 모든 軍事訓練이 즉시 中止되도록 W.C.C가 積極 影響力을 行使할 것과 南北이 함께 하는 올림픽이 되도록 積極 努力한다는 要旨를 插入할 것. (황인성, 韓國基督學生總聯盟 總務)

(2) 世界 基督教 韓半島 平和協議會 메시지 (全文)

(1988年 4月 25 ~ 29日, 仁川)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가 主催하고 世界教會協議會 國際問題委員會와 아시아基督教協議會 國際問題委員會가 協力하여 韓國 仁川에서 열린 “世界基督教 韓半島 平和協議會”에는 世界 各國으로부터 온 300여 男女老少 聖職者, 평신도들이 參席하였다.

그러나 섭섭하게도 招待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에 대한 當國의 事前 確約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결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協議會에 參與하지 못했다. 招待된 사람들 가운데는 이처럼 비자를 發給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자가 發給된 후에 發給이 取消된 사람도 있고, 비자가 發給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理由없이 金浦空航에서 入國이 許可되지 않아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히 失望을 안겨준 것은 主催側의 招請을 받은 東歐國家의 基督教 兄弟姊妹들에게 비자發給이 거절된 事實이었다. 특히 88올림픽을 앞두고 東歐國家들의 政府官僚, 運動選手, 그리고 貿易關係者들을 歡迎하고 있는 當國이 宗教指導者들을 특별히 差別한 것은 韓國政府의 開放政策의 僞善을 노출시키는 것이며 올림픽大會가 代表하는 善意에 먹구름이 끼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本 協議會는 歷史의 現時點에서 韓半島 北쪽에 있는 우리의 兄弟姊妹들을 여기에 歡迎할 수 없는 事實을 슬프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發表함에 있어서 이것은 南韓과 海外에 사는 韓國基督人들과 世界 여러 나라들의 基督教 兄弟姊妹들만의 意思表示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우리는 南北韓 全體 基督人들의 생각과 經驗을 完全히 함께 表現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 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約束

이 協議會를 통하여 우리는 韓國民族이 分斷의 罪惡 아래서 苦難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分斷된 이 땅에서 그리스도人들의 共同體가 正義와 平和와 和解를 용감히 證據해 왔다는 事實을 다시한번 알게 되었다. 우리는 聖서를 研究하고 韓半島의 分斷現實이 가져온 犧牲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의 十字架의 意味를 되새겨 보았다.

同時에 우리는 韓國民族의 痛恨을 回復하려는 鬪爭 속에서 잉태된 비전이 분명하게 되는 속에서 부활의 實在를 強力하게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人間共同體의 破壞와 分裂의 根原因 分斷自體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罪된 現實임을 깊이 認識하고 하나님의 正義와 平和에 대한 豫言者的인 證據에 不忠한 罪責을 다함께 告白한다.

우리는 分裂과 증오와 적개심을 조장하는 惡의 勢力에 너무도 자주 屈伏해 왔기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를 빈다. 하나님의 恩惠와,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和解의 사역을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도 分斷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統一시키겠다고 約束하신 하나님의 平和의

契約(에스겔 37:26)을 信賴한다. 우리는 이 살롬의 契約 속에서 오늘날 韓國의 民族과 世界 萬人의 一致와 和解에 대한 하나님의 約束을 發見한다.

韓國民族 分斷의 罪가 그리스도의 몸의 分裂임을 통감하면서 우리는 聖晚餐의 食卓에 둘러앉아 하나의 몸을 이루는 기쁨을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和解시키는 사랑의 能力을 體驗하였다.

우리는 1986年 9月 스위스 글리온에서 世界教會協議會의 주선으로 南北의 基督教 共同體 代表들이 모여 함께 聖晚餐을 舉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世界가 하나되는 표징임을 기쁨으로 體驗했으며, 同時에 어떤 權勢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確信을 가지게 되었다.(에베소 2:14-19 ; 로마 8:37-39). 우리는 약속된 平和와 和解의 메시아 王國이 지금 우리의 民族現實 속에서 惡한 分斷勢力들을 克服하시고 깨어진 民族 共同體를 치유하시며 이 世界에 生命과 살롬의 동산을 이루실 것을 確信하며 證言한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안고서 우리가 함께 祝賀하려는 주님의 恩惠의 해, 곧 禧年을 향해 매진하며(누가

4:16-19), 分斷의 한가운데에서도 이 行進을 持續할 것이다.

○ 分斷이 빛은 人間的 犠牲

韓半島 分斷의 持續은 먼저 冷戰下에서 強大國들의 軍事的, 理念的 對決의 結果이며, 韓國民族은 이 對決의 犠牲物이다. 1950 ~ 53 年の 韓國戰爭은 바로 이 分斷의 直接的인 結果이며, 이 戰爭으로 인해 韓國人과 다른 나라의 軍人들을 합쳐서 6百萬의 人命이 殺傷되었고 全國은 焦土化되었었다. 그리고 1980年5月の 光州虐殺事件도 分斷이 심어놓은 政治構造가 빛은 또 하나의 悲劇이었다. 이같은 分斷이 가져오고 있는 人間的 犠牲은 실로 엄청나다. 壹千萬名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家族들과 나뉘어진 채 살고 있다. 특별히 離散 女性들은 특별한 經濟的 資困과 性的差別로 많은 苦難을 당해 왔다. 그것은 家父長的인 社會慣習상 離散女性이나 과부들의 再婚이 禁忌時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女性은 勞動者로 搾取당하고 性的暴力의 犠牲者가 되고 매춘까지 強要된다.

그간 南北의 政權들은 國家安保라는 이름으로 分斷을

正當化해 왔으며, 超強大國들은 自國의 편협한 利益을 위해 그것을 持續시켜 왔다. 이번 協議會의 參席者 가운데는 國家安保의 이름으로 令狀없는 逮捕, 拘禁 또는 고문등을 통해 組織的으로 人權을 蹂躪당한 經驗을 한 사람들도 包含되어 있다. 南韓의 國家安保의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人權蹂躪을 지탱하는 主導 理念은 反共이었으며, 이 反共理念은 힘을 가진 者와 特權層의 利害를 強化시키는 手段으로 利用되었고, 分斷 雙方의 兄弟姊妹들간의 憎오를 심화시켜 分斷을 永久化 하는 要因으로도 작용하였다. 우리는 北韓의 경우에도 임의적인 拘束과 人權蹂躪이 있다는 報告에 接하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이 國家安保에 집착한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韓國의 分斷은 韓半島를 넘어서 海外 僑胞들의 삶에 까지도 影響을 미치고 있다. 가령 在日韓國人들은 分斷된 祖國의 犧牲者로서 갖가지 苦難을 당하고 있으며, 사할린에 사는 韓國人들은 歸鄉할 수 없게 되었으며 分斷으로 인한 緊張은 其他 地域의 韓國人 共同體에서도 經驗되고 있다.

經濟的으로, 分斷의 政治文化를 지탱하는 歪曲된 安保 概念은 分斷民族 雙方에게 막대한 負擔을 지우고 있다. 엄청난 財政이 民族의 福祉와 民族의 經濟發展 보다는 軍費와 武力 增強에 投入되고 있기 때문이다. 韓半島와 그 周邊에 駐屯한 美軍과 그곳에 配置된 核武器, 韓半島를 겨냥하고 있는 蘇聯의 미사일은 韓半島와 그 周邊의 國家들에게 世界戰爭으로 發展할 可能性이 있는 核戰爭의 危險을 안겨주고 있다.

韓國社會는 分斷狀況下에서 軍事文化를 推進·深化시키고 있고 西歐文化 침식으로 인해 民族共同體가 바탕 삼고 있는 傳統的 價値들이 崩壞危機에 놓여있다.

韓國의 分斷은 教會의 삶에도 反映되고 있다. 教派主義, 內的 分裂, 神學論爭과 教會內部的 教權다툼 등은 그리스도의 몸된 教會의 一致를 威脅하고 있다. 教會 역시 反共理念에 사로잡힌 나머지 一部에서는 그것을 복음과 同質的인 것으로 曲解하고 있다. 이러한 反共理念은 그리스도人들로 하여금 社會에서 和解者로서의 소명을 망각하고 北韓에 있는 禮拜共同體가 持續적으로 살아 있는 복음을 證據해 왔다는 事實을 認定하려고 하

지 않는 데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 宣言文의 實踐을 위한 段階들

世界는 너무 오랫동안 分斷에서 오는 韓國民族의 苦難을 간과하여 왔다. 韓國民族은 沈默을 깨뜨리며 억눌림을 당했으며, 國家權力들은 統一에 대한 民族的 熱望을 自身들의 政治的 利害關係를 위해 利用하였다. 強要된 沈默은 그 自體가 抑壓이요 威脅이었다. 이제 韓國民들이 이 沈默을 깨뜨리고 統一에 대한 熱望을 높이고 있다.

아직은 確固하지 않으나 그동안 分斷을 넘기 위한 다리를 놓으려는 努力이 이어져 왔다. 1984年 日本의 도잔소에서 성령의 祝福아래 韓半島 統一을 위한 世界的 協力이 始作된 이래로 世界教會의 代表들이 北韓을 訪問하기에 이르렀고, 그들은 統一에 대한 意見을 나누기 위해 南北韓 當局者들과 會晤를 가졌었다. 그 結果 世界의 基督教 代表들은 北韓의 몇몇 都市의 家庭教會 (house church)에서 北韓의 基督教人들과 함께 보는 經驗을 가질 수 있었고, 글리온에서는 南北 教會의 代表들이 分斷이후 처음으로 서로 相面한 가운데 聖餐禮式을 함께 舉行하기도 하였다.

1988年2月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가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韓國基督教會 宣言”을 採擇한 것은 이러한 에큐메니칼 協力 過程에서 韓國的 이정표를 분명히 세운 事件이었다. 우리는 그 宣言에 나타난 韓國教會의 證據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世界基督教 韓半島 平和協議會”는 韓國教會의 宣言을 強力히 支持한다. 이 協議會에 參席한 우리는 그 宣言書에 나타난 課題를 實踐하기 위하여 世界的 連帶를 深化・擴大하여 가기로 決意한다. 우리는 이 宣言이 分斷을 克服하는 信賴回復과 分斷의 壁을 헐어 버리기 위한 重要하고도 새로운 基盤을 形成한다고 믿는다. 이것을 基盤으로 우리는 教會들이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를 중심으로 團結하여 다음과 같은 課題를 遂行하도록 促求한다.

- 1) 個教會들은 宣言文의 提案을 研究하고 實踐한다.
- 2) 에큐메니칼 運動 밖에 있는 教會들과의 對話를 擴大하여 宣言文에 대한 批判과 助言에 招待함으로써 平和와 統一에 대한 基督教人 共同的 立場을 形成해가는 過程으로 삼는다.

- 3) 平和統一의 基盤을 擴大·強化하기 위하여 他宗教 및 民衆運動과의 對話를 擴大하고, 韓國民族의 심오한 精神的, 文化的 遺産을 導入한다.
- 4) 우리는 平和統一의 基盤으로서 民主化와 正義를 實現하기 위하여 民衆運動과의 連帶를 強化한다.
- 5) 教會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CBS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手段을 動員하여
 - ① 모든 韓國인들이 統一問題에 全面的으로 參與할 수 있도록 하며,
 - ② 南北韓 住民 사이에 信賴의 關係를 構築할 수 있도록 한다.
- 6) 好戰的 態度를 복음의 核心인 “이웃사랑”으로 對峙함으로써 韓國社會에 있는 적대적 分斷文化를 拂拭한다.
- 7) 國家安保를 威脅한다는 理由로 복역중인 政治·양심수들, 특히 在日僑胞의 釋放을 위하여 韓國教會와 世界教會들이 함께 努力한다.

千萬 離散家族의 持續적이고 심각한 고통은 離散家族 再會를 위한 積極적인 對應을 통해 解消되어야 한다. 離散家族 問題는 基本的 人權問題에 속한다. 그러나 이

課題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며, 목회적 고려와 政治的 智慧를 必要로 한다. 이 重要한 人道的 問題가 政治的으로 잘못 利用되지 않도록 韓國 內外에 있는 責任 있는 韓國인들이 이 問題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海外에 있는 모든 韓國인들이 相互 連帶하여 韓半島에서의 正義와 平和를 위해 盡力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全世界의 基督教 에큐메니칼 共同體가 苦難 당하는 韓國民族과의 連帶를 強化하며 積極的 支援을 持續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韓國에 直接的으로 關係된 4 個國(美國, 蘇聯, 中國, 日本)의 教會들이 自國의 政府가 政策的으로 韓國의 統一을 指向한다고 하는 것을 確實히 宣言하도록 促求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우리는 아시아 基督教 協議會와 아시아의 教會들이 分斷을 克服하고 民族的 自결을 成就하기 위한 韓國인들의 鬪爭에 確實한 方法으로 連帶해 줄 것을 呼訴한다. 韓國의 狀況에 대한 教育 프로그램, 現地訪問, 情報의 交換과 擴散은 共同의 질곡에 대한 意識化의 手段이며, 아시아에 있어서의 平和와 正義를 위한 共同鬪爭에의 連帶感 構築을 위한 手段이다.

우리 에큐메니칼 家族과 韓國教會는 北韓에 있는 연약한 基督教 共同體와의 接觸을 擴大·深化할 責任을

再確認한다. 北韓을 訪問하여 그곳의 基督教人들과 함께 禮拜를 보는 經驗을 했던 에큐메니칼 家族들은 아직 制限된 經驗이긴 하지만 도잔소에서 밝힌 北韓教會에 대한 우리의 信仰的 確信을 다시 한번 甞받침해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民族도 하나님에 대한 證人 이 없는 狀態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信望이었다.

우리는 世界教會協議會에게 南北韓 基督教人들이 만날 수 있는 제 2의 擴大된 모임을 주선해 줄 것을 要望한다.

우리는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가 1995年을 禧年으로 宣布한 것에 對備하여 世界 基督教共同體가 南北韓 基督教人들과 함께 平和的 統一을 위한 “함께 기도하는 날”을 연례적으로 가질 것을 건의한다. 우리는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가 提示한 提案을 北韓 基督教人들이 歡迎한 事實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 우리는 이 기도일을 解放節인 8月 15日 직전 主일로 提案한다.

“도잔소協議會” 이래, 그리고 이번 協議會 期間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韓國民族史 속에서 살아서 일하고 계시다는 事實을 실감하였다. 우리가 십자가의 苦難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른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韓國民族의 장구한 수난이 統一된 韓國에 살롬의 새 時代를 가져오리라는 것도 굳게 믿는다.』

※ 分科討議에서 나온 建議案들

- ① 우리는 오늘날 韓國社會안에서 民(民)의 自由로운 統一論議를 制約하고 있는 法的, 制度的 現實이 存在함을 確認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法的, 制度的 現實을 根本적으로 變化시킬 수 있도록 韓國 基督教教會協議會가 最優先的인 努力을 기울일 것을 促求한다.
- ② 우리는 離散家族의 悲劇이 世界 強大國의 利害關係 및 갈등에 의해 招來된 人權의 侵害事例임을 確認하였다. 이에 우리는 韓民族 離散家族의 苦痛을 나누고 離散家族의 窮極的 再結合을 實現하기 위해 W.C.C, C.C.A, K.N.C.C 등이 相互 連帶하여,
 - ㉠ 最大限 빠른 時日內에 離散家族의 生死與否 및 居住地를 確認하고,
 - ㉡ 그들이 自由롭게 書信을 往來하고 相互訪問할 수 있도록 必要한 段階的 措置들을 모색하고,
 - ㉢ 韓半島의 統一問題, 특히 離散家族의 再結合 問題를 國際人權의 次元에서 UN이 다루어 줄 것을 促求한다.

③ 우리는 오늘날 韓半島 內에 혹은 韓半島 밖에서 韓半島를 겨냥하고 있는 核의 存在로 因해 東北亞 細亞, 더 나아가 世界平和가 커다란 威脅을 받고 있음을 確認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東北亞細亞 教會와 世界 에큐메니칼 共同體가 韓半島上에서, 平和를 이루기 위한 연대망을 形成하여 緊張緩和와 信賴構築을 위한 具體的인 段階的 措置들을 取해 나갈 것을 促求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韓半島 및 韓半島 周邊에서 大規模 軍事演習을 中止할 것

㉡ 韓半島 內에 있거나 韓半島를 겨냥하고 있는 核武器를 減縮하고 窮極的으로 모든 核武器를 除去할 것

㉢ 韓半島上에서 強大國間의 對決을 緩和하고 核戰爭의 威脅을 減少시킬 수 있도록 駐韓美軍을 減縮시킬 것

④ 우리는 韓半島에서 開催될 올림픽이 人類平和의 祭典이라는 본래 精神에 입각한 行事로서, 南北韓이

相互不信과 증오의 담을 헐고 信賴回復을 이룰 수 있는 契機가 되기를 간절히 祈願한다. 이를 위해,

- ㉓ 우리는 世界史의 속죄양인 韓民族의 아픔을 공유하고, 韓半島의 統一에 대한 希望을 새롭게 鼓吹할 수 있도록 國際社會의 輿論을 喚起시키고,
- ㉔ 올림픽이 南北韓의 緊張緩和 및 平和와 統一을 促進하는 契機가 되기를 念願하는 韓半島의 “民”의 意思가 지금이라도 올림픽 準備過程에 充分히 反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K.N.C.C가 努力할 것을 促求한다.

- ⑤ 우리는 K.N.C.C가 “民族의 平和와 統一을 爲한 禧年”으로 宣布한 1995年까지의 禧年日程 속에서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을 爲한 世界 에큐메니칼 共同體의 相互連帶를 確認하고 이를 契機로 南北韓間의 平和무드를 造成하기 위하여,

㉓ “平和 大行進”을 가질 것을 建議한다.

- ㉔ 韓民族의 苦難과 열망을 主題로 한 藝術祭등 國際的 文化交流 行事を 開催할 것을 建議한다.

⑥ 우리는 도잔소協議會의 合意事項에 따라 樹立된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을 위한 에큐메니칼 協力網이 지난 4年間 역동적인 證據를 行해왔음을 確認하였다. 反面 우리는 이러한 協力網이 效率面에 있어서 보다 密度있는 形態로 發展해야 한다는 事實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既存의 협력망을 強化함과 同時에 이 협력망의 보다 效率적인 가동을 可能케 하는 에큐메니칼 課題推進 그룹을 構成할 것을 提案한다.

⑦ 우리는 한반도 分斷現實의 本質과 性格 및 統一에 對하여 分斷構造로 말미암아 苦痛당하는 民衆의 視覺에서 理解하려는 神學者, 基督青年, 女性 등의 提言을 積極 수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들의 信仰告白이 民衆의 視覺에서의 政治, 經濟, 社會, 神學的 研究를 통해 보다 深化되기를 期待하며, 이러한 研究結果를 可能한 通路를 통해 韓國教會와 世界 에큐메니칼 共同體가 共有해 줄 것을 促求한다. 아울러 이를 爲해 우리는 韓國教會 및 세계 에큐메니칼 共同體와 關聯된 各 大學, 研究所, 機關등의

積極的 參與를 提案한다.

(3) 世界 基督教 韓半島 平和를 위한 女性協議會聲明書(全文)

『世界 基督教 韓半島 平和를 위한 女性協議會는 1988年 4月 24日과 25日에 仁川에서 열렸다.

우리는 함께 禮拜를 드렸고 韓國의 統一問題에 對한 우리의 關心을 다짐했으며, 이호재 教授의 “分斷社會와 女性” Patterson 女史의 “서로 묶여진 解放: 대한관계에 있어서의 美國의 責任과 教會의 행적”, 박순경 博士의 “統一과 女性神學”이라는 講義와 이우정 教授의 “平和와 統一”이라는 聖書研究를 통하여 이 問題에 대한 깊은 理解를 얻었다.

世界의 17個國에서 參與하신 基督教 女性들과 韓國教會 女性들 114名은 각자가 속한 教會와 나라에서 韓國의 統一을 爲한 論議를 進展시키는 한편, 이를 위한 各 政府의 率先的인 支援을 促求하도록 다짐했다.

○ 女性の 犧牲을 强要하는 分斷構造

韓國의 分斷은 美·蘇間의 對立된 國際的 갈등과 理解

關係의 파생물로서 國際體制 矛盾의 극단적 形態를 代辯하고 있다. 이는 强者가 弱者를 支配하고 搾取하는 힘의 論理와 정복, 抑壓의 論理에 基盤한 가부장제적 歷史의 산물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分斷은 이 社會에서 여성의 人間的 權利를 犧牲시키며 民主的 改革을 抑壓하는 가부장제적 權威主義의 政治, 經濟構造를 維持시켜 왔다.

社會安定이라는 구실하에 維持시켜온 성차별적 家族法の 存續이 그것을 代辯하며, 이러한 가부장제적 制度와 결탁한 資本主義는 輸出産業과 觀光産業에서 여성들의 몸과 勞動力을 外貨獲得의 手段으로 타락시켰다.

農業과 農民을 周邊化시킨 수출주도형 産業化로 인해 農民家族이 貧困속에 빠지게 된 동시에 農民家族의 해체와 勤勞女性, 都市貧民 家族이 발생함으로써 疎外階層의 여성과 어린이는 産業政策의 가장 큰 犧牲者가 되었다. 이 가난한 女性들은 國家成長의 分배에서 除外된 채 分斷構造 유지를 위한 國防費의 過渡한 支拂로 말미암아 이들을 위한 福祉政策의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分斷體制의 經濟構造 속에서 勞動女性들의

生存權 鬭爭은 左傾容共으로 彈壓받고 저지당했다.

또한 韓半島 分斷과 함께 진주한 美軍의 長期的 駐屯은 女性들에게 매춘을 助長해 왔으며, 政府의 觀光政策 또한 매춘여성의 수효를 增加시키고 있다. 韓半島 分斷의 깊은 상처는 어머니들에게 더 큰 苦痛과 눈물과 恨을 안겨주었다.

이와 같이 女性들은 分斷構造下에서 韓國社會의 政治, 經濟, 思想, 文化的 矛盾들에 의해서 犧牲당할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中層的 差別과 榨取를 強要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유감스러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自由케 하는 福音과는 反對로 韓國의 基督敎會가 家父長制的 支配의 樣相을 보이며, 男性들이 모든 責任있는 地位를 차지하고, 女性들은 敎會 宣敎事業에 充分히 參與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1988年2월에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가 發表한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韓國基督敎 宣言”을 支持한다. 우리 女性들은 以北의 兄弟姊妹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과 和解하지 못한 罪를 告白하고 회개한다.

그러나 우리 社會에는 아직도 告白하지 않은 罪가 남아 있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곧 家父長的 制度가 韓國의 여성들을 抑壓해온 罪이다. 南韓과 北韓 政府의 統一에 대한 討議와 提議는 지금까지 男性들에 의해서 獨占되어 왔다. 이와 같은 制限된 接近方法을 통해서 和解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女性들이 統一의 課題에 參與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過程을 試驗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 協議會의 가장 重要한 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南韓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統一에 대한 討論을 널리 할 수 있도록 公開시켜 주었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國民의 절반이 女子이고 教人の 2/3 以上이 女子라는 점을 勘案할 때, 女性들은 이 討論의 過程에 同等하게 參與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은 짓밟힌 사람의 苦痛을 느낄 수 없다. 女性들은 差別과 抑壓을 견디어 왔기 때문에 南北韓으로 헤어진 사람들의 苦痛과 아픔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는 韓國의 새로운 共同體를 構成하는데 있어서 女性들의 役割이 크게 貢獻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周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날 뿐만 아니라, 北韓에 있는 우리 兄弟姊妹의 고통과 꿈과 希望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平和와 和解의 課業에 貢獻할 수 있는 女性들이 가진 特別한 선물은 生命과 生命保存에 대한 우리의 결단, 모든 創造物을 돌보며 치유하고 完全케 하며 平和를 통하여 온 地球가 모든 사람에게 豐饒로움을 줄 수 있다는 우리의 비전이다.

統一에 對한 討論과 이를 위한 運動의 모든 過程에서 여성의 役割이 이렇게 重要하다는 것을 理解하며 女性 協議會에 參席한 모든 女性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活動을 始作하기로 決意하였다.

가) 教育的 行事

- ① 統一에 對한 그룹 研究를 構成할 것.
- ② 分斷으로 因한 고통을 겪어온 韓國女性들의 事例를 蒐集하여 함께 나누어 읽을 것.
- ③ 平和에 대한 女性들의 비전을 담은 詩, 노래, 演劇, 寫眞展 등을 作成하여 韓國과 外國에 普及할 것.
- ④ 平和와 統一을 위한 우리의 討論의 장에 他宗教의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을 大幅的으로 參與시킬 것.

- ⑤ 今年 復活節을 기해서 始作된 “基督教女性 向後 10年” 동안에 韓國의 統一問題를 積極的으로 強調할 것.
- ⑥ 教會女性들에게 聖書的 立場에서 본 統一問題를 教育시키고, 1995年 禧年에 앞서 1年동안 徹底한 공부할 수 있도록 計劃할 것.
- ⑦ 1988年 올림픽에 參與하는 外國人들을 위해서 韓國의 分斷狀況과 統一의 必要性에 대한 情報를 準備할 것.

나) 特別行事

- ① 北韓의 백두산부터 南韓의 한라산까지 닿을 수 있는 “平和 리본”을 만들것.
- ② 1988년부터 1995년까지 每年 國際的으로 “平和와 統一을 위한 韓國 주일”을 정하고, 다른 機關들과 協力하여 이를 지킬 것.
- ③ “韓國의 平和와 統一을 위한 기도문”을 作成하며 세계 기도일 國際委員會에 보낼 것.
- ④ 모든 敎人들을 包含한 教會女性들이 統一을 위하여

“기도하는 時間” 또는 “기도일”을 每月 設定하여 지킬 것.

다) 南北의 만남

- ① 초교과 教會機構 또는 世界教會協議會의 도움을 받아 第3國에서 北韓과 南韓의 女性들의 만남을 가질 것.
- ② 統一을 위한 모든 國際 에큐메니칼 協議會에 韓國 女性들을 參與시킬 것.
- ③ 秋夕과 같은 명절에 南北韓의 女性들이 같이 가질 수 있는 文化的 行事를 舉行하며, 같이 떡을 만들고 傳統的인 노래, 춤, 놀이를 할 수 있도록 計劃할 것.

라) 國際的 連帶

女性協議會에 參席한 모든 國際女性들의 名單을 作成하여 이들에게 이 聲明書를 보내며, 여기에 提示된 提案에 따른 行事를 알려줄 것.

마) 主張

우리는 韓國의 平和와 統一을 積極的으로 支持하도록 韓國정부에 促求한다.

바) 女性協議會의 모든 參席者는 韓國女神學者協議會가 發表한 “韓國民族의 平和와 統一에 대한 宣言文”을 만장일치로 支持한다.

우리가 當面한 이 엄청난 分斷의 아픔을 치유하자면 光州事態를 包含한 韓國社會 안의 여러가지 작은 分斷의 問題들을 解決해야 된다고 믿는다. 이는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 民主化가 實現되어 젊은 이와 늙은 이, 女子와 男子, 이 모든 사람들이 韓國民族의 統一된 平和로운 새 共同體를 建設하기 위한 討論과 行動에 參與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統一念願 44년째

1988. 4. 28. 』

(4)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對한 基督青年의 立場(全文)

『“世界基督教 韓半島 平和協議會”에 參加한 우리 基督青年들은 協議會 期間中 수차례의 모임을 갖고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立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分斷의 原因과 責任: 分斷의 決定的 責任은 美國에게

있다 하지만 美國을 分斷의 主범으로 認識하지 못하고 美國과의 對決에서 失敗하여 分斷體制를 成立시킨 우리 民族의 責任도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극우 반공주의자와 친미사대주의자를 길러온 韓國教會는 民族分斷을 豫備하였고, 그것을 固着化하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擔當해 왔음에 하나님과 民族앞에 회개하고, 民族의 統一과 平和를 實現하는 運動에 앞장서야 한다.

나) 分斷의 現實: 民族的 壓迫, 政治的 抑壓, 經濟的 榨取, 社會文化的 疎外, 離散家族의 아픔 등 韓國社會의 모든 矛盾은 民族分斷에서 起因한다. 이것은 分斷이 基本的으로는 帝國주의 國家와 新植民地 國家 사이의 民族問題로 나타나지만, 그속에는 民族內의 榨取者와 被榨取者 사이의 階級問題도 包含하고 있음을 말한다. 즉, 分斷은 기층민중의 人間다운 삶을 根本적으로 制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分斷의 悲劇은 海外同胞들의 悲劇的 삶속에서도 發見된다. 특히 한 家族內에서도 民團과 朝總聯으로 나뉘어져 對立하고 있는 在日同胞들의 아픔은 民族分斷의 結

果에 다름아니다.

다) 統一의 內容 : 統一은 갈라진 國土와 民族을 機械的으로 統合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韓半島 全體에 平和를 實現하는 것, 즉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땅”을 이룩하는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에서는 統一없이 平和는 결코 없다. 그러므로 韓半島에서 正義가 實現된 平和란 具體적으로 民族的인 自主, 政治的인 民主, 社會經濟的인 平等이 완전히 實現된 狀態를 말한다.

라) 統一의 原則 : 우리는 ① 民族自主 ② 平和 ③ 思想,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한 民族的 大團結 ④人道主義 ⑤ 民衆主體가 統一의 5大原則임을 밝힌다. 이 原則에는 統一運動의 主體와 對象 그리고 方法이 담겨져 있다. 統一運動의 克服對象은 民族分斷을 指向하는 外勢와 國內 매국세력이며, 統一運動의 主體는 극소수의 매국세력을 除外한 南·北韓 한민족 全體이며, 主導勢力은 民族統一을 指向하는 民族構成員 大多數 즉 民衆이다. 또한 外勢克服과 平和實現에 利害를 같이하는 第3世界 民衆과 第1世界 平和擁護勢力도 統一運動의

連帶勢力임을 分明히 한다.

마) 當面한 實踐課題 : 우리는 K.N.C.C가 宣言한 禧年宣布運動이 단순한 宣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運動으로 展開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實踐課題를 建議하는 바이다.

① 離散家族問題 : 이제까지 離散家族의 問題는 赤十字社에서 擔當해 왔다. 하지만 그것이 政治的으로만 利用되어 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제 離散家族의 問題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問題로 南·北韓 教會는 世界教會의 도움을 빌어 이 問題를 最優先的 宣教課題로 遂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南·北韓, 日本, 中共教會 및 C.C.A , W.C.C內에 離散家族問題를 專擔할 常設機構의 設置를 建議하는 바이다.

② 올림픽問題 : 같은 피를 나눈 한겨레와 敵對關係를 維持하면서 온 人類의 平和의 祭典인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 따라서 올림픽이 열리기에 앞서 반드시 南·北韓의 和解와 敵對關係의 解消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때에만 올림픽이 分斷固着化가

아니라 民族統一의 契機로 活用될 수 있으며, 진정한 平和의 祭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民族的 大團結의 立場에서 어떠한 形態로든 共同開催, 分散開催, 단일팀 構成 등 北韓의 參與와 올림픽 期間中 南·北韓 教會와 世界 에큐메니칼 教會 共同體의 多角的인 努力이 있기를 建議한다.

- ③ 平和統一期間 宣布：우리는 韓國戰爭이 발발한 6.25 부터 南·北韓이 統一에 對한 基本原則을 合意한 7.4 까지를 平和統一 期間으로 宣布할 것을 建議한다. 이 期間동안에 世界 에큐메니칼 教會共同體는 韓半島 平和·統一을 祈願하는 기도일을 定하여 지키며, 7月4日에는 韓國에서 全世界 平和愛護 勢力이 모여 함께 平和行進을 할 것을 建議한다.
- ④ 反核平和運動：韓國 民族의 生存뿐만 아니라, 人類의 生存을 威脅하는 核武器를 除去하는 運動에 韓國教會와 世界 에큐메니칼 共同體가 함께 連帶할 것을 建議한다. 특히, 東北亞細亞의 非核地帶化를 위해 自

國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核武器가 設置되어 있는
國家間的 緊密한 연대운동이 時急히 要請되며, 世界
에큐메니칼 共同體는 이에 多角的인 도움을 줄 것
을 建議한다.

統一念願 44年 4월 28일

『“世界基督教 韓半島 平和協議會”에 參席한 基督青年 一同』

2. 其他 宗教界

가. 天主教

- 反統一 指向的인 極右, 極左的 態도의 轉換
 - “오늘날의 情勢下에 가장 아픈것은 南北韓 兩쪽 사
람들에게 참회의 精神이 없다는 것으로 이제는 政治
人들이 모두 개심한 가운데 그동안 民族의 統治에
군림했던 分斷과 戰爭에 責任있는 極左派와 아울러 극
단적인 極右派들의 分斷指向的인 態度로부터 統一指向
的인 態度에로 根本的인 態度轉向을 해야한다.”
- 統一의 前提는 自由이며, 統一의 性格은 政治·經濟·社
會·文化發展의 질곡 해소

- “祖國의 統一에 있어서 民族成員의 自由가 基礎가 되어야 하며 自由없는 統一은 거짓統一이며 애초부터 自由없는 統一은 民族성원 全體가 반대해야만 한다.”
- “우리祖國의 統一問題解決은 民族사회에 있어 經濟的, 政治的, 社會的, 文化的 發展의 질곡을 해소하고 또 극복한다는 性格을 띠어야 한다.”
- 統一의 責任은 天主教會에도 있으며, 이를 위해 개신교와 協力
 - “韓國 天主教會는 統一의 責任을 政府當局이나 政治團體나, 社會團體에게만 돌리지 말고 責任이 그들과 함께 자신에게도 있음을 알고 있다.”
 - “教會가 統一에 대한 責任을 다하기 위해 우선 教會는 教會自體內의 일치는 물론이러니와 개신교와의 일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努力해야 할 것이다.”

<이상 「韓國天主教正義平和委員會 北韓 宣教委員會」, “統一에 관한 韓國天主教會의 立場”, '87.2 >

나. 天道教

- 兩極思想의 脫理念化 要求
 - “民族 主體思想은 資本主義의 非倫理性과 共產主義의

비인간성을 동시에 극복하고 自由民主와 平等福祉를
동시에 實現하며 兩極對立의 한계성을 벗어나는데 있다.”

- “統一 民族主義의 民族理念은 兩極理念의 장점을 수
용하고 결함을 버리도록 하여 對立된 둘을 하나로
指向 統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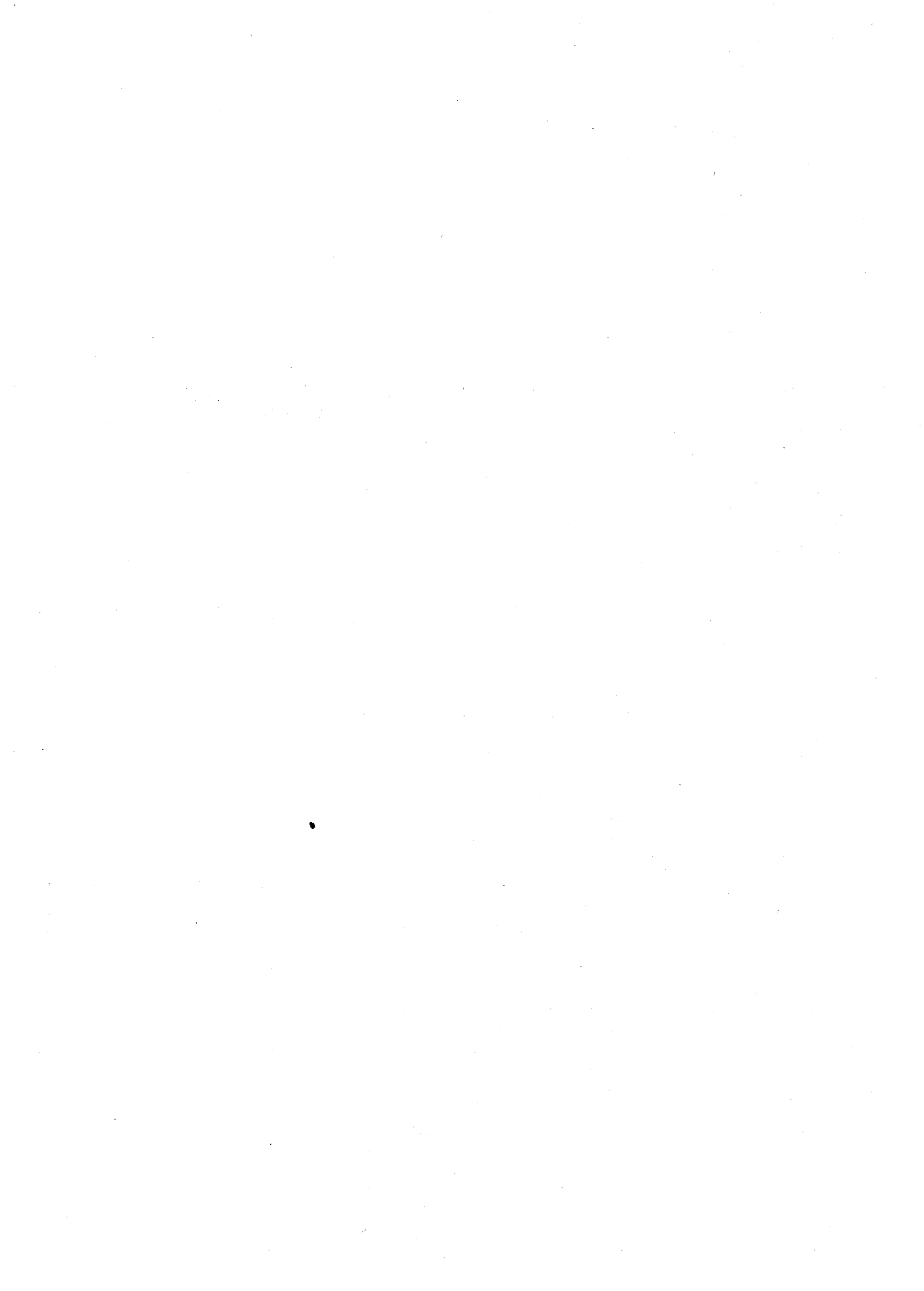
〈오익제, 統一의 理念과 座標, '87.2〉

다. 「民衆佛敎運動聯合」

- “우리의 運動은 獨裁를 완전히 청산하고 民主政府를
樹立하여 빼앗겼던 民主諸權利를 爭取하고, 그 어떤 의
세의 간섭도 배제하여 自主統一國家를 建設하는 일로
매진해야 한다.”
- “美國은 '87.88年을 韓半島 신식민지 權力의 재편기로
보고 88올림픽을 개최, 南北韓 永久 固着化政策을 推
進하고 있다.”
- “美國의 第3世界戰略은 신식민지에 自國의 軍事的·經
濟的 利益을 보장하는 親美保守政權을 樹立하는 것이라
할때, 美國은 그동안의 군부지원에서 우리의 鬪爭이 가
열화될 때에는 保守的인 民間政府樹立까지도 양보해 나갈 것이다.”

〈이상 「民衆佛敎」, '87.7.15〉

IV. 一部在野 및 學園街의 統一論議事例



1. 在野(勞動界)

- “民主化는 곧 統一의 길이다. ……… 民衆의 組織된 힘이 主體가 되어 民主化를 이루고 또한 統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 '87.7.3, 「民憲國」執行委員, 이해찬 〉

- “첫째 새 憲法은 統一 指向的이어야 한다. ……… 民族의 지상과제인 民族의 統一을 위하여 總力を 기울여야 할 것이므로 새 憲法에는 自主的이고 平和的인 統一을 指向하는 意志가 담겨야 한다.”

〈 '87.7.31, 「民憲國」憲法改正 要綱 〉

- “새 憲法에는 統一에 관한 논의를 모든 國民이 다함께 할 수 있도록 國民은 누구나 統一論議에 參與할 權利가 있음을 明示하여야 한다.”

〈 '87.7.31, 「民憲國」憲法改正 要綱 〉

- “우리는 民主化로 들어가는 관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되고 한발자국씩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관문, 「民族統一」의 관문으로 進軍해야 합니다.”

〈 '87.7.9, 前民統聯議長 문익환 記者會見 〉

※ “勞働者와 農民이 피지배, 피착취계급으로 머물지 않고 이 나라의 主人으로 제자리를 잡는 길이 곧 民主化요 民族統一인 것이다.”

〈문익환, “統一은 어떻게 可能한가” p.37, 1984〉

○ “統一은 分斷 이데올로기에 우선한다.

統治執權名分으로 악용되어온 分斷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根本적인 檢討와 論議가 시작돼야 한다. ………. 자각된 民衆의 團合된 대응에 의하여 分斷 42年의 장벽은 의의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87.8.15, 「民統聯」機關紙 「民衆의 소리」 33號〉

○ “統一問題는 分斷의 질곡에 의해 고통받은 6千萬 民衆의 삶의 問題요, 生存權 問題에 直接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統一運動의 主體는 당연히 民衆이어야 한다. ………. 統一問題를 적어도 韓半島 이남에 관한한 責任없는 當局者에 맡길수 없다.

진정한 民衆의 이해를 대변하는 民衆次元의 다양한 統一論議의 통로가 開發되어 北韓民衆과 허심탄회한 對話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87.8.15, 「民衆의 소리」 33號〉

- “分斷된 祖國의 統一없이는 民主化가 實現되지 않고, 이 땅의 民主化없이는 祖國의 自主統一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땅의 民主化, 이 民族의 統一 그것은 결코 별개의 둘이 아니라 난마와 같이 얽힌 하나의 實體임을 明確히 確認한다.”

〈 '87.8.15, 「民統聯」, “解放의 함성이여 統一의 念願으로 솟구쳐라” 〉

- “남은 80年代와 90年代의 우리 歷史는 民族統一의 時代이며 그 主役은 위대한 民衆이다.

民族分斷이 외세에 의한 내정간섭과 軍部獨裁 統治의 根源이며 명분이기에 진정한 民主主義의 實踐은 오로지 民主 社會속에서만, 自由로운 民衆에 의해서만 可能하고 이 는 곧 民族統一로서 完成된다.”

〈 '87.7.10, 「民統聯 議長團 共同記者會見」 〉

- “우리는 統一이 民族의 自尊을 위한 최고의 價値임을 천명하며, 그 論議에 정략의 울타리를 두르려는 企圖에 단호히 반대함과 동시에 統一이 우리를 에워싼 強大國의 利害關係의 부산물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學問的인 研究를 위한 진보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論議는 許容되어야 하며..... 社會의 發展과 統一에 沮害되는 온갖 制度的 障礙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87.7.21 , 「民主化를 위한 全國教授協議會」 “ 社會와 學園의 民主化를 促求하며 ” >

- “.....오늘 우리는 軍事獨裁를 完全히 끝장내고 교활한 배후 조종자 美國을 몰아내어 참된 自主的 民主政府를 樹立하기 위한 決議를 새롭게 다져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分斷된 祖國은 다시 하나가 될수 있을 것이며 「미완의 民族解放」이었던 1945年8月15日의 의미를 오늘날 이땅에서 完成시키는 길이 될것입니다. 自主・民主・統一만세!”

< '87.8.14 , 「民青聯」機關紙 「民衆新聞」論說 “ 自主・民主・統一의 그날을 위해 ” >

- “民衆의 마음에 있는 統一의 實踐, 自由와 平等이 一元化 되어있는 狀態, 하나가 되어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글자로 그대로 만들어..... 이진 공부한 사람들이 대서업을 하는거죠 성문화된 統一方案을 가지고 판문점에

가는 거예요. 그럼 統一돼요”

〈 '87.8.29, 「民統聯」議長 문익환, 議政府 「京畿北部 民統聯」
創立大會 記念辭〉

- “民主化와 統一은 本質적으로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同時に 밀고 나간다. …… 우리 社會는
命을 내리는 階層과 命을 받아들이는 階層으로 民族
이 分裂되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民族統一의
課業이다. …… 모든 사람이 종이 아니고 주인이 되는
그때야말로 民主統一이 된다.”

〈 '87.9.9, 「民統聯」議長 문익환, 「慶熙大」水原캠퍼스 講演
內容〉

- “民族統一은 勞動大衆을 비롯한 全民衆의 지상과제이다.

民族統一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적극적 鬪爭을 벌일
것이다.

當面하여 「인준위」는 自由로운 統一論議가 온 國民에게
保障되어 韓半島가 非核平和地帶로 선포되고 分斷올림픽이
아니라 民族和合과 團結의 올림픽, 南北共同의 올림픽을
實現시키기 위해 鬪爭해 나갈 것이다.”

〈 '87.10.31, “仁川地域 勞動者聯合準備委員會 發足에 즈음한
우리의 決議”〉

○ 「統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統一은 우리 민족이 外勢로부터의 自主를, 反共・安보論理에서 벗어나 참된 民主主義를 이룩하는, 민족의 正統性을 잇는 열쇠인 것이다.

따라서 統一論議는 분명히 分斷으로 因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民衆들의 참여속에서 進行되어야 한다.」

< '88.3, 「民主勞組」 13號, “自由로운 統一論議의 保障을” >

○ 「現在 우리 運動은 매우 중차대한 時點에 서 있다.

흐트러진 대오를 整備하고 分裂된 民族 民主勢力을 한데 모아 強固한 反軍部獨裁戰線을 구축해야 한다.

이 課題의 成敗는 지난 시기의 일시적 패배를 또다시 반복하여 全 民衆이 예속과 獨裁와 分斷下에서 신음케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시 솟구칠 全 民衆鬪爭의 불길로 自由와 民主와 統一의 새날을 열것인가와 직결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올바른 原則에 基礎하여 當面鬪爭에 統一된 行動을 組織해 낼 것이며 앞으로 全體 民族 民主運動의 통일대오의 형성을 위한 共同鬪爭을 先導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民衆의 힘으로 외세와 독재무리를 물리치

고 祖國이 自主・民主・統一의 時代로 나아가기 위한 진
군의 복을 힘차게 올린다.

數年間 차가운 감방에서 갈고 닦은 날카로운 智慧와 鋼鐵
같은 意志로 우리는 民衆의 창과 칼이 되어 惡의 무리를
처단코자 한다. ……… 祖國이 解放되고, 民衆이 勝利하는
그날까지 굳게 團結하여 온몸으로 鬪爭하자. ………

愛國民主勢力의 統一・團結 만세 ! ! !

祖國의 自主・民主・統一鬪爭 만세 ! ! !

위대한 民衆勝利 만세 ! ! !」

〈 '88.3.28 , 서울地域出獄同志會〉

- 「다른 共產國家와는 往來해도 北韓과는 할 수 없다라는 態
도와 올림픽 單獨 開催를 기정 事實化하기 위해 明分 찾
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듯한 現政權의 態度는 體制와 理
念을 超越하여 協力하려는 온 世界的인 趨勢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祖國의 現實에 平和보다는 緊張을, 統一
보다는 分斷을 鞏固化하는 길임에 틀림없다.

統一에의 진정한 可能性은 軍事政權의 政策 테이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分斷의 아픔을 몸으로 겪고 있는 全
民族의 自發的인 統一運動 속에 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우리 祖國이 統一의 길로 나아가느냐, 永久分斷의 길로 나아가느냐는 기로에 놓여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올해 計劃되어 있는 總選, 地方自治制, 올림픽 등 國家大事는 하나같이 祖國統一運動의 成敗를 가름하는 重要한 事案들이다.

祖國의 自主化나 民主化도 결국은 祖國統一로 모아지는 만큼 祖國統一運動을 본 軌道에 올려놓고 이를 위해 全國民이 意志를 모으는 努力과 鬪爭이 本格的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을 시국은 절실하게 要講하고 있는 것이다.]

〈民主爭取國民運動本部 機關紙 「國民運動」, '88.4.16〉

- 문익환목사, 평화협정·미군철수·영세중립 등 제창; “북은 자유를 향해, 남은 평등을 향해” (全文)

「저는 지금까지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피해왔습니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국민의 하나로서 통일의 구체적인 제안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히 제안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잠정적인 제안으로서 국민의 토

론에 실마리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제안하려는 것은 이미 남과 북에서 제안된 것들을 가급적 공정하게 순서를 매겨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1) 평화협정 체결

이것은 35년 끌어온 준전시 상태를 종결시키는 일로서 통일에 앞서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불가침조약이나 점진적인 군축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2) 미군철수

이 문제도 평화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워낙 중대하고 미묘한 문제라서 일단 독립시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군철수에는 두 가지 면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이북 공산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련의 남하를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의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미·소의 군사대결의 시대는 끝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한

국 주둔은 사실상 그 명분을 잃어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둘째, 미군의 한국 주둔이 공산군의 남침을 막는데 그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남한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지지 기반 위에 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지지기반이 없는 정부는 외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외세에 의존하는 정부는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 없고,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정부는 민족통일을 원하지 않고 이를 가로막는 정부라고 보아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었습니다마는 남북한 불가침 조약 체결입니다.

세째는 미·소·일·중 4대국 혹은 UN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작금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간다고 하겠습니다.

(3) UN 동시가입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

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3년 혹은 5년 정도 시한부라면 연방제 통일에 이르는 긴장완화의 과도적인 단계로 이를 거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4) 연방제 통일 제 1 단계

이것은 그동안 김대중씨가 주장해 오던 것으로서 당분간 군사와 외교까지 남과 북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영제국의 연방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씨가 제안했듯이 이 단계에서 UN 외교만은 단일화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5) 영세중립화 선언

연방제 통일과 함께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휴전선 이북이 소련 및 중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남이 미국 및 일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립화 선언만이 진정한 민족자주를 이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세계평화의 초석을 만드는 길입니다.

(6) 연방제 통일 제 2 단계

군사와 외교까지 통합하는 통일의 단계로서 이것은 김일성씨가 제안하는 연방제안입니다. 이 단계는 남북한의 현 사회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남과 북 두 단위로 각각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호네커 동독 수상이 제안하고 콜 서독 수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고르바초프가 뒷받침해 준 독일 통일방안도 이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연방제 통일 제 3 단계

이 단계는 남과 북이 두 단위로 실시하던 지방자치제를 도단위로 세분화한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연방제는 미국이나 소련의 연방제보다 더 철저한 지방자치제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다 실험을 거쳐 실정에 맞는 체제와 제도와 정책을 창출함으로써 서로 자극을 주고 받으면서 경쟁하고 협조하는 창조적인 지방자치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 젊은 세대들, 어찌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의 어깨에나 지워질 책임일 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남과 북의 정권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나 대담한 사고의 전환과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말하는 통일논의는 정략적인 것이거나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 ① 44년에 걸쳐 우리를 지배해 오던 분단 논리를 남과 북은 함께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한국을 분단한 외세의 냉전논리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남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굴종적인 자세를 떨쳐 버리고 민족자주의 논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4 공동성명의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재천명하고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 ② 44년에 걸친 적대 불신 관계에서 자라온 흑백논리라는 괴물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약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보아 주는 자세입니다.

니다. 이편의 장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편의 약점도 인정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서 피차 노력하는 겸허한 자세입니다.

- ③ 북은 자유를 향해서 남은 평등을 향해서 과감하게 제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북쪽이 공산세계의 대세에 발맞추어 자유를 향해서 제도 수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중공과 소련에서 채택되어 실험단계에 있는 민주적인 비밀투표제도가 북쪽에서 채택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아직도 못들었습니다. 집권층을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아직은 시작도 되지 않은 줄 압니다.

신앙의 자유는 상당히 회복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가정교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의 희생 위에서 평등은 자유의 평등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건 물론이나 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민이 한결같이 누리는 자유의 평등이 무시된 평등이 얼마나 절독받이냐는 데 대해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고 더 과감한 제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북쪽이 자유를 향해서 제도수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남쪽은 평등을 향해서 제도수정을 하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79년 GNP(6백 23억)의 25퍼센트가 10대 재벌의 매출액이었는데 84년에는 10대 재벌의 매출액이 GNP(8백 10억)의 72퍼센트, 거의 3배나 되었다는 겁니다. 부의 불평등은 자유의 불평등이요, 자유의 불평등은 자유의 부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자유를 부정하는 보기는 우선 정권을 비판한 죄로 좌경·용공으로 몰려 징역을 살고 있는 양심수들의 석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언론의 자유를 계속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잘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의 자유도 극도로 억압되고 있습니다.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정부라면,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합니다. 통일논의의 자유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지 정부가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통일문제는 전적으로 정권이나 기득권 유지에 관심이 없는 국민의 손에 넘겨줘야 합니다.

④ 인적·문화적·경제적 교류가 점진적으로 그러나, 과감하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통일논의가 속임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특히 88년에 성취해야 할 일은 남북한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또 남북 청년학생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남북 청년학생 체육대회를 기어코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남쪽이 이에 부정적인 자세로 임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가지 환경조성을 해가면서 평화협정 체결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민족통일에 이르는 대장정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민중의 소리」제 50호 특집〉

○ 在野指導級 人士 35名, 南北韓 兩側政府에 올림픽관련 協商促求書翰 發表(全文)

「盧泰愚 大韓民國 大統領, 金日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에게 드리는 편지

우리는 분단된 祖國의 남쪽에 살면서 民族이 南과 北

으로 갈라져 同族間에 對決과 不信의 응어리가 날로 깊어져 가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가 處해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民族的 不幸을 극복하고 祖國의 自主平和統一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今年 9월에 開催될 第24回 國際올림픽大會는 南北의 同族이 政治的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좋은 機會라고 생각합니다.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世界의 모든 나라들이 參加하는 올림픽에 北쪽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參加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民族의 앞날을 위하여 매우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大會에 南北의 選手들이 함께 參加함으로써 南北間의 接觸과 對話와 交流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南과 北의 政府가 이 일을 놓고 時急히 協商을 再開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 입니다. 앞으로 4個月의 準備期間이 있으므로 서로가 民族의 대의를 앞세우고 양보와 타협의 積極的인 姿勢로 協商에 臨한다면

南北의 選手들이 함께 參加하는 民族的 큰 祝祭의 길이
열릴 것으로 確信합니다.

第24回 國際올림픽을 계기로 온 民族이 和解하고 團
합하여 統一의 길을 열고 나아가 世界平和의 增進을 圖
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1988年 5月 11日 午前 9時

서울 YMCA 그릴(1層)」

〈署名人士 名單〉(35名)

〈發議者〉〈法曹界〉〈女性界〉〈宗教界〉〈學界〉〈文人·言論界〉

咸錫憲	金殷鎬	李兌榮	任澤鎭	邊衡尹	金奎東
文益煥	朴世徑	李愚貞	李廷學	成來運	李五德
桂勳梯	洪南淳	文金順	金知吉	朴淳敬	金廷漢
金觀錫	金濟亨	趙俄羅	殷明基	李南德	朴權相
李敦明	康鳳濟		趙容述	尹貞玉	
李効再	柳鉉錫		奇之亨		
宋建鎬			尹恭熙		
朴炯圭					
金炳傑					

2. 學園街

- “ 7.4 南北共同聲明의 原則, 民族大團結의 原則에 立脚하여
..... 統一論議와 實踐의 全國民的 保障이 確保되어야
합니다.

統一은 우리에게 있어 국사이며 진정 올림픽이 世界人의
和合을 위한 祭典이라면 當然히 南北韓의 和合과 統一에
도움이 될수 있는 方向으로 開催되어야 합니다.”

< '87.7.3, 「서대협」 “民主政府에 대한 青年學徒의 立場” >

- “반과쇼 民主化의 完全한 爭取를 鬪爭의 중심고리로 삼
고 여기에 勞農의 生存權 要求鬪爭, 反美自主化와 祖國統
一 鬪爭을 잘 結合함으로써 大衆鬪爭을 活性化시키고 敵
들을 더욱 고립시켜야 한다.

反美自主化 鬪爭, 祖國統一 鬪爭을 大衆的인 鬪爭으로 發
展시키자

民族 生存威脅하는 核武器 撤收하라!

核武器가 웬말이나 美國은 撤收하라! 美國은 國軍統帥權
을 즉각 反還하라! 정전협정 廢棄하고 平和協定 締結
하라!

共同올림픽 開催하여 民族統一 앞당기자! ”

< '87.7.7, 「서대협」, “우리 앞에 提起된 政治路線, 鬪爭路線
上的 몇가지 問題에 대하여 ” >

- “…… 分斷의 아픔을 딛고 民族의 최대 열망인 民族統一을 指向하여 우리祖國 韓半島의 진정한 民主化, 自主化를 위해 우리의 땅 우리祖國을 압박해온 美帝의 侵略과 간섭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

< '87.8.15, 「서대협」, “다시금 8.15 民族解放의 意味를 되새
기며 ” >

- “유엔同時加入, 교차승인, 서울올림픽은 世界 萬邦에 우리 韓半島가 두개의 國家라고 알림으로써 永遠히 分斷된 祖國으로 定着시키려는 美國의 分斷固着化 術策의 일환인 것이다.

民衆의 統一論議를 고양시켜내고, 民族大團結의 平和大祭典인 共同올림픽을 開催해야 함을 強力히 主張해야 한다.”

< '87.8.15,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올바른 鬪爭方向 定立으로 自主·民主·統一을 앞당기자 ” >

- “…… 저들의 反共이데올로기를 動員한 術策을 짓부수기 위해서 民衆의 統一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고양시켜내어

반드시 統一國是를 爭取해 내자”

〈 위와같은 出處〉

※ “……統一은 「갈라진 國土와 民族을 기계적으로 統
합하는 것이 아니라 全國的인 範圍에서 完全한 民族解
放과 民主主義的 變革의 課題를 完遂하고, 南北이 하나
로 합쳐 民衆이 主人되는 祖國을 建設하는 일」이라
定義할 수 있다.

現段階 統一運動의 實踐的 課題인 祖國統一 促進鬪爭에
있어서는 統一運動이 오히려 自主化運動의 一部分으로
或은 이것과 結合된 形態로 나타나는 것이다.”

〈 '87.6.3, 서울大 總學生會, “祖國統一의 그날을 위하여 ”〉

○ “진정 民衆의 뜻이 하나되어 참다운 社會, 참다운 民主
祖國의 建設을 念願하며 싸워나갈때 우리는 진정한 民
主政府를 建設할 수 있으며 民族統一을 앞당길 수 있음
니다.”

〈 '87.8.15, 「서대협」, “다시금 8.15 民族解放의 意味를 되새
기며 ”〉

○ “戰爭維持 協定인 休戰協定은 南北韓 사이에 軍費競爭을
激化시켜 統一을 가로막고 南北韓 國民을 戰爭의 恐怖에

사로 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平和協定締結하여 祖國統一 앞당기자! /

올림픽은 統一을 앞당기고 民衆이 잘 살기위한 民族의
祭典이어야 합니다. ………

南北共同올림픽 開催하여 祖國統一 앞당기자! / ”

< '87.8.17, 「전대협, 백만학도 통일대장정준비위원회」 “대장 정
에 나서며 國民여러분께 드리는 글” >

- “反美 自主化 鬪爭의 遂行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적으로
열여진 政治的 空間속으로 統一運動이 大衆運動으로서의
擴散과 전화는 매우 重要한 것이며, 統一심포지움은 廣範
圍한 統一論議의 집중점이자 이후 統一論議의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根據를 提供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올바르게
遂行되기 위해서는 ………

大衆的 기반을 形成해 나가야 합니다.”

< '87.8.11, 「全國大學生 地域代表者 連席會議」 >

- “民族統一을 위한 우리의 鬪爭은 統一을 가로막는 外勢
의 배경과 分斷으로 인해 살찌는 獨裁의 종식 鬪爭이며,
한편으로는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려는 끊임없는 자기 복
원의 과정이다. ………

따라서 理念的 對立을 民族的 統合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 靑年學徒의 歷史的 使命이고 召命임을 強調한다.”

〈 '87.8.13, 「全國大學生 代表者連席會議」 “民族統一民族解放 週間宣布 趣旨文” 〉

- “……우리는 外勢의 배격과 獨裁의 宗식을 通하여 진정한 自主的 民主政府를 樹立할 것이다. ……
우리는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앞당기는데 寄與할 것이다.”

〈 '87.8.19, 「全大協 發足宣言文」 〉

- “祖國統一을 위한 國民的 論議의 空間들을 擴大시켜 國民들의 결의와 의지들을 結集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의 選舉鬭爭을 매개로 獲得되어 지는 政治的 集會 등의 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강령적 要求인 “自主·民主·統一”을 國民에게 설파해 내고 그 共有點들을 擴大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소모임들을 活性化시켜 내고 전대협주최의 “統一問題 國民大討論會” 등을 開催하여 國民的 意思들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

〈 '87.11.3,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하여” 高麗大, 「民衆廣場」, 11號 〉

- “平和統一을 위한 國民的 論議와 自主的 解決을 위한 統一運動의 保障을 위해 鬪爭하여야 합니다.

軍事的 獨占物인 統一論議를 國民的으로 開放하고 統一을 위한 政治·軍事的 조건의 形成을 可能케 하는 統一運動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 '87.11.8, 「전대협」, “團結하여 鬪爭하고 鬪爭하여 勝利하자” >

- 「祖國의 平和的 統一에 대하여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鬪爭은 올해 사할적인 鬪爭입니다.

(1) 南北間 상호비방과 不信은 民族의 分裂을 加速化시킵니다.

民族對決意識 조장과 상호비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 統一論議는 政府當局에 의해 獨占될 수 없는 民族 모두의 것입니다. 모든 國民의 이 최대 기반인 自由로운 統一論議가 保障되어야 합니다.

(3) 南北韓 교차승인과 유엔同時加入은 두개의 韓國을 만들어 分斷을 固着化하는 기만적인 緊張緩和 術策입니다.

교차승인과 유엔同時加入은 反對되어야 합니다.

(4) 올림픽은 世界平和의 大祭典입니다.

分斷民族에 있어서 올림픽은 民族和解와 民族大團結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分斷을 永久化하고 獨裁統治를 認定化하는 分斷올림픽을 반대하고 共同올림픽을 開催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 나갑시다.」

〈서울大 總學生會, 김중기·유재석 후보 公約, '88.3〉

- “全民族의 祝祭 올림픽의 共同開催
- (1) 民族 大團結을 위한 統一論議의 保障을 위해 鬪爭한다.
- (2) 共同올림픽 開催를 위해 努力한다.
- (3) 統一論議 活性化를 위한 對國民 弘報를 強化한다.”

〈延世大 總學生會, 고광실·박준식 후보 公約, '88.3〉

- 「一金日成大學 青年學生에게 드리는 公開書翰－

受信：金日成大學 青年學生

發信：서울大學校 總學生會長, 副學生會長 候補 記號2

김중기·유재석

日時：分斷祖國 44年3月29日

…… 그 具體的 日程과 內容을 아래와 같이 提案합니다.

- (1) “民族和解를 위한 南北韓 青年學生 국토중단 순례 大行進”을

(가) 88年8月1日에서 14일까지 北韓青年學生은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南韓青年學生은 한라에서 판문점까지 순례대행진을 하고

(나) 8月15일에 판문점에서 서로 만나 한판 대동제를 할 것을 提案합니다.

(2) “民族大團結을 위한 南北韓 青年學生 體育大會”를

(가) 88年9月15日에서 17日 사이에

(나) 서울大와 金日成大 중 한곳에서 開催할 것을 提案합니다.

(3) 實務會談은 6月10日 民主化鬭爭 1週年紀念일에 판문점이나 第3國(제네바)에서 서울大 代表와 金日成大學 代表가 만나서 推進하기를 提案합니다.

위 提案에 대해 4月19일까지 回答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分斷祖國 44年3月29日

서울大學校 總學生會長 候補 記號2 김중기

副學生會長 候補 記號2 유재석」

- “결국 民族統一의 將來를 가장 直接的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침예한 軍事的 對立構造이며, 韓國의 側面에서는

對蘇前進 基地로서의 機能에 대한 強制이다.

따라서 統一運動은 外勢의 對韓半島 政策에서 軍事的 緊張強化의 要素들에 대한 적절한 對應에서 그 大衆化의 매개를 찾아야 한다.

이는 곧 우리 民族 主體의 立場에서 反戰反核問題를 效果的으로 다루는 일이 될 것이다.”

〈崇實大學報, '88.4.6〉

- 「金日成 綜合大學 學生委員會에 보내는 두번째 公開書翰
우리 서울地域 40萬 青年學徒는 民族和解를 위한 南北
青年學生 國土縱斷 巡禮 大行進과 民族大團結을 위한 南
北青年學生 體育大會에 대해 積極的인 支持와 同參의 意
思를 表明하였으며 곧 全國의 百萬青年學徒에게로 擴散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大韓赤十字社의 接受 拒否로 答信의 具體的 內容을 알
수 없지만 統一祖國의 동량이 될 南과 北의 青年學徒가
民族和解와 民族大團結의 先鋒에 서야 함을 절감하며 다
음과 같은 事項을 傳達하고자 합니다.

- (1) 6.10 實務會談은 板門店에서 열기로 합시다.
- (2) 우리 南韓의 青年學生은 ‘서울大學校 祖國의 平和와

自主的 統一을 위한 特別委員會' 委員長을 責任者로 하여 百萬 青年學生을 代表하는 10名 內외의 實務代表者를 5.30日까지 構成하여 會談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實務會談에는 關心있는 內외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였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3) 6.10 學生會談에서는 '國土巡禮大行進'과 '體育大會'의 案件을 매듭지음과 同時에 다음과 같은 相互關心事를 討議하였으면 합니다.

- ① 南과 北의 一千萬 離散家族의 고통을 해소하는데서 南과 北의 青年學徒가 취할 수 있는 措置에 대하여
- ② 民族的 大團結을 위해서는 民間次元의 相互交流가 實行되라고 생각되기에 青年學生 次元에서 可能的 相互交流에 대하여 (例: 體育交流, 文化交流, 學術交流)

(4) 4.19 革命 28週年을 맞이하여 우리 南韓의 青年學生은 4.18 青年學徒의 統一意志를 한데 모아 高麗大에서 出發하는 統一救國大長程을 舉行합니다.

事情이 許諾한다면, 北韓의 青年學生도 4.19 革命 紀念週間に '統一救國大長程'을 舉行하여 南과 北 青年學生의 統一意志를 한데 모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統一救國을 向한 相互交流와 相互對話가
內外의 民族分裂主義者들과 反統一勢力의 妨害와 彈壓을
받을 지라도 祖國과 民族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이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두와 한라와 이어지는 그날을 그리며!

統一祖國 44 年

統一念願 44 年 4 月 15 日

서울大學校 總學生會 傘下 “祖國의 平和와 自主的 統一
을 위한 特別委員會”」

- 「外勢에 의하여 강요된 祖國 分斷의 비애를 넘고 넘어
온 統一 救國의 歷史가 우리 青年 學生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 青年學徒가 民族和解의 기수가 되고 統一運動
의 主役이 되어야 한다는 祖國과 民衆의 준엄한 要求이
다.

愛國에 透徹하고 統一에 熱烈한 우리 青年學生은 核戰爭
전야의 恐怖 霧圍氣로 해가 뜨고 날이 지는 이 凍土의
韓半島에 平和의 새 氣運을 불러오고, 南과 北 5000 年
倍達겨레가 思想·制度·宗教의 차이를 超越하여 民族的
大團結을 이루어 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侵略勢力, 民族分裂 勢力이 쳐 놓은 가시밭길도 그것이
統一救國의 大長程에 도움이 된다면 꽃길 밟듯이 즈려밟
고 가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靑年學徒여 일어서자! 나아가자!

그리하여 올해에는 기필코 祖國의 平和와 自主的 統一의
새로운 서광을 안아오자!

民族解放 투쟁만세!!!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 만세!!!

南北 靑年學生 大團結로 祖國統一 앞당기자!!!

統一念願 44年4月16日, 서울地域 總學生會 聯合建設 準
備委員會」

○ 「올림픽은 平和와 統一의 祭典입니다.

88 올림픽은 이 땅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統一의 새날을
여는 契機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全民族的 統一運動의 熱氣속에서 南北共
同으로 올림픽을 치르고 民族團結의 章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妨害策動을 뚫고 韓半島에 眞正한 平和
와 民族大團結을 가져오는 南北韓 올림픽 共同開催를 이
루어내야 합니다.

全民族의 熱氣가 하나로 모아질 때, 모든 反統一勢力은
除去될 것이며 南北共同올림픽은 統一의 新새벽을 열 것
입니다.

戰爭反對 核反對 民族에게 統一을!

民族統一 가로막는 美國은 물러가라!

休戰協定 廢棄하고 平和協定 締結하라!

共同올림픽 開催하여 祖國統一 앞당기자!

〈서울대 總學生會, 「愛國의 길」, '88. 5. 4〉

○ 서울대 「대학신문」 “統一을 위한 宣言”(全文)

南北이 하나가 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美國의 輸
入開放 壓力을 沮止하고 美·日·韓國의 三國軍事同盟締結
움직임을 격파해 「아주 큰 하나의」 自主的인 나라 建
設을 念願하는 이땅의 6千萬 民衆에게 알립니다.

바로 民族統一이야 말로 民主主義의 結實이며 民族自主
를 아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統一論議를 獨占하고 있
는 政府는 어떠합니까?

政府部處中 國土統一院이 政府綜合廳舍內的 「閑職」으로
치부되고 傘下機構인 南北對話事業局이 開店 休業中이며

「統一研修所」가 海外出國者를 위한 反共講演場인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現 執權勢力이 反統一的 立場을 가진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6日 民正黨 黨職者 人選內容을 보면 「平和統一委員長」에 5共和國의 하수인이었고 4.26 總選에서 國民의 支持를 喪失한 院外人士가 任命된 것도 「當然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政府는 眞正 統一을 위한 作業들을 성실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는 祖國의 自主化와 民主化의 디딤돌이며 6千萬 겨레의 소망입니다.

지난 4.26 總選에서 野圈의 兩金氏는 韓國現代史의 커다란 部分들을 政治的 利用物로 전락시켜 國民의 支持를 얻는데 成功했습니다. 平民黨 金大中總裁는 13代 國會 開院以後에 올림픽을 支持한다는 것과 統一論 展開의 「自制的인」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또 分斷 올림픽以後에 光州民衆抗爭과 5共和國非理에 관한 眞相糾明을 할 수 있다는 「대기성 發言」을 하여 韓國民衆의 死活이며 生存權的 問題인 統一을 뒤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서글픈 時代의 斷面입니다.

이제 우리 겨레도 制度政治圈을 떠난 民衆的 次元에서

統一을 向한 實踐的 作業들을 결행해 나가야 합니다.

核戰爭의 위협과 分斷을림픽으로 인한 分斷永久 高착화 問題로 美·日의 經濟的 壓力의 加重, 계속되는 메카시즘의 선포 등은 韓半島 南端을 소용돌이로 빠뜨리고 급기야는 民族의 生存을 위협하는 절박한 狀況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統一論議는 더 이상 遲延될 수 없으며 民衆의 이름으로 強力히 提起되어야 합니다.

離散家族의 아픔, 南北과 東西間에 걸친 民族不信의 고통, 허리가 잘리어진 이땅의 사람들에게 애잔한 恨으로 자리하고 있는 分斷은 그 처절한 정서적 恨을 넘어서 韓半島 民衆이 담지하고 있는 모든 矛盾의 총화로 發現하고 있습니다. 植民地 남단 이땅의 靑年學徒들은 6千 萬 겨레와 함께 愛國的인 觀點에서 民衆指向的 原則과 함께 實踐作業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는 統一論議를 民衆的 次元으로 끌어올리며 政府의 統一論議를 무너뜨리고 또 保守野黨의 黨利黨略的 統一論을 올곧은 方向으로 견인해 내는 實現可能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觀點에서 現段階 統一論議는 自主化 運動의 進軍

속에서 實現化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백기완氏의 統一研究所 擴大改編은 統一을 기구하는 全民衆的 念願의 結實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分斷祖國 44年 3月 29日 「사랑하는 同胞 金日成 大學 青年學生여러분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된 本校 總學生會長 候補의 「南北韓 青年學生交流提案」은 學內外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철책선에 찢기위쳐 分斷의 쓰라린 고통에 신음하는 6千萬 겨레의 진하다 진한 통한의 아픔이 흠뻑 배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KNCC의 「民族과 統一과 平和에 대한 韓國基督敎會 宣言」은 自主·平和·民族大團結等 統一5原則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6千萬 한민족의 피맺힌 統一念願을 담고 있는 이러한 論議들이 大衆的 擴散과 現 政府의 추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진정 6千萬 民衆은 統一의 主體로 떨쳐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서울대 「大學新聞」, '88.5.9〉

V. 學界人士의 統一論議 傾向

1. 이상우 (서강대학교수) “ 「北韓의 고립화」脫皮 새로운 統一政策을 펴자 ”

○ 「建國 40 年에 새로 출범하는 第 6 共和國은 용단을 내려 새로운 統一政策을 세워주기 바란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參考하여 주기 바란다.

첫째로, 政策의 方向은 孤立化가 아닌 包容이어야 한다. 北韓을 몰아 붙이기만 해서는 안된다.

아량을 갖고 北韓을 우리 넓은 가슴으로 안아야 한다. 北韓이 실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주고 北韓同胞의 삶의 質을 높일수 있는 일을 우리가 앞서서 해주어야 한다.

둘째로, 北韓과의 關係改善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고집할 必要가 없다. 北韓政權의 反應을 기다릴 必要없이 北韓同胞에 利益이 될 일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나가면 된다.

가령 南北韓 交易에 관해서도 北韓의 對應措置를 기다릴 必要없이 北韓을 최종소비지로 밝힌 商品에 대해서는 輸出關稅 免除를 우리가 스스로 立法해 둘수 있다.

또한 北韓의 조치를 개의할 것없이 우리 國民의 北韓 訪問, 그리고 北韓住民의 南韓內訪을 完全 개방하는 宣言을 미리 해두어도 좋을 것이다.

지금 중단된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굳이 고집할 必要없이 南韓住民의 北韓家族 訪問, 또는 北韓住民의 南韓家族 방문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宣言해 두면 어떨까 생각한다.

세째로, 우리의 우방과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우리 스스로가 주선해 주는 方向으로 努力해야 한다.

北韓은 落後한 工業을 살려내기 위해 美國과 日本의 資本과 技術을 얻으려고 최선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나서서 이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모양」이 좋을까?」

〈주간조선, '88. 3. 6.〉

2. 이삼열 (충실대교수) “統一問題 우선 課題로 삼아라”

- 「적어도 80年代의 民主化 運動과 民主勢力的 方向感覺이나 目標設定에서 보면 反獨裁 民主化, 反獨點 民衆의 삶과 權利, 그리고 반외세 民族自主와 統一이 하나의 線

위에 있었음을 알수 있다.

이제 새시대 새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南北關係 改善과 平和統一에 대한 國民的 要求와 時代的 要請을 심각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 統一問題를 우선적인 과제로 삼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統一은 民族의 至上目標이며 과업이라고 입버릇처럼 되뇌이면서도 이제까지 統一課業은 政府의 우선적인 과제가 아니었다.

先經濟, 先安保, 先民主 등에 의해 統一의 과제는 항상 뒤로 밀려나고 먼 장래의 일로 유예되었던 것이 우리의 現實이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東歐나 共產圈 여러 나라들과 關係를 改善해 가고 있으며, 經濟的 이유때문만으로도 中共과의 國交正常化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고 88년 이후의 우리의 國際關係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나 東·西 冷戰의 壁을 넘어서 平和共存과 協力強化의 시대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도 우리는 北韓과의 關係改善이나 協商을 이루지 않고 실질적인 所得이나 結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狀

況에 있다.

이 점에서도 統一問題나 南北關係의 改善은 실질적으로 우선의 과제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사실상 이제까지 통일문제는 政府組織이나 구조상 統一院이 차지하는 위치에서 보아도 결코 우선적인 과제가 아니었다.

統一院은 겨우 資料蒐集이나 研究調査 혹은 弘報業務를 담당하는 연수원같은 것이었고 본격적인 통일정책을 만들거나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었다.

統一問題를 우선적 과제로 삼기 위해서는 大統領이나 總理의 側近에 이 問題를 책임지고 추진할 담당부서와 관료가 있어야 하며, 外交·安保·國防情報·弘報業務가 統合調整될 수 있는 機構나 委員會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도 形式的으로 名目上으로만 存在하는 機構에서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機能을 할수 있고 의지를 가진 기구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새정부는 統一問題에 관한 政策의 立案이나, 기구의 조직에 있어서 과감한 改革을 해야 하며, 統一問題를 중대한 과업으로 삼고 무언가 실천적으로 보

여주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

統一論議를 보다 自由化하고 民主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統一論議를 自由롭고 民主적으로 하지 않고서 바람직한 統一方案이 땅에서 솟아날 수는 없다.

이제까지 우리는 非民主的 時代속에서 統一論議도 國民이 參與하지 않는 가운데 非民主적으로 해왔다고 볼수 있다. 여기서 國民의 다수는 소외되었고 뭐가 뭘지 모르는 狀態에서 막연히 박수만 치고 만세나 부르는 꼴이 되었다…….

南北韓間에는…… 무엇보다도 빨리 信賴關係를 回復키 위해 인도적인 만남과 交流가 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학자나 문화·예술·종교·체육인들의 만남의 交流가 強化되면 크게 기여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월간조선, '88. 3월호〉

3. 서남원(고려대교수), “統一의 봄은 아직도 요원한가”

- 「우리 겨레의 분단과 통일의 전개는 부득이 우리 民族이 스스로 解決해야할 歷史的 과제가 아닌, 세계 人類의 綿密한 共通關心事가 되어버리고만 것이다.

즉, 오늘날 韓半島가 안고 있는 問題解決의 양상은 世界人類史的인 脈絡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必要가 있게 된 것이다:.....

한반도 政治體制의 統合에 대한 周邊勢力의 역학적 관계 변화는 內的으로는 南北韓 兩地域의 통일관에 새로운 이질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형성하여 통일을 指向하는 民族的 集結力을 더욱 흔들리게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韓國側은 世界史的 의미를 이해한 나머지 '不可侵協定 締結', '유엔同時加入', '周邊國의 交叉承認' 등을 提案하고 있는데 반하여, 北韓側은 時代錯誤的인 '연방제 수립', '對美 平和條約 締結', '政治會談 開催'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韓半島 狀況의 세계사적인 의미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치 않는 것과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內的인 統一關係에 있어서도 韓國은 신축적이고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닌 반면, 北韓은 고정적이고 관념적이며 과거지향적인 특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民族統一을 가장 앞당길 수 있는 戰略

은 무엇보다도 일단 世界人類의 움직임 속에서 그 맥락을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즉, 오늘날 世界人類가 지향하고 있는 흐름을 明確히 파악하고, 이에 呼應하는 가운데 民族統一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必要하다.

〈「北韓」, 88년 5월호〉

4. 최봉윤 (전서울대학교수) “나의 祖國 統一方案”

- 「……오늘까지 南北韓 當局者들 — 金日成씨가 主張하는 中立은 共產化 中立임 — 이 韓半島 영세중립국에 대한 구체적인 態度를 보인 일은 없으나, 주변 國際的 事情 특히 4大強國의 外交政策이 韓半島 영세중립화 방향으로 쏠리고 南北 우리 겨레 다수가 韓半島 영세중립을 원하는 때가 오면 이것을 반대할 수가 없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새 세대의 南北主人公들은 思想과 理念과 制度의 차이를 초월해서 통일문제를 민족적 차원에서 解決하려는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

어떤 政治學者들 중에서는 南北間에 理論적으로 存在할 수 있는 統一政府模型을 다음과 같이 7개로 제시했다.

① 政治組合模型

- ② 聯邦制模型
- ③ 聯邦國模型
- ④ 武力解放模型
- ⑤ 敵對的 共存模型
- ⑥ 中立的 平和共存模型
- ⑦ 同盟的 共存模型

이상 7個模型 中에서 최근 北韓當局者가 提議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統一方案은 聯邦制 模型이라 하겠고, 南韓當局者가 제의한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은 外型的으로 보면 정치조합모형같이 보이나 실은 獨逸과 같은 平和共存 模型에 가깝다고 분석할 수 있다.

筆者의 소견으로는 과도연방공화국수립을 제의한다. ………
聯邦制를 과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간단 자명하다.

解放後 40年동안 南北이 서로 다른 사상과 서로 다른 經濟社會制度가 存在하여 왔다는 엄연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여 어느 한쪽이 사상·制度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마음의 자세위에서 조국통일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는 첫단계로 잠정적과도연방국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 平和統一은 우리 民族의 지상명제이므로 사상과 制度가 民族統一을 不可能하게 하는 條件은 될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한 社會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고 다른 制度도 共存할 수 있다고 본다. 시일이 흐르면 젊은 세대는 서로 다른 사상과 制度를 소화 或은 調和시켜 우리 겨레에 알맞는 정치이념과 經濟體制를 創造할 수 있을 것을 믿는다.]

〈「民族知性」, '88년 4월호〉

5. 박실 (國會議員, 평민당) “金大中씨의 統一方案은 이렇다”

- 「………… “3 단계 통일방안”은 1972년 2월 14일 金大中總裁가 日本의 外國特派員協會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統一의 과정을 平和共存, 平和交流, 平和統一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同族間의 悲劇的 戰爭再發을 막고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여 平和統一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3 단계 통일방안은 발표당시부터 南北 어느쪽에서도 주장된바 없는 매우 獨創的이고 劃期的인 것으로 세계의 석학들로부터도 진보적이며 가장 現實性있는 방안으로 評價

받아 왔다. 3단계 統一論이 주장된 후 政府當局은 시종 무관심과 호도의 일관된 態度를 보여 왔으나 現在 南韓 側의 主張인 선평화정착과 20개 시범사업의 실천제안등을 보면 3단계 統一論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3단계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完全한 統一로 가는 과도적 전진단계로서 김대중총재의 '공화국연방안'이 있다. 공화국 연방안은 南北政府가 파견한 中央聯邦機構를 설치하여 南北交流와 同質性回復을 促進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中央聯邦機構는 南北이 각기 獨立된 權限과 기능을 갖는 南北 共同參與의 機構이며, 이와 같은 共通의 統一機構를 매개로 하여 完全한 統一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국 연방안은 해외동포를 비롯한 海外學者들로부터 '대화와 交流가 진전된 후에는 곧바로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好評을 받고 있으나 北韓의 '고려민주연방제안'과 이름이 비슷하여 구설수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고려연방제안은 統一憲法과 總選의 실시로 실질적 權限과 機能을 갖는 聯邦政府의 구성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그 성격과 내용이 확실히 다른 것이다.

理論적으로 구분한다면 北韓側의 聯邦案은 該當 政府의 主權을 廢止하고 하나의 統合된 新 政治機構를 형성시키는 연방국가를 주장하는 것인데 비하여 ‘공화국 연방안’은 獨立的 主權을 갖는 형태의 聯合, 즉 國家聯合에 가까운 의미라고 하겠다.

平和共存과 交流가 中央聯邦機構의 形式을 빌어 더욱 성숙되어짐으로써 完全한 統一로의 進入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장준하 선생이 “통일은 갈라진 민족이 하나되는 것이며 그것이 民族史의 發展이라면 모든 가치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하였듯이 統一은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所望이며 역사적 임무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러한 우리시대의 절대명제가 특정세력이나 집단 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統一을 위해서 論議의 개방은 물론 보다 신축성있는 자세가 절대 必要하다.

어떠한 統一論도 절대적일수 없으며 하나의 주장만을 옹

다고 고집하는 그 自體가 統一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統一論議의 과정은 그 과정이 平和的이어야 한다는 原則이 유지되는 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며 끊임없는 수정, 補完의 作業임을 南北이 속히 깨달아야 한다.」

〈「민족지성」 '88년 4월호〉

6. 이재오(政治評論家), “自由, 民主, 統一의 새날을 열자”

- 「우리의 統一論議는 적어도 分斷 40年동안 되어 온 美國에 對한 事實的인 批判과 分斷 固定化에 寄與해 온 盲目的인 ‘反共論’, 政權安保用的 冷戰論理로서 ‘左傾容共論’, ‘反體制 破壞勢力論’ 등에 대한 民族統一의 대승적 次元에서 批判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北韓에 대한 批判이 보다 事實에 가깝게 科學的으로 民族統一 次元에서 加해질 수 있도록 北韓의 實相도 公開되어야 한다.

오늘의 統一論議는 過去의 統一論에 對한 批判이 最小한 세가지 事實의 充足위에 檢討될 때만이 民族統一과 人間의 삶을 平和롭게 가꾸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要約 整理하면, 첫째, 美國에 대한 無制限 批判이 可能해야 한다.

둘째, 反共論理가 政權安保有 獨裁政權 長期化用으로 利用되는 것에 대한 批判이 可能해야 한다.

셋째, 北韓에 대한 實相이 公開되어 民族同質性 回復의 立場에서 北韓에 대한 批判이 可能해야 한다:.....

南北統一이 眞情으로 可能하게 하려면 筆者는 다음 5個 事項이 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7.4 共同聲明에 담겨진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의 3原則을 遵守하면서

(1) 南北相互間의 統一論議의 擴散과 統一論議權의 國民的 保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統一을 願하는 모든 사람들이 南北 어느 곳에서나 統一이야기를 가슴으로 몸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2) 南北 相互間에 反統一的인 모든 制度和 法的裝置가 우선적으로 改廢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統一論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國民적으로 승화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制度的 裝置와 法的 裝置

가 있다면 統一論議는 여전히 權力의 전유물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 (3) 分斷 40年間の 異質化된 民族의 同質性を 回復하기 위하여 南北社會가 구석구석까지 完全히 開放되어야 한다고 본다.

40餘年間 南北은 서로가 서로의 體制優位를 主張해 왔다.

그러므로, 南北國民들은 自己體制의 優越性を 믿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南北社會가 完全히 開放됨으로 兩體制의 優越性이 國民들에 의하여 檢證되는 것이다.

- (4) 이러한 開放위에 南北相互間에 民間交流, 文化 交流가 擴大되면서 休戰線 一帶에 民族統一廣場을 設置하고, 언젠, 어느때든지 南北相互間에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 (5) 이러한 進行이 同時에 이루어지면서 南北會議를 構成하여 統一의 構體的 方案,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教育的 諸般問題를 統一政策에 맞도록 建設할 수 있는 方案과 統一以後의 國家體制를 論議해야 한다.

南北相互間에 統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떠한
與件도 造成하지 않으면서 權力者들이 統一政策만 번
갈아 내어놓아서는 안된다.

眞情한 統一을 위해서는 分斷과 冷戰論理에 基礎한 南
北權力의 性格이 民主的, 民族的, 民衆的으로 變化되어
야 하며, 自主, 民主, 統一의 3大理念을 統一과 統一
以後의 基本概念으로 設定해야 한다.」

〈「民族知性」, '88年4月號〉

VI. 北韓의 統一論議關聯 主張

1. “祖國統一에 대한 열망을 담은 民衆統一論”

- “民衆統一論이란 南朝鮮의 當局者들 속에서가 아니라 廣範한 在野의 진보적 인사들, 言論界와 양심적인 宗教人들, 靑年學生들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統一에 관한 論議들을 말한다.”
- “民衆統一論에서 注目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統一問題를 人民의 의사에 맞게 人民大衆이 주체가 되어 풀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民衆統一論에서 주목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自主的 原則에 確固히서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民衆統一論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反美自主화와 함께 반파쇼 民主化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民衆統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統一을 위해서는 各界各層의 人民大衆이 統一戰線을 이루고 團合하여야 하며 祖國을 統一하기 위한 한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民族分裂主義者들이 나라의 統一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그에 강하게 맞서 強

力한 統一力量을 마련하는 올바른 戰略戰術的 原則을 찾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 南朝鮮에서 벌어지고 있는 民衆統一論은 北과 南이 7.4 共同聲明을 통하여 內外에 엄숙히 확약한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의 3大原則에 부합되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 “傀儡들이 급속히 대두되는 民衆統一論에 놀라 彈壓에 미쳐 날뛰는 것은 나라의 統一問題에 대한 論議를 저들 當局者들만이 獨占하고 그것을 저들의 獨裁(政權)를 분식하고 分裂主義的 정체를 가리우는데 惡用하려는 犯罪的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南朝鮮에서 活潑히 벌어지고 있는 統一論議를 더 大衆化하고 發展시키는 것은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重要的 要求로 된다.

南朝鮮의 各黨, 各派, 各階層 人民들은 民衆統一論을 南朝鮮 現實發展의 要求에 맞게 自主的 原則에서 더욱더 再定立하고 完成하여 그것이 統一을 위한 人民들의 거족적인 鬪爭에서 實踐的인 指針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民衆統一論을 分裂主義者들의 공격으로부터 擁護, 固守하고 그것을 적극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勞動新聞」論說, '88.1.12〉

2. “左傾 統一論 척결소동을 論함”

- “..... 當局者들의 주장에 따르면, 左傾 統一論은 統一을 빙자하여 駐韓美軍撤收, 비핵평화운동, 反共政策 철폐 등을 내세워 대중을 현혹하고 오도하므로서 結果的으로 北韓 共產集團에 영합하고 동조하는 平和統一의 위기 상황을 추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조작해낸 左傾統一論에 대한 저들 나름대로의 소위 비판입니다. ”

- “우선 駐韓 美軍撤收論의 당위성을 음미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

주한 美軍은 강점후 오늘까지 40여년 동안이나 美國의 세계제패 야망을 武力으로 뒷받침했으며 우리 民族의 統一運動을 각방에서 방해했읍니다.

주한 美國撤收가 祖國統一의 선결 조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뿐만아니라 주한 美軍撤收論은 自主權의 尊重과 내정 불간섭에 관한 공인된 國際法의 裁원칙에도 不합됩니다.

주한 美軍撤收論은 또한 휴전후 모든 外國 軍隊의 撤收를 豫見한 휴전협정에도 不합되며 外勢의 간섭을 없애고 自主的으로 祖國을 統一하기로 한 7.4 南北共同聲明의 原則에도 不합됩니다.

韓半島에서 恒時적으로 戰爭危險을 조성하고 있는 美軍이 撤收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벌써 우리나라에서의 平和를 擔保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

- “한반도에서의 휴전과 平和維持에 대해 말하면 그것은 美軍의 한국주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북 政府의 진지한 인내력과 일관한 平和애호 시책에 의해 擔保되고 있는 것입니다. ”

- “左傾 統一論者들이 主張하고 있는 반핵 平和運動에 대해 또한 음미해 보기로 합시다.

세상이 다아는 바와같이 오늘 이 땅에는 내외 分裂主義者들의 戰爭策動에 의해 수많은 핵무기가 비축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戰爭이 일어나면 녹아날 것은 우리 民族

이며 덕을 볼 것은 외래 侵略勢力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핵 戰爭이 일어나면 그것이 쉽사리 세계적 인 열핵전쟁으로 擴大되리라는 것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핵 전쟁의 위험을 가시는 것은 우리民族의 運命과 關聯되는 사활적인 問題일 뿐아니라 世界平和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절박한 과제입니다.”

- “左傾 統一論者들이 主張하고 있는 反共政策 철폐 구호에 대해 또한 음미해 보기로 합시다.

오늘 韓國에서의 反共은 反北이고 反北은 反統一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統一問題는 金日成 主席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問題도 아니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하는 問題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한 핏줄을 나눈 남북겨레가 民族的 團합을 실현하여 全國的 판도에서 民族의 自主性を 實現하는 問題가 바로 우리나라 統一問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統一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南北間에 화해와 團합을 實現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論理이고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땅위에서 反共은 국시로 宣布되고 民族分裂을 영구화 하고 두개한국을 조작하는데 活用되고 있으며 民主民權을 위한 우리 民衆의 正當한 鬪爭을 억누르고 파쇼통치를 合理化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

- “결국 그들 左傾 統一論者들은 愛國愛族의 충정으로부터 주한미군철폐 비핵평화운동, 反共政策 철폐 등의 주장을 폈던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런즉 그들은 愛國者임이 틀림없는 것이고 左傾統一論의 척결자들이야말로 매국노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各界 愛國民衆이 左傾統一論者들을 愛國者로 찬양하며 그 비판자들을 매국노로 지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까.”

〈「民民戰」論說, '88.2.21〉

3. “統一論議에 누구나 參與해야 한다”

- “... 統一을 實現하려면 南과 北이 서로 질시하거나 적대시 할 것이 아니라 배신적인 反共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하며 思想과 理念, 制度와 信仰을 초월하여 民族的 대단결을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平和統一의 전제이고 南北間에 合意된 7.4 南北共同聲明의 基本精神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

- “統一問題에 關聯해 當局者 以外에는 그 누구도 發言할 수 없고 그것을 문제시하고 犯罪視하는 政府 當局者들의 행위야말로 통일에 역행하는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統一問題는 어느 일당 일파나 어느 특정인의 독점물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統一論議에는 누구나 더 참여해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노○○集團이 진심으로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의 의사표시의 자유를 抑制하는 制度的인 장치인 國家保安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統一論議에 參與할 수 있는 實質的인 與件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民族民衆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그힘에 의거해야만 遂行될 수 있는 統一問題를 당국자들의 독점물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통일을 달가와 하지 않는 分裂主義者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民民戰」論評, '88.3.8〉

4. “南朝鮮에서 미제를 철거시켜야 自主·民主·統一을 實現할 수 있다”

○ “... 美國軍隊가 南朝鮮을 강점하고 軍事的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美國이 南朝鮮의 對內外政策을 規制하고 있는 條件에서 獨立을 운운하는 것은 부질없는 탁상공론이다. ”

○ “南朝鮮이 自主化되어야 社會政治生活의 民主化도 實現될 수 있다.

南朝鮮 人民들에게는 현대인의 공인된 權利인 言論, 出版, 集會, 結사의 自由가 없으며 民主主義를 위한 政治活動의 自由도 없다. ”

○ “南朝鮮이 自主化되어야 나라의 통일위업도 實現될 수 있다. 미제는 우리나라의 統一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이다. 미제의 軍事的 강점을 反對하며 南朝鮮에 대한 支配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反美自主化 鬪爭을 떠나서는 南朝鮮社會의 民主化도, 나라의 統一偉業도 實現할 수 없다.”

〈「勞動新聞」論說, '88.3.11〉

5. 「祖平統委」, “노대통령의 4.21 記者會見 關聯 公開質問狀 發表”

- 「… 南朝鮮 當局者들이 이제는 대화와 통일에 대한 根本立場을 명백히 할때가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개질문장을 발표한다.

가. 南朝鮮에 대한 美國의 軍事的 강점과 내정간섭을 許容하면서 통일을 할 수 있는가?

세상사람들이 공인하고 있는바와 같이 南朝鮮은 美國의 軍事的 강점하에 있는 완전한 식민지이다.

美國은 南朝鮮의 政治, 軍事, 經濟, 文化등 모든 分野의 實權을 틀어 쥐고 죄지우지 하는 南朝鮮의 實際的 통치자이다.

美國은 犯罪的인 두개조선 조작을 대조선 政策의 基本으로 내세우고 우리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美國이 南朝鮮을 軍事的으로 강점하고 식민지 支配政策을 계속하는 한 우리나라의 統一은 어느때 가도 實現될 수 없다.

그러므로 南朝鮮에서 美軍을 철거시키고 미제의 식민

지적 지배를 증식시키는 것은 온민족의 團合과 民族的
自主權을 完全히 實現하기 위한 統一問題解決의 선결
조건이다.

나. 大衆의 統一論議를 抑制하고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統一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祖國統一은 온민족의 거족적인 위업이다.

따라서 統一問題는 各黨, 各派, 各界各層 人民들의 廣
範한 參與가 保障되고 전민족의 성의를 집대성 해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現實적으로 南朝鮮에서는 政黨, 團體 및 各界人士들과
靑年學生들을 비롯한 各界各層이 대화와 통일문제에 대
한 자기들의 독자적인 정강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대
화와 통일문제 해결에 직접 參與할 것을 강력히 요
구하고 있다.

다. 武力增強과 大規模 軍事演習이 대화와 平和統一과 양
립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戰爭危險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다.

우리民族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武力增強과 軍事演
習이 아니라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이다.

라. 이른바 國力優位論을 제창하면서 平和統一을 할 수 있는가?

國力優位論은 힘으로 상대방에 자기의사를 강요하고 자기제도를 相對側 地域에까지 연장하려는 反民族的 戰爭口號이다.

우리나라의 統一問題는 누가 누구에게 먹고 먹히우는 問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갈라진 民族의 團合을 實現하고 원래 하나이던 民族이 하나로 되는 問題이다. 따라서 統一問題 解決에서는 어느 일방도 구태어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없다.

마. 분열노선을 추구하고면서 어떻게 統一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

민족의 숙원인 祖國統一의 새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南朝鮮 當局者들의 反民族的인 분열주의 입장이 통일의 입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데 노○○ 역도는 이번 記者會見에서 任期안에 本格的인 통일의 準備時期가 마련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記者의 質問에 올림픽 競技大會가 끝나면 북의 統一路線이 수정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떠

벌였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들은 統一問題와 關聯한 政策轉換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결국 지금의 分열노선과 政策을 변함없이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금 確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 역도가 大統領 選舉때 들고나왔던 3段階 統一論과 최근 입버릇처럼 뇌우고 있는 北方政策이 철두철미 현 分열상태를 고정화 하고 두개조선을 合法化하기 위한 영구분열안 이라는 것은 더 論議할 여지조차 없다. ……………」 <「平放」, '88.5.2 >

6. “統一論議는 抑制되지 말아야 한다”

- “... 지난 4月 26日부터 4日동안 仁川에서는 南朝鮮 基督教教會協議會의 主催로 世界基督教 韓半島平和協議會라는 會議을 進行하였는데 協議會 뒤끝에 발표된 메세지는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3大原則으로부터 출발해서 朝鮮半島에서의 모든 핵무기 철거, 정전협정의 平和協定에로의 轉換과 北과南 사이의 不可侵 宣言採擇등을 주장한 지난 2月の 統一과 平和에 관한 基督教의 宣言을 강

력히 지지하고 세계교회협의회에 南北朝鮮 基督教인들이 만날 수 있는 擴大된 모임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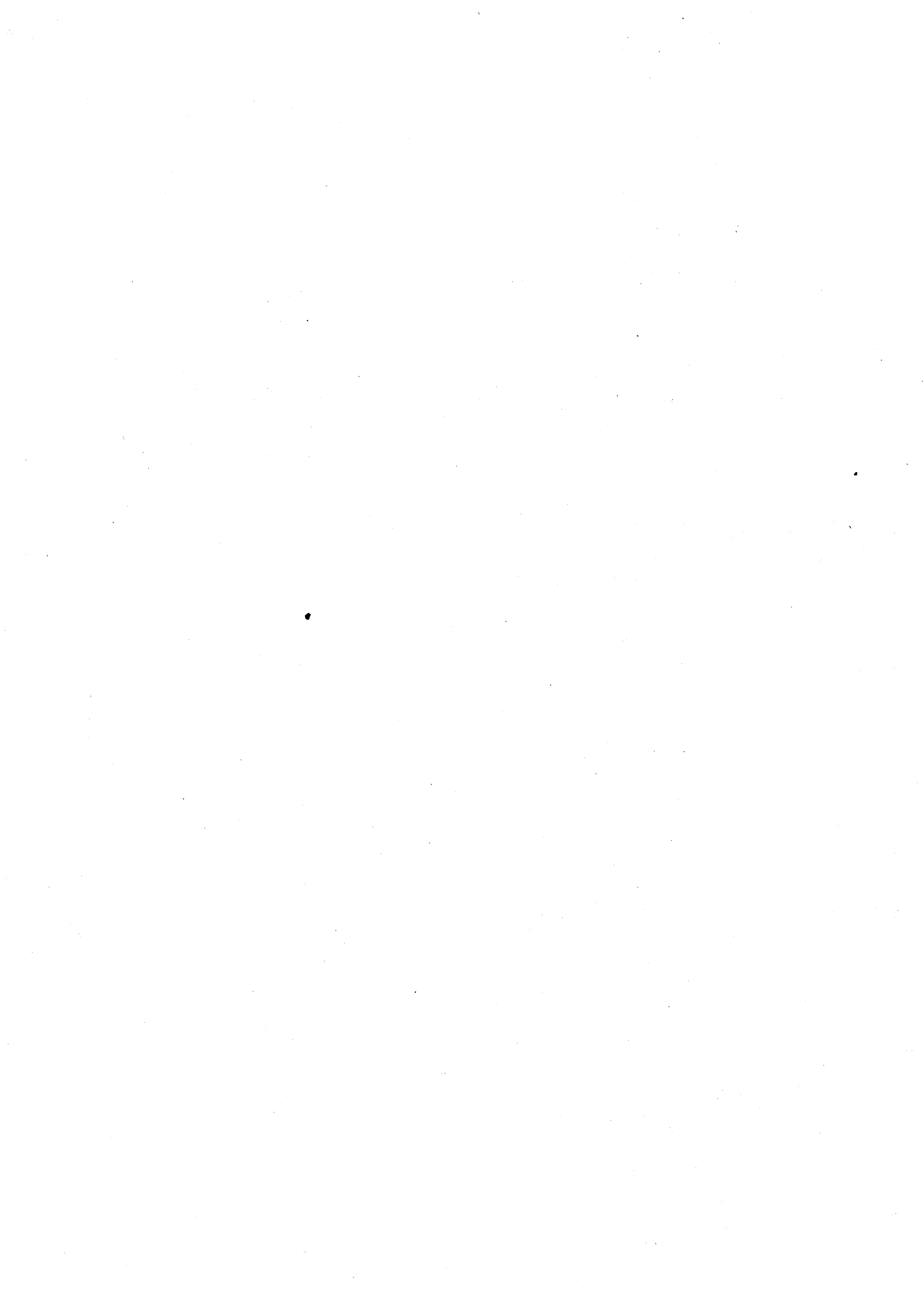
- “이것은 매우 주목되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南朝鮮 靑年學生들과 各界層 人民들속에서 民族的 화해와 단합,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조류가 세차게 굽이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태 발전으로서 그들의 民族的 자각과 愛國的 양심의 발현입니다.”
- “南朝鮮의 열혈청년학생들과 愛國的 人民들이 平和와 平和統一을 주장하며 그를 위한 實踐行動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또 찬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 “그런데 노○○일당은 南朝鮮에서 活潑해지고 있는 統一論議와 統一運動을 犯罪視 하면서 그것을 각방으로 가로막아 나르고 있습니다.
괴뢰도당은 우리주장과 일치하거나 民族的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려는 입장에서 제기된 주장이면 덮어놓고 容共, 左傾의 딱지를 붙여서 彈壓하고 있고, 지어 어용 교인들을 내세워 民族의 統一과 平和를 위한 基督教인들의 活動을 모해하는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 “결국 이것은 대중의 統一論議를 抑制하고 저들만이 統一對話를 독점해서 그것을 민족의 영구분열과 군부독재연장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반영인 것입니다.”
- “祖國統一은 온민족의 死活的인 利益과 직결되는 거족적인 事業입니다.

따라서 統一問題는 各界各層 人民들의 廣範한 參與가 保障되고 全民族의 총의를 집대성해야 萬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

< 「中放」, '88.5.2 >

※ 國土統一院關聯 主要發言內容



가. 兪成煥議員 對政府質問 內容

- 「적어도 分斷國에 있어서의 統一 또는 民族이라는 用語는 한 理念으로 까지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걷는것, 國軍이 存在하는 것 모두가 統一을 위한 手段이어야 합니다.

그 소중한 價値를 생각하면 共產主義나 資本主義보다 그 위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統一院의 豫算이 아시안게임 選手後援費보다 적은것은 事實上 統一을 이 政府가 회피한 것 아닙니까?」

〈「月刊朝鮮」, '86.11月號〉

나. 民主黨 金泳三大統領候補 選舉公約

- 「民族統一院 長官이 非經濟分野(外交·安保·內務·法務·國防·文公·文教等)의 國政을 관장하는 副總理를 겸하도록 한다.

外務部 傘下의 外交安保研究院과 統一院傘下의 統一研修院을 統合하여 “民主統一研修院”을 設立한다.」

〈東亞日報, '87.9.4〉

다. 統一民主黨代表 李重載議員 第137回 定期國會 基調演說

- 「政府는 金大中常任顧問의 統一方案에 대하여 비방할 것이 아니라 統一問題를 主管하는 統一院에서 당사자를 초청하여 심도있게 論議해볼 用意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87.10.6 >

라. 東亞日報, 「金大中大權走者에게 묻는다」

- 「最近 統一院長官은 金顧問의 統一論이 北韓을 우쭐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읍니다만, 執權할 경우 어떤 統一政策을 펴나갈 작정입니까?

“現在 나와있는 統一方案으로는 大韓民國, 北韓, 그리고 나의 方案이 있는데 사실 이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게 내것입니다.

新聞報道를 보니 統一院長官도 內容에 대해선 비판을 못하고 「共和國聯邦制」란 名稱에 대해서만 誤解의 素地가 있다고 했더군요. 그래서 나는 誤解받을 수 있는 名稱은 더이상 利用하지 않겠다고 이미 發表한바 있습니다. 平和共存－平和交流－平和統一의 3段階 統一論은 지난 70年以來 나의 일관된 主張입니다.」 <'87.10.21 >

마. 高麗大 總學生會 「民主廣場」 11 號

「第 1 共和國 以後 지금까지의 南北韓 統一論議들을 研究, 分析하여야 한다.(國土統一院等の 官 主導下의 統一論議의 害惡性等 폭로) 그럼으로써 가장 現實的이면서 民衆的인 統一論을 定立해 나갈수 있다」 <'87.11.3 >

바. 平民黨 金大中大統領候補 選舉公約

「平民黨이 執權하면 政府機構의 骨格을 變化시켜 國務總理 밑에 經濟擔當, 統一·外交·安保擔當, 內務·文教·文公擔當 副總理(長官兼職) 3 名을 두고 國政을 效率的으로 運用하겠다……

이들 세 副總理는 經濟建設外에 國家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人權保護 및 教育의 일대 改革 措置等を 總括的으로 擔當 調整케 될 것이다」

< 忠南地域 遊說, 京鄉新聞, '87.11.23 >

사. 이삼열教授(崇實大) “統一問題 優先課題로 삼아라”

“事實上 이제까지 統一問題는 政府組織이나 構造上 「統

一院」이 차지하는 位置에서 보아도 결코 우선적인 課題가 아니었다.

統一院은 겨우 資料蒐集이나 研究調査 혹은 弘報業務를 담당하는 研修院같은 것이었고 本格的인 統一政策을 만들거나 推進하는 部署가 아니었다.

統一問題를 우선적 課題로 삼기 위해서는 大統領이나 總理의 側近에 이 問題를 責任지고 推進할 擔當部署와 官僚가 있어야 하며, 外交・安保・國防情報・弘報業務가 統合調整될 수 있는 機構나 委員會가 있어야 한다.

勿論 이것도 形式的으로 名目上으로만 存在하는 機構여서는 意味가 없고 實質的인 機能을 할수 있고 또한 意志를 가진 機構여야 한다.” <月刊朝鮮, '88年3月號>

아. 서울大「大學新聞」, “統一을 위한 宣言”

“政府部署中 國土統一院이 政府綜合廳舍內的 「閑職」으로 치부되고 傘下機構인 南北對話事務局이 開店休業中이며 「統一研修所」가 海外出國者를 위한 反共講演場인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現執權勢力이 反統一的 立場을 가진가를 실감있게 합니다.” <'88.5.9>